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21년 8월 31일(화) – 9월 2일(목)
August 31st(Tue)- September 02nd(Thu)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과 한반도 평화·경제·생명공동체

*New Vision for Inter-Korean Relations and Community for Peace,
Economy and Life of the Korean Peninsula*

PROGRAM BOOK

DAY. 2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Contents

프로그램 | Program

Special Message

코로나 이후 글로벌 방역협력과 동북아 방역공동체

Global Quarantine Cooper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Quarantine Community after COVID-19

Session 4

4-1 대결의 공간에서 연대의 공간으로

From the space of confrontation to the space of solidarity: Social Solida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Tumen River Super-Border Region

4-2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Vision for New Inter-Korean Relations

4-3 남북 기후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생명공동체 추진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on of 'Inter-Korean Community of Life' through 'Inter-Korean climate cooperation'

4-4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구조 변화와 주민 삶의 변화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structure and people's lives in the Kim Jong-un era

Session 5

5-1 인도개발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HDP Nexus 이행과 과제

Implementation and task of HDP Nexus for Humanitarian aid-Development and Peace on Korean Peninsula

5-2 김정은 집권 10년 평가: 정치/외교 분야

Evaluation of 10 Years of the Kim Jong Un Regime – Politics and Foreign Affairs

5-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상과 역량강화

Envisioning and Empowering for Korea Peace Process

5-4 미래 남북산림협력을 위해 함께 가야할 길

Paving the way for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Contents

Session 6

- 6-1 **김정은 집권 10년 평가: 경제/사회 분야**
Evaluation of 10 Years of the Kim Jong Un Regime – Economy and Society
- 6-2 **노동당 신 규약과 북한의 탈민족주의론**
KWP and its Post - Nationalism
- 6-3 **북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인권, 인도주의, 개발협력 넥서스**
Human Rights,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Nexus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6-4 **북한의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농업 전망**
North Korea's New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Future Agricultural Prospects

Session 7

- 7-1 **친환경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Two cases
- 7-2 **북한의 지속가능 경제와 회복탄력적 사회**
Sustainable Economy and Resilient Society in North Korea
- 7-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유럽의 새로운 역할**
A New Role for Europe i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 7-4 **지속가능발전목표(SDG)14 이행을 위한 해양수산 남북협력**
Inter-Korean Cooperation in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for Implementing SDG14

프로그램

9월 1일 (수)

10:20-10:30	특별 메시지	코로나 이후 글로벌 방역협력과 동북아 방역공동체	통일부
	발표	테워드로스 거브리엘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10:40-12:10	세션 4-1	대결의 공간에서 연대의 공간으로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좌장	김창진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 •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학교 준교수 • 김현동 동북아식품협동조합 대표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찬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객원연구원 • 최문 연변대학교 교수 •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세션 4-2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	통일연구원
	좌장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전 통일부 장관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담 마운트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위원, 안보 태세 프로젝트 국장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세션 4-3	남북 기후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생명공동체 추진	넷제로2050 기후재단
	좌장	노병렬 대전대학교 교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마쉬 비에르초보스키 한국외대 EU연구소 겸임교수 • 나용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김형수 단국대학교 교수 	
	세션 4-4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구조 변화와 주민 삶의 변화	KDI국제정책 대학원,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좌장	조동준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윌리엄 브라운 동북아경제지식자문 책임 • 김연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부교수 • 다니엘 베르츠 전미북한위원회 선임고문 •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프로그램

13:20-14:50	세션 5-1	인도개발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HDP Nexus 이행과 과제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
	좌장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 제롬 소바주 국제관계 컨설턴트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예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업국장 • 카타리나 젤웨거 KorAid Ltd. CISAC 대표 • 주시 오잘라 Finn Church Aid 북한 프로그램 수석 고문 • 이지선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세션 5-2	김정은 집권 10년 평가: 정치/외교 분야	통일연구원
	좌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형중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정구연 강원대학교 조교수 •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수 	
	세션 5-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상과 역량강화	평화공공외교 협의회
	좌장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성웅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총무 • 이한빛 한국YWCA연합회 간사 • 한가선 피스모모 동북아청년대화 코디네이터 • 엄익호 오!각별 대표 • 김종대 리제너레이션무브먼트 공동대표 • 메리 조이스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동북아지역 보고관 • 오경진 평화공공외교협력단 단원 	
	세션 5-4	미래 남북산림협력을 위해 함께 가야할 길	
	좌장	박현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국립산림과학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형순 국립산림과학원 과장 •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학부총장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탕 쉐야오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협력연락사무소 소장 • 이용권 산림청 남북산림협력 단장 • 김일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 과장 	

프로그램

16:20-17:50	세션 6-1	김정은 집권 10년 평가: 경제/사회 분야	통일연구원
	좌장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 김일한 동국대학교 DMZ평화센터 연구위원 • 미무라 미즈히로 동북아시아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세션 6-2	노동당 신 규약과 북한의 탈민족주의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좌장	임경훈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 • 강해석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 모리 토모오미 세츠난대학교 교수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교수 • 이소자키 아쓰히토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수 • 권현익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교수 	
	세션 6-3	북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인권, 인도주의, 개발협력 넥서스	유엔인권최고 대표사무소 서울
	좌장	다니엘 콜린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네바, 인권 담당관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쉬 포카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 대표 대행 • 시아미 푸비마나싱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네바, 인권 담당관 • 강경모 노트르담 로스쿨 JSD후보 • 다이앤 데지에르토 노트르담 로스쿨 교수 •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션 6-4	북한의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농업 전망	
	좌장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학부총장 • 팀 재커너크 컨설턴트 • 최문 연변대학교 교수 	

프로그램

18:00-19:30	세션 7-1	친환경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KDI국제정책대학원, 베를린자유대
	좌장	이은정 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드레 리우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국제팀장 •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상국 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 •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세션 7-2	북한의 지속가능 경제와 회복탄력적 사회	센트럴랑카셔대
	좌장	하네스 모슬러 독일, 뒤스부르크 에센대학교 교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빈 그레이 영국, 서섹스대학교 교수 • 니키 울스포드 영국, 센트럴랑카셔대학교 교수 • 버지니 그르젤치크 영국, 아스톤대학교 교수 • 임소진 영국, 센트럴랑카셔대학교 부교수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토퍼 그린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조교수 • 마르코 밀라니 이탈리아, 볼로냐대학교 조교수 	
	세션 7-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유럽의 새로운 역할	독일국제전략연구소
	좌장	구드룬 와커 독일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앙트완 본다즈 전략연구재단-한국 포커스 팀장 • 에릭 발바흐 독일국제전략연구소 한국재단 연구원 • 라몬 파체코-파르도 유럽연구소 한국 위원장 • 테레사 노보트나 독일, 베를린자유대 한-유럽센터 연구원 •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즈 EU대표부 남북검임대사 	
	세션 7-4	지속가능발전목표(SDG)14 이행을 위한 해양수산 남북협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좌장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 부원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고르 볼로빅 UNEP 북서태평양 실행계획 코디네이터 • 미아오 웨이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수경재배 담당관 • 박재윤 글로벌피싱워치 선임 데이터 과학자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 전제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부장 •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 	

PROGRAM

September 1 (Wed)

10:20-10:30	Special Message	Global Quarantine Cooper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Quarantine Community after COVID-19	Ministry of Unification
	Presenter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Director-General	
10:40-12:10	Session 4-1	From the space of confrontation to the space of solidarity: Social Solida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Tumen River Super-Border Region	Hananuri Academy of Northeast Asian Studies
	Moderator	KIM Chang jin Sungkongho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Professor	
	Pres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O Sungchan Academy of Northeast Asian Studies, Research Director • LEE Chanwoo Teikyo University (Japan), Associate Professor • KIM Hyun Dong Noreast Asia Food Cooperative, President 	
	Discuss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M YoungCha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Unification and Integration, Visiting Scholar • CUI Wen Yanbian University, Professor • LEE Jusung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ecretary General 	
	Session 4-2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Vision for New Inter-Korean Relation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Moderator	KIM Yeon Chul Inje University, Professor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Pres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O Han bum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nior Research Fellow • Adam MOUNT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enior Fellow 	
	Discuss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O Kab Wo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rofessor • LEE Soo Hyung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INSS), Senior Research Fellow • KIM Sang Ki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Session 4-3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on of 'Inter-Korean Community of Life' through 'Inter-Korean climate cooperation'	Net Zero 2050 Climate Foundation
	Moderator	ROH Byungryul Daejin University, Professor	
	Pres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masz WIERZBOWSK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djunct Professor • NA Yong Woo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 KIM Yong-Gun Korea Environment Institute, Chief Research Fellow 	
	Discuss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NG Sukho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 KIM IIGi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Senior Research Fellow • KIM Hyeongsoo Dankook University, Professor 	
	Session 4-4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structure and people's lives in the Kim Jong-un era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oderator	JO Dong-J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Pres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HN Wook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Professor • William BROWN Northeast Asia Economics and Intelligence Advisory(NAEIA), Principal • KIM Yonho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ssociate Director 	
	Discuss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M Eul ch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Daniel WERTZ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Senior Advisor • KIM Kyooch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ssociate Fellow 	

PROGRAM

13:20-14:50	Session 5-1	Implementation and task of HDP Nexus for Humanitarian aid-Development and Peace on Korean Peninsula	South-Nor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Moderator	KANG Young-sik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Chairperson	
	Pres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M Taek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Jerome SAUVAGE International Relations Consultant 	
	Discuss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I Yehjung Korean Sharing Movement, Director of Programs • Katharina ZELLWEGE KorAid Ltd. CISAC, Director • Jussi OJALA Finn Church Aid, Senior Advocacy Advisor in DPRK Programming • YI Jisun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yung Hee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Session 5-2	Evaluation of 10 Years of the Kim Jong Un Regime – Politics and Foreign Affair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Moderator	KIM Hyunwook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Professor	
	Pres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H Gyeong-seob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 KIM Jin-Ha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nior Research Fellow 	
	Discuss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K Hyeong Jung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Distinguished Research Fellow • LEE Seung-yeol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Senior Researcher • CHUNG Kuyou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NISHINO Junya Keio University, Professor 	
	Session 5-3	Envisoning and Empowering for Korea Peace Process	The Council for Peace and Public Diplomacy
	Moderator	MOON Ah Young PEACEMOMO, CEO	
	Pane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 Seongung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General Secretary • RHEE Hanbeet National YWCA of Korea, Program Officer • HAN Gasun PEACEMOMO YPS Coordinator • UM Ikho Oh!Special, Representative • KIM Jongdae Re'Generation Movement, Executive Director • Meri JOYC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Northeast Asia Regional Liaison Officer • OH Gyeongjin Peace and Public Diplomacy Corps (PPDC), Member 	
	Session 5-4	Paving the way for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Moderator	PARK Hyun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President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Pres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OI Hyungsoon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Director • JEON Seong Woo Korea University, Professor • YANG Moonso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Vice 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Discuss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NG Shengyao FAO Partnership and Liaison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FAO Representative and Head of FAO PLO in ROK • LEE Yong-kwon Korea Forest Service, Director • KIM Il-Han Dongguk University DMZ Peace Center, Research Fellow 	

PROGRAM

16:20-17:50	Session 6-1	Evaluation of 10 Years of the Kim Jong Un Regime – Economy and Society	
	Moderator	KIM Philo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Pres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NG Jea Hwa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Director • JEONG Eunme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Discuss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OI Jangho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Research Fellow • KIM Il-Han Dongguk University DMZ Peace Center, Research Fellow • MIMURA Mitsuhiro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Senior Research Fellow 	
	Session 6-2	KWP and its Post - Nationalism	
	Moderator	LIM Kyung H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Pres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M Tae-Kyung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ssociate Research Fellow • LEE Jung-Ch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KANG Hye Suk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 Professor • MORI Tomoomi Setsunan University, Professor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and Peac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cuss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E Nam ju Sungkonghoe University, Professor • ISOZAKI Atsuhito Keio University, Professor • KWON Heonik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Professor 	
	Session 6-3	Human Rights,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Nexus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oderator	Daniel COLLING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Geneva, Human Rights Officer	
	Pane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esh POKHAREL UN Human Rights Office, Seoul, Representative, ad interim • Shyami PUVIMANASING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Geneva, Human Rights Officer • KANG Kyung Mo Notre Dame Law School, JSD Candidate • Diane DESIERTO Notre Dame Law School, Professor of Law and Global Affairs • LEE Keumso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nior Research Fellow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Seoul
	Session 6-4	North Korea's New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Future Agricultural Prospects	
	Moderator	KIM Hong Sang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President	
	Pres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OI Yong ho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Research Fellow • LEE Jongkyu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nior Fellow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Discuss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M Young-Hoo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enior Research Fellow • YANG Moonso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Vice 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 Tim ZACHERNUK Independent Consultant • CUI Wen Yanbian University, Professor 	

PROGRAM

18:00-19:30	Session 7-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Two cases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Institute of Korean Studies, Freie Universitaet Berlin
	Moderator	LEE Eun-Jeung Freie Universität Berlin, Director	
	Pres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dre LEU Regeneration International, International Director • MYOUNG Ho Eco-Horizon Institute, Vice President 	
	Discuss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M Sangkuk Freie Universität Berlin, Research Fellow • CHOI Chang Yong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Professor 	
	Session 7-2	Sustainable Economy and Resilient Society in North Korea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UK
	Moderator	Hannes MOSLER University of Duisburg-Essen, Professor	
	Pres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vin GRAY University of Sussex, Professor • Niki ALSFORD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Professor • Virginie GRZELCZYK Aston University, Professor • LIM Sojin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Associate Professor 	
	Discuss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ristopher GREEN Leide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Marco MILANI University of Bologna, Assistant Professor 	
	Session 7-3	A New Role for Europe i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SWP)
	Moderator	Gudrun WACKER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Senior Fellow	
	Pane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toine BONDAZ Foundation for Strategic Research-Korea Focus, Director • Eric BALLBACH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SWP Fellow • Ramon PACHECO-PARDO Institute for European Studies, KF-VUB Korea Chair • Tereza NOVOTNA Freie Universität Berlin, Korea Europe Center Fellow • Maria CASTILLO-FERNANDEZ EU Ambassador in Korea 	
	Session 7-4	Inter-Korean Cooperation in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for Implementing SDG14	
	Moderator	KIM Jong-Deog Korea Maritime Institute, Vice President	Korea Maritime Institute
	Pres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gor VOLOVIK UNE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Coordinator • MIAO Weimi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Aquaculture Officer • PARK Jaeyoon Global Fishing Watch, Senior Data Scientist 	
	Discuss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rnhard SELIGER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Representative • JUN JeCheon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MOF, General Director • LEE Jung-Sam Korea Maritime Institute, Director of Fisheries Resources Research Departmen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PROGRAM BOOK
DAY 2

Special Message



테워드로스 거브리엘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Director-General

테워드로스 거브리엘여수스 박사는 2017년 5월 제70차 세계보건총회에서 WHO 회원국들에 의해 5년 임기의 WHO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그는 세계보건총회에서 여러 후보 중 처음으로 선출된 WHO 사무총장이었으며, WHO 아프리카 지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고의 공중보건기구를 이끌게 되었다. 아스마라에서 태어난 테워드로스 박사는 아스마라 대학교에서 생물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런던 대학교에서 전염병 면역학 석사(MSC), 노팅엄 대학교에서 커뮤니티 헬스(Community Health) 박사(PhD) 학위를 취득했다.

테워드로스 박사는 에티오피아로 돌아와 현장에서 말라리아학자로 일하다, 이후 10년 이상 보건부 장관과 외무부 장관으로 에티오피아 연방정부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외교부 장관으로 국가, 지역, 전 세계적으로 건강을 정치적 이슈로 끌어올렸다. 이 역할에서 그는 193개국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을 약속한 Addis Ababa Action Agenda를 협상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선출되기 전 테워드로스 박사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기금 회장, 롤백 말라리아 파트너십 회장, 산모, 신생아 및 소아보건위원회 공동 의장 등 세계 보건 분야에서 많은 리더직을 역임했다.

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was elected WHO Director-General for a five-year term by WHO Member States at the Seventieth World Health Assembly in May 2017. In doing so, he was the first WHO Director-General elected from among multiple candidates by the World Health Assembly, and was the first person from the WHO African Region to head the world's leading public health agency.

Born in the Eritrean city of Asmara, Dr Tedros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Asmara with a Bachelor of Biology, before earning a Master of Science (MSc) in Immunology of Infectious Diseases from the University of London, a Doctorate of Philosophy (PhD) in Community Health from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and an Honorary Fellowship from the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Following his studies, Dr Tedros returned to Ethiopia to support the delivery of health services, first working as a field-level malariologist, before heading a regional health service and later serving in Ethiopia's federal government for over a decade as Minister of Health and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from 2012 to 2016, he elevated health as a political issue nationally, regionally and globally. In this role, he led efforts to negotiate the Addis Ababa Action Agenda, in which 193 countries committed to the financing necessary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rior to his election as Director-General of WHO, Dr Tedros held many leadership positions in global health, including as Chair of 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Chair of the Roll Back Malaria Partnership, and Co-chair of the Partnership for Maternal, Newborn and Child Health Board.

Session 4-1

대결의 공간에서 연대의 공간으로

From the space of confrontation to the space of solidarity: Social Solida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Tumen River Super-Border Region

주관기관
Organized by

하나누리동북아연구원
Hananuri Academy of Northeast Asian Studies

좌장
Moderator

김창진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
KIM Chang jin Sungkongho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Professor

발표
Presenter

-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
- CHO Sungchan Academy of Northeast Asian Studies, Research Director
-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학교 준교수
- LEE Chanwoo Teikyo University (Japan), Associate Professor
- 김현동 동북아식품협동조합 대표
- KIM Hyun Dong Noreast Asia Food Cooperative, President

토론
Discussant

- 김영찬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객원연구원
- KIM YoungCha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Unification and Integration, Visiting Scholar
- 최문 연변대학교 교수
- CUI Wen Yanbian University, Professor
-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LEE Jusung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ecretary General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4-1)

대결의 공간에서 연대의 공간으로 : 두만강 초국경지역 사회연대경제 협력

“변방은 변화의 공간이고 창조의 공간이며 생명의 공간이다.”(신영복, 2012). 두만강 초국경지역은 동북아의 변방에 해당한다. 이곳은 근대화 시기 이후 줄곧 대결의 공간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도 감지된다. 대표적으로 중국 주도로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를 설립하고 공동발전구역을 지정하여 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했다. 멀리 프랑스와 독일의 대결의 공간이었던 알자스-로렌이 평화와 경제협력의 공간으로 변하고 EU본부가 들어섰다. 마찬가지로 두만강 초국경지역이 UN이 주도하는 연대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번영에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공간은 새로운 경제체제를 필요로 한다. 안중근은 동양평화론(1910)을 통해 평화경제를 위한 모델을 제시했다. 본 세션은 이러한 사상에 기초하여 오늘날 UN-SDGs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개념을 확장하여 두만강 초국경지역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사회연대경제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한반도 변방인 라선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위한 한국의 지자체 및 시민사회의 역할을 살펴본다.

From the space of confrontation to the space of solidarity: Social Solida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Tumen River Super-Border Region

"The periphery is the space of change, the space of creation, and the space of life." (Shin Young-bok, 2012) The Tumen River's super border area is located on the periphery of Northeast Asia. This place has been a place of confrontation ever since modernization. However, new changes are also detected. The Tumen River Delta International Tourism Joint Zone, led by China, was established and designated as a joint development zone to turn ecological resources into tourism resources. Alsace-Lauren, which was the space for France and Germany's confrontation, turned into a space for peace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EU headquarters was established. Likewise, the transition of the Tumen River super border into a UN-led solidarity space is very important for peace and economic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Northeast Asia.

New space needs a new economic system. Ahn Jung-geun presented a model for a peace economy through the East Peace Theory (1910). Based on these ideas, the session aims to expand the concept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mphasized by today's UN-SDG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 Tumen River hyper-border region. Specifically, it presents a basic model of social solidarity economic cooperation, examines the possibilities of the Rason, the peripher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 of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for social solidarity economic cooperation.

좌장 Moderator



김창진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

KIM Chang jin

Sungkongho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Professor

그는, 성공회대 사회융합자율학부 교수 겸 사회적경제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국가와 협동조합의 상호 관계, 협동조합과 지역사회공동체의 연계성, 공공정책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주제에 관해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 분야 저술로 『사회주의와 협동조합운동』(2008), 『퀘벡모델: 캐나다 퀘벡의 협동조합·사회경제·공공정책』(2015),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100년사 II』(편집/공저, 2019),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공저, 2015), 『협동조합의 딜레마』(공역, 2015), 『쿠바 춤추는 사회주의』(공저, 2017) 등이 있다.

Currently he is the professor of the division of Social Sciences and a dean of graduate school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His major research theme is Relations between State Power and Cooperatives; Inter-relations between Cooperative and Community; Public Policy and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His publications are: Socialism and Cooperative Movement (2008), Quebec Model: Cooperative, Social Economy and Public Policy in Canada(2015), 100 years of Korean Cooperative Movement vol.II(2019), Humanities of Cooperation and Solidarity(2015), Cooperative Dilemma(translation, 2015), Cuba: Dancing Socialism(2017).

발표자 Presenter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

CHO Sungchan

Academy of Northeast Asian Studies, Research Director

조성찬은 중국인민대학교 토지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라는 큰 틀에서 공공토지임대제, 중국과 북한의 토지정책, 북한 지역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공저, 2011), 「상생도시」(2015), 「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2019) 등이 있다. 2017년 제2회 김기원 학술상을 수상했다.

Cho Sungchan received doctorate degree from the Department of Land Management at the People's University of China and is currently working as the Research Director of the "Hananuri Academy of Northeast Asian Studies." He is researching the public land leasing system, land policy of China and North Korea, and strategie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under the big framework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Major studies include China's experience in land reform (2011), Win-Win City (2015), and Public Land Leasing Theory for Land Reform in North Korea (2019). He won the second Kim Ki-won Academic Award in 2017.

두만강 유역 초국경 협력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의 가능성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

“변방은 변화의 공간이고 창조의 공간이며 생명의 공간이다.”(신영복, 2012). 두만강 유역은 동북아의 변방에 해당한다. 이곳은 근대화 시기 이후 줄곧 대결의 공간이었다. 두만강 유역이 대결의 공간에서 연대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번영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방향에서 1990년대 초부터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과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이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계획들이 타당성이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국제변수가 맞물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나마 최근에는 중국 주도로 ‘북중러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를 설립하고 공동 발전구역을 지정하여 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중심의 움직임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새로운 공간은 새로운 체제를 요구한다.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 이후, 대결의 장이었던 유럽은 두 적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통합을 위한 연대의 노력을 힘겹게 진행하고 있다. 그 성과로 오늘날 유럽연합이 출범했으며, 프랑스와 독일의 대결 공간이었던 알자스-로렌이 평화와 경제협력 공간으로 변하고 EU본부가 들어선 사례도 있다. 동북아에도 유럽통합 사상에 버금가는 중요한 흐름이 있었다. 바로 안중근은 자신의 동양평화론(1910)에서 만주를 대상으로 평화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다만 아쉽게도 유럽이 보인 수준으로 동북아 통합의 흐름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만 만주라는 동북아의 대결의 장에서 초국경 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성과가 한반도의 평화로운 경제 통합과 더 나아가 통일의 중요한 선결과제인지도 모른다.

본 발표는 두만강 초국경 협력을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파악하고, 공간 구조상 라선특구를 중요하게 바라보았다. 구체적으로 두만강 유역에서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라선특구를 중심에 두고 주변 지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했다. 그리고 남북협력은 물론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이 정제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오늘날 UN-SDGs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개념이 두만강 유역 초국경 협력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특히 라선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가 초국경 협력(소삼각지 협력, 국제협력, 남북협력)의 맥락에서 왜 필요한지, 어떤 협력 모델이 가능한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Session 4-1

대결의 공간에서 연대의 공간으로

From the space of confrontation to the space of solidarity: Social Solida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Tumen River Super-Border Region

Possibility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Network for Cross-Border Cooperation in the Tumen River Basin

CHO Sungchan

Academy of Northeast Asian Studies, Research Director

"The outskirts is a space of change, a space of creation, and a space of life." (Shin Young-bok, 2012). The Tumen River basin corresponds to the periphery of Northeast Asia. It has been a confrontation space since the modernization period. The transition of the Tumen River basin from a space of confrontation to a space of solidarity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Northeast Asia but also for peace and economic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direction, there has been a movement of change since the early 1990s. Typical examples are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lan (TRADP) and the Greater Tumen Initiatives (GTI). However, despite the feasibility and necessity of the aforementioned plans, due to the complex international variables, two plans have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Recently, China has established the "Tumen River Delta International Tourism Joint Zone", and designated it as ecological tourist resources. Nevertheless, the movement is limited to China-centered moves.

A new space requires a new system. After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Europe, which had been a battlefield, struggled to unite the two adversaries, France and Germany. As a result, the European Union was launched today, and Alsace-Loren, which was a confrontation space between France and Germany, turned into a space for peace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established the EU headquarters. Northeast Asia also had an important trend comparable to the idea of European integration. Ahn Jung-geun presented a model of peace and economy for Manchuria in his Theory of East Peace (1910). Unfortunately, however, the flow of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has not progressed to the level seen by Europe. We have the task of trying to ensure the cross-border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Perhaps this achievement is an important pre-consequence for peaceful economic integ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urther reunification.

This presentation identifies the cross-border cooperation of the Tumen River as a specific typ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r-Korean cooperation, and looks at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as an important space, geopolitically and geopolitically. And as a new approach to overcome the stagnant development of the Tumen River basin as well as inter-Korean cooperation,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new approach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SSE) in the Tumen River basin cross-border cooperation.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look at why the SSE approach is necessary in the context of cross-border cooperation, what cooperation model is possible, and what role it can play.

발표자 Presenter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학교 준교수

LEE Chanwoo

Teikyo University (Japan), Associate Professor

이찬우는 1980년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 입학하여 1986년에 동대학 국사학과를 졸업, 대우경제연구소 동북아시아팀 연구위원, 제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1999년 6월에 일본 니가타시에 있는 ERINA(동북아시아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옮겨 동북아시아지역 경제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했다.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도쿄의 테이쿄대학 현대비즈니스학과 준교수를 하고 있으며 일본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 주요한 연구분야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치/경제 조사 및 동북아시아협력체계 모델연구이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 “남북한의 동북아 정책”[변화하는 동북아 경제지도](2017)과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등이 있다.

Lee Chanwoo,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eikyo University in Tokyo. In 1998 and 1999 before going to Japan, he was a membe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of South Korea, which i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o advise the President on the formulation of peaceful unification policy. After coming to Japan, he has experienced careers at ERINA as a visiting researcher in Niigata. He is also working as a Specially Appointed Fellow at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in Tokyo. He is an author of articles and research papers on Korea Peninsula issue including economic cooperation among northeast Asian region, for example, “Northeast Asia Policies of South and North Korea”, Changing Economic Map in the Northeast Asia, (2017), and book of “Cooperation with North Korea’s Economy”(2019).

라선특구 사회연대경제 현황과 초국경 협력의 가능성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학교 준교수

북한에는 해방후부터 현재까지 협동소유적 생산과 분배체계를 갖춘 경제조직이 있어왔다. 농촌의 협동농장을 제외하고도 수산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 등, 1차, 2차, 3차 산업부분에 걸쳐 지방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원료 조달과 판매에 있어서 국영기업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90년대이후 국영공장의 공급체계가 약화되면서 시장지향성과 기동성 면에서 협동조합이 더 적합한 측면도 있었다.

라진지역에서는 해방후부터 '라진군 소비조합', '생산협작사', '라진 철공생산협동조합', '락산사금생산협동조합', '라진 가구생산협동조합' 등이 설립되어 협동적 생산방식의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진행하였다. 선봉지역에서는 1950년대에 개인소유를 협동소유로 그리고 국유(전인민소유)로 전환시키려는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1959년 3월에 웅기군(현 라선시 선봉지구) 내의 모든 협동농장, 수산사업소, 수산협동조합, 지방산업공장을 통합하여 '웅기군 종합농장'이 설치되어 2000년까지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다시 협동농장체제와 생산협동조합들이 부활하였다.

1993년에 북-중-러가 국경을 접하는 두만강하구 인접지역에 북한이 라진선봉경제특구를 설치하면서 등장한 라선시는 2000년부터 도급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제개혁의 실험장으로 되었다. 협동농장 체계는 작업반 중심으로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특구로서 각 경제단위가 외자유치 등 국제협력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였다.

2017년이후 유엔안보리 제재조치로 경제협력 사업이 불가능해졌으나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선시는 초국경 협력의 가능성 측면에서 북한에서 우위에 있는 지역이다. 경제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무역과 인도자원을 포함한 경제교류, 그리고 "마이크로 크레딧"을 초국경 협력으로 추진하는 금융협력 등을 라선시 주민들의 협동적 경제단위가 사회연대경제로서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있고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

Session 4-1

대결의 공간에서 연대의 공간으로

From the space of confrontation to the space of solidarity: Social Solida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Tumen River Super-Border Region

From the space of confrontation to the space of solidarity: Social Solida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Tuman River Trans-Border Region

LEE Chanwoo

Teikyo University (Japan), Associate Professor

North Korea has been possessing non-state-owned economic organizations based on cooperative ownership since 1945. Those firms, consisting of production cooperatives, fisheries cooperatives, convenience cooperatives let alone cooperative farms, have been taking an important role in the local economy covering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y. They could make more independent decisions than state-owned enterprises in raw material procurements and goods sales. These advantages have made cooperatives more competitive at market-oriented productions and mobilities after the supply chain of the state-owned economy has weaken since 1990's.

There were cooperatives doing social solida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at Rajin area in the Tuman River region such as 'Rajin Consumer Cooperative', 'Rajin Steel Production Cooperative', 'Raksan Alluvial Gold Production Cooperative' and 'Rajin Furniture Production Cooperative'. Sonbong area near Rajin, however, had experienced other trial of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y to shift individual or cooperative ownership into state-owned one. The result was 'Sonbong County State-run General Farm', which was founded in March 1959 combining all cooperative farms, fishery firms, cooperatives, and local industrial factories. The Sonbong General Farm was disintegrated into each economic unit in 2000.

Rason City, founded in 1993 as the DPRK formed the Rajin-Sonbong Economic Special Zone in the Tuman River Trans-Border Region in 1991, has become an experimental area to fulfil the economic reform. Local farmers could operate a cooperative farm as a separated and independent working unit, and each economic unit like cooperative could propel the inducement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Special Zone.

Economic sanctions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since 2017 owing to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test has prohibite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Rason city, however, has continuously higher initiatives in the perspective of trans-border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trades of non-sanction goods, humanitarian aids, and a financial cooperation of 'micro-credit', which the local people of cooperatives could make into practice on their social solidarity and economic foundation.

발표자 Presenter



김현동

동북아식품협동조합 대표

KIM Hyun Dong

Noreast Asia Food Cooperative, President

김현동은 동북아시아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제인으로 현재 동북아식품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성균관대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1996년부터 동북아 동포사업에 뜻을 두고 (사)우리민족서로기운동, (사)동북아평화연대, 러시아 시민단체인 연해주 동북아평화기금 등 NGO에서 활동하였으며, 이의 실천적 대안 모색을 위해 사회적 기업 바리의 꿈, 동북아식품협동조합, 순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활동을 해왔다. 중국조선족기초자료집(1999재외동포재단), 연해주 고려인 농업정책지원사업과 연해주에서의 남북러협력(2005,미르), 연해주에서의 대한민국 해외 농업의 방향(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2018) 등의 글을 써왔다. 2021년 해외 농업에 대한 기여로 농식품부 장관상과 2013년 사회적 기업인으로 강원도지사상을 받았다.

Kim Hyun Dong is an activist who works for a Northeast Asian civic group and currently serves as chairman of the Northeast Asian Food Cooperative. He studied sociology at Sungkyunkwan University and worked in various NGOs, such as the Korean Sharing Movement, the Northeast Asia Peace Movement, and the Russia Primorsky Northeast Peace Fund. He has written articles such as the China Foundation for Korean Residents (1999), the Korea Agricultural Settlement Support Project in Primorsky Province, the Inter-Korean Cooperation in Maritime Province (2005, Mir), and the Direction of Korea's Overseas Agricultural Resources Development Association (2018). He was awarded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ward in 2021 and the Gangwon Province Governor's Award in 2013 for his contribution to overseas agriculture.

동북아평화협력의 경제 (동북아사회적경제) 를 꿈꾸는 바리의꿈

김현동

동북아식품협동조합 대표

1. 연혁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발족 (1996)
- 동북아평화연대와 연해주동북아평화기금 발족 (2001)
- 연해주동북아평화기금 산하 유한회사 이스턴 모닝 발족 (2004년)
- 연해주고려인 농업정착지원사업, 농업정착 마을 만들기 (2004년)
- (주)바리의꿈 발족 (2005년) - 차가버섯청국장, 메주, 장류 수입 및 판매
- 바리바리 생협 활동 시작 (2013) : 고려인 생산자와 연해주 교민 간 생협
- 동북아식품협동조합과 순공사회적협동조합발족 (2018) ; 압착콩기름과 콩단백

2. 미션 :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Non-GMO 산업

- 구소련 강제이주 고려인 동포의 중앙아시아로 부터 연해주 재이주 정착
- 동북아 (중국의 압착 가공, 연해주의 NonGMO 농업,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
- 건강과 안전의 NonGMO / 탄소 중립화와 지구살리기 식물성 단백질 식품
- 남북러 농업협력으로 두만강(동북아) 평화 경제 협력 모델 창출

3. 방식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방식 : 생산과 소비 뿐 아니라, 공익적 영역까지의 협력 견인
- 가장 집단화 되어 있는 급식 (교육계)의 역할을 중심으로(전국교육감회의)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 시민사회 중심에서 전국화로
- 교육부(급식)와 농림축산식품부(한국의 N-GMO 해외농업)의 정책 연대 촉구

4. 현황

- 해외농업 농지 10만 ha 확보, 2019년 콩 3만톤 포함 5만여톤 곡물 생산 시작
- 바리의 꿈 1500헥타르 프리코 농장 농장에서 고가공 공장으로 (일자리 창출)
- 동북아 호혜의 순환 시스템 모델

5. 전망

- 대한민국 NonGMO 급식의 실제적 대안으로 : 3만톤에서 - 18만톤으로
- 실제적 GMO 대체 농업과 가공으로 안전한 먹거리 실현
- 연해주 NonGMO 농공단과 남북러 협력
-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식물성 단백질 산업으로

Session 4-1

대결의 공간에서 연대의 공간으로

From the space of confrontation to the space of solidarity: Social Solida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Tumen River Super-Border Region

Baridream that economy of Northeast Asia's peace cooperation (Northern Asia's social economy).

KIM Hyun Dong

Noreast Asia Food Cooperative,

1. History

- Foundation of the Korean Sharing Movement (1996)
- Northeast Asia Peace Movement and the Russia Northeast Asia Peace Fund (2001)
- Eastern Morning, a limited company under the Russia Northeast Asia Peace Fund in Primorsky Province (2004) was launched.
- Russia Northeast Asia Peace Fund's annual agricultural settlement support project, creating an agricultural settlement village (2004)
- Dream of Bari Co. Ltd. (2005) - Director General of Importing and selling fermented soybean, Chaga Mushroom soy bean paste.
- Start of activities of Baribari cooperation (2013): Russia Korean producers and Korean residents in Primorsky Province and Overseas Korean livelihood cooperation
- Northeast Asian Food Cooperative and Pure Soybean Social Cooperative (2018); Pressed Soybean Oil and Soybean Protein

2. Mission: Non-GMO industries that save the Earth and life.

- Settlement of forced migration of the former Soviet Union, Korea, from Central Asia to Again-Migration of Primorsky Province
- With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of the Korean in Northeast Asia,
(China's squeeze processing, NonGMO agriculture in Russia, South Korea's social economy)
- NonGMO compressed soy-processed food for health and safety
- Carbon neutralization and earth-saving vegetable protein food
- Creating a model for peaceful economic cooperation on the Tumen River (North-East Asia) through agricultu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 Russia

3. Method (Social Economy)

- By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the social economy,
- Driving cooperation not only to area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but also to areas of public interest
(The only way to overcome GMO pricing barriers and systems built by existing capital Cartel)
- Focusing on the leading role of school meals (the education community), the most collective conscious consumer and the largest victim (Conferenc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 Nationalization from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in the educational community
- The Ministry of Education (School Meal)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Non-GMO Overseas Agriculture in Korea) are urged to solidify their policies.

Korea Domestic GMO industry

Session 4-1

대결의 공간에서 연대의 공간으로

From the space of confrontation to the space of solidarity: Social Solida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Tumen River Super-Border Region

- 10 million tons of GMO grain per year including 1 million tons of GMO soybeans (independent grains in 1970s)
- Solvent processing (Bean oil) and livestock feed (Defatted soybeans) centered on local yield, driving force in the livestock era
- After 40 years of population decline and climate crisis,

4. Status

- 100,000 hectares of agricultural land in overseas agriculture, and 50,000 tons of grain including 30,000 tons of soybeans began to be produced in 2019.
- Dream of Bari 1500 hectares Gohab (Primco Farm) Farm to Processing Factory in Koryoin Village (creation of jobs)
- Cyclic System Model for Northeast Asia

Production: Overseas Agriculture in Primorsky Province and Russian Agriculture

Processing: Primorsky Krai of Russia (Eastern Morning), his home town : processing donghae city, Gangwon Province, (Northeast Asia Food Cooperative) (scale processing, 000 tons of beans).

Consumption: Blooming morning village (Cheonggukjang), Gangwon-do school meal (pressed soybean oil), vegan (vegetable protein)

5. Prospects

- As a practical alternative to NonGMO meals in Korea: 30,000 to 180,000 tons
 - Realize safe food through actual GMO alternative agriculture and processing
 - NonGMO Agricultural Corporation in Primorsky Province and Inter-Korean Russia cooperation
 - Carbon neutral, climate crisis response vegetable protein industry
- (Joseon's food shortage and artificial meat / climate crisis and vegetable protein)

토론자 Discussant



김영찬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객원연구원

KIM YoungCha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Unification and Integration, Visiting Scholar

김영찬은 현재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있다.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근무하였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인천대학교에서 강의하였다. 30여년간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조사국 팀장,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한국경제 분석 및 전망, 독일 유로지역 경제상황 분석, 독일통일 연구 업무 등을 담당했다. KIEP에서는 초청연구위원으로 3년간 독일통일과정 및 남북한 통일시의 통화금 융통합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했고 독일 할레(Halle) 경제연구소와의 공동연구에 참여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지역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동서독 통화 금융통합 과정에서 독일연방은행의 역할 및 한국에의 시사점(2017)」,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Implications for Korea(2018)」,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통화금 융재정 분야(공저, 2016)」 등이 있다.

Dr. Kim YoungChan is a visiting scholar at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and Integration of th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U). Prior to this post, he worked at the Bank of Korea and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d gave a lecture at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and INU. He was working for the Bank of Korea for more than 30 years. He was a team chief at the Research Department and the Chief Representative of the Frankfurt Representative Office of the Bank. His research involved economic analysis and forecasts for Korea, analysis of economic conditions in Germany and the Euro area, and studies on German unification. As a visiting research fellow at KIEP, his research themes included monetary and financial integration in German unification and in case of Korean unification. Also he participated in a joint study with the Hall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of Germany. He received hi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H. D. from the HUFS. His major books and papers include, Role of the Deutsche Bundesbank in the German Monetary Un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2017), Temporary Separate 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es after Unification: Monetary, Financial and Fiscal Aspect (co-author, 2016),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Implications for Korea (2018), etc.

토론자 Discussant



최문

연변대학교 교수

CUI Wen

Yanbian University, Professor

최문 교수는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교수이다. 연변대학교 한반도연구협동창신센터 연구원이기도 하며, 현재 조선 및 한국의 여러 대학들과 함께 한반도경제발전 관련 공동연구과제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Cui Wen is Professor in the college of Economics and Management at Yanbian University. Cui Wen is also a researcher of the Co-innovation center for Korean peninsula studies. At present, Cui Wen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joint research project concerning economic development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various universities in North and South Korea.

토론자 Discussant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LEE Jusung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ecretary General

이주성 사무총장은 1994년 월드비전에 입사, 2002년부터 대북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신하였다. 20여년 간 월드비전의 대북사업을 이끌며 국내 대북사업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2014~2015)과 정책위원장(2018~2019)을 역임하였고, 2020년에는 새로이 법인으로 탄생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현재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대북 인도적 협력의 제도적 안정과 국내 민간단체들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목표로 대정부 활동 등 각종 사업을 이끌고 있다.

LEE Jusung Joined World Vision in 1994 and has worked as a director in charge of World Vision's North Korea projects for 18 years since 2003. He is a long-time humanitarian activist with experience in emergency relief,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knowledge-sharing projects in North Korea. While serving as a chairman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policy committee of KNCK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he has led the efforts to join together civil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in calling for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As Secretary General of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he is now in charge of overseeing all affairs involving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which has recently been newly established as an Incorporated Association.

Session 4-2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Vision for New Inter-Korean Relations

주관기관
Organized by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좌장
Moderator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전 통일부 장관
KIM Yeon Chul Inje University, Professor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r

발표
Presenter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CHO Han Bum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nior Research Fellow
- 아담 마운트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위원, 안보 태세 프로젝트 국장
- Adam MOUNT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enior Fellow

토론
Discussant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KOO Kab Wo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rofessor
-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LEE Soo Hyung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INSS), Senior Research Fellow
-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KIM Sang Ki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4-2)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

- 북미, 남북대화의 교착국면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안정적 관리 및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 방안 논의가 요구됨.
- 한반도 주변 정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입장, 비핵화 협상의 쟁점과 과제 등에 대한 냉철한 분석
-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 과제 논의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Vision for New Inter-Korean Relations

- Amidst a prolonged impasse of North Korea-U.S. dialogue and inter-Korean dialogue, it is necessary to peacefully and stably manage the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o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sett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A discerning analysis is required on the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position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over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eace process, and issues and tasks ahead for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 The session will discuss South Korea's policy and tasks ahead to establish new inter-Korean relations and settle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좌장 Moderator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전 통일부 장관

KIM Yeon Chul

Inje University, Professor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김연철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8)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2001)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Professor Kim Yeon Chul obtained his B.A. from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Foreign Affairs in Sungkyunkwan University, and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same university (Aug, 1996). He served as a former chief researcher at the North Korea Studies Division,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 policy advisor to the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a president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and a Minister of Unification. Currently he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Foreign Affairs in Inje University and a chairperson at the Korea Peace Forum. His publications include Economic Policy and Institutionalization of North Korea (2001), The Strategy of Negotiation (2016), and Dialogue of the Pre-70 years: Re-evaluating the History of Inter-Korean Relations.

발표자 Presenter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HO Han Bum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nior Research Fellow

조한범은 1994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서 러시아 체제전환을 주제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통일연구원에서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현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정부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중국과러시아의 경제체제전환 비교연구', '정치, 경제, 사회분야 통일비용-편익 연구', '북한체제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 등이 있다.

Cho Han Bum received a Ph.D. in Sociology from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in 1994 with his doctoral dissertation on the transition of Russian system. He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KINU and has researched the socialist system transition and unification issues at KINU since 1995. He is also currently lecturing at Korea University.

He served as a consultant of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and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 He also served as a director of the Center for Inter-Korean Cooperation Studies at KINU. He has authored several publications including "Comparative Study on China and Russia's Economic System Transition," "Study on Unification Costs-Benefits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rea", "Structure of Crisis on North Korean System and Prospects of Change in Society."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상의 쟁점과 과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은 상호 연동된 과정이다. 북한 핵프로그램의 복잡성과 장기성을 고려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행동 대 행동원칙의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하고, 초기 단계의 실질적 이행조치의 실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로드맵은 크게 초기의 입구단계(entrance stage), 핵심단계(core stage), 그리고 잔여단계(residue stage)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입구단계의 핵심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불가역적 입구 형성이며, '프롬(from) 영변형' 이행방식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 영변핵시설 폐기와 모든 핵 프로그램 동결(freezing)을 제안하고, 미국은 종전선언 또는 연락사무소설치 및 대북제재 일부해제, 한국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재개 및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상응조치로 취하는 것이다. 'from 영변형' 이행방식은 북한이 이미 제안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 중심이며, 미국은 북핵 능력의 상당부분을 축소할 수 있고, 한국은 남북관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핵심단계는 영변 이외의 모든 고농축우라늄(HEU)시설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핵 능력의 중추를 폐기하는 단계이다. 미국은 평화협정과 아울러 북미 수교를 상응조치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남북 경제, 사회문화, 생명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산재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 및 평화적 이용체제로의 전환 등 많은 과제는 세 번째 잔여단계에 해당하며 핵위협이 소멸된 상태에서 중장기적 과제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당면과제는 북미의 실제행동을 수반하는 첫 번째 입구단계를 이행하도록 견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비핵화 프로세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최종적으로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ssues and Tasks of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eace Negotiations

CHO Han Bum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nior Research Fellow

Denuclearization and an establishment of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on the one hand and a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on the other are an interlinked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mplexity and the prolonged natur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craft a denuclearization roadmap consisting of comprehensive agreement, phased implementation, and the principal of action-for-action, and focus on fulfilling the implementation measures at the initial phase.

A denuclearization roadmap will be implemented over the course of initial entrance stage, core stage, and residue stage. The essence of the first entrance stage is to create an irreversible entrance into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At that stage, a 'From Yongbyon' negotiation proposal could be applicable. In that stage, North Korea suspends nuclear sophistication, which means freezing, and dismantles Yongbyon nuclear complex; in return, the U.S. allows the end-of-the war declaration, or establishes a liaison office with North Korea, and partially lifts sanctions imposed on the North;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resumes the tour to Mt. Geumgang and Gaesong Industrial Complex (GIC) and links inter-Korean railway and roads. The implementation of the 'from Yongbyon' negotiation proposal at the entry-level focuses on dismantling the Yongbyon facility. It is as beneficial to the U.S. in that it will achieve an actual reduction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as it is to the ROK in that it will grant it an impetus to rekindle inter-Korean relations.

The second important measure is to dismantle the very essence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aside from Yongbyon, including all the highly-enriched uranium (HEU) facilities and mid-to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The U.S. may suggest reaching a peace deal and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a corresponding measure. South Korea may conclude a basic inter-Korean agreement, actively pursue cooperation in inter-Korean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nd create a life community.

Mounting tasks still remain on how to dismantle North Korea's ubiquitous nuclear programs and promote transition to a system of peaceful usage, which falls into the third residue stage. This could be dealt with as the mid-to-long-term task when direct nuclear threats are removed.

발표자 Presenter



아담 마운트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위원, 안보 태세 프로젝트 국장

Adam MOUNT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enior Fellow

아담 마운트는 미국 과학자 연맹의 국방 태세 프로젝트 수석 펠로우이자 책임자로, 미국의 핵 전략과 전력 구조, 관습적 억지력, 진보적 외교 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전에는 미국진보센터의 선임연구위원과 외교관계위원회의 스탠튼 핵안보연구원이었다.

마운트 박사는 마이크 멀린 해군 참모총장과 샘 님 상원의원이 임명한 17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외교협회의 독립 태스크포스를 이끌며 미국 대북정책을 구상했다. 또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안드레아 버거 선임연구위원과 미국 과학자 연맹 소속 국제연구팀을 이끌며 12명의 미국 및 동맹국 출신 전문가들과 북한의 핵무장 및 대북정책 연구를 함께 진행했다.

마운트 박사는 자신의 글을 『포린 어페어스』, 『디 애틀랜틱』, 『서바이벌』, 『포린 폴리시』, 『데모크라시』에 기고하였으며 약시오스 뉴스의 '엑스퍼트 보이시(Axios Expert Voices)'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마운트 박사의 연구는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 스트리트 저널』, 『폴리티코』, AFP, AP, 로이터 통신에서 다수 인용되었으며 CNN, MSNBC, BBC, NPR, CNBC에 출연하기도 했다. 또한 하원 군사서비스 소위원회에서 전략군에 대해 진술을 하기도 했다.

마운트 박사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 연례 세미나에서 강의를 맡고 있으며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윤리를 가르쳤다. 마운트 박사는 리드 칼리지에서 학부를 졸업했고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Adam Mount is a Senior Fellow and Director of the Defense Posture Project at th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where his work covers U.S. nuclear strategy and force structure, conventional deterrence, and progressive foreign policy. Previously, he was a Senior Fellow at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nd a Stanton Nuclear Security Fellow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Dr. Mount, along with Navy Chief of Staff Mike Mullin and 17 experts appointed by senator Sam Nun, led the independent task force of the American Diplomatic Association from 2015 to 2016, envisioning U.S. North Korea policy. He also led Andrea Berger and an international research team from the American Federation of Scientists from 2018 to 2019, working with 12 U.S. and allied experts on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and North Korea policy.

Dr. Mount's other writing has been published by publications like Foreign Affairs, The Atlantic, Survival, Foreign Policy, and Democracy, and he is a contributor to Axios Expert Voices. His analysis is regularly cited by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The Wall Street Journal, Politico, AFP, AP, and Reuters, and he has appeared on CNN, MSNBC, BBC, NPR, and CNBC. He has testified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subcommittee on strategic forces.

Dr. Mount teaches an annual graduate seminar in nuclear strategy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previously taught international ethics at Georgetown University. He holds a Ph.D. and M.A. from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at Georgetown and a B.A. from Reed College.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양자협력

애덤 마운트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위원, 안보 태세 프로젝트 국장

미 관료들이 이제 북한은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동안, (한미) 동맹은 (북한) 정권과의 대치에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잠정적 합의를 추구하기 위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인 접근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핵무기가 늘어나고 진화하는 속도 및 김정은이 대화 제의에 대응하지 않는 명백한 태도로 비추어 보았을 때,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소규모의, 초보 단계의, 신뢰할 수 없는 보복형 무기로 제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치고 말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군사 및 외교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점을 가진다. 북한의 새로운 확산 통제 및 선제 옵션을 이해하기 위해 동맹 억지 태세는 톱다운식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미국의 외교 전략은 가장 위협적인 시스템을 제한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안을 능동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안정이라는 공통의 개념에 의거하여 동맹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신중하고 지속적인 조율을 필요로 하는 노력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함의점은 전체적인 동맹의 전략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억지와 외교는 고삐 풀린 무기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미국과 동맹국의 이해관계를 영속적으로 수호하는데 있어서 마냥 의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하고 정권 자체의 변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레버리지를 높이고 정권으로 하여금 안정성 및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쪽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더 많은 외교적, 경제적 접촉이 필요하다.

Session 4-2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Vision for New Inter-Korean Relations

Bilateral Cooperation for Improved Relations with North Korea

Adam MOUNT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enior Fellow

As US officials now acknowledge that North Korea will not relinquish its nuclear weapons in the near future, the alliance enters a new phase in its confrontation of the regime. Both Seoul and Washington have adopted the only reasonable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to seek a series of interim agreements to constrain the arsenal. However, given the speed at which the arsenal is expanding and evolving, and Kim Jong Un's apparent failure to respond to offers of talks, it is now clear that we will pass through the critical window where we might have confined North Korea to a small, rudimentary, unreliable, retaliatory arsenal.

This fact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military and diplomatic strategy. Allied deterrence posture needs a top-to-bottom review to account for North Korea's new escalation control and preemption options. Our diplomatic strategy needs to proactively present viable proposals to limit the most threatening systems, an effort that will require careful and consistent advance coordination to determine allied priorities according to a shared concept of stability.

However, the most important implication is that overall allied strategy is no longer sufficient. Deterrence and diplomacy cannot keep pace with a runaway arsenal and cannot be relied upon to defend US and allied interests in perpetuit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need an overall strategy to transform our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to shape the transformation of the regime itself. This requires more diplomatic and economic contacts to increase leverage and provide incentives for the regime to evolve in a direction that conduces to stability as well as the health and welfare of the North Korean populace.

토론자 Discussant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KOO Kab Wo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rofessor

구갑우는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다. 일본 토야마 대학 외래교수, 릿쿄 대학 방문연구원으로 지내기도 했다.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북한외교, 남북한 문학이다. 지은 책으로는,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2007), 국제관계학 비판: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평화(2008),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 질서(2011, 공저), 분단된 마음의 지도(2017, 공저)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탈식민적 분단국가의 재생산: 남북한과 아일랜드-북아일랜드의 사회적 장벽”(2012), “아일랜드섬 평화과정 네트워크의 형태변화”(2013), “북한 ‘핵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년-1964년”(2014), “제2차 북미 핵갈등의 담론적 기원”(2015), “북한 소설가 한설야(韓雪野)의 ‘평화’의 마음(1), 1949년”(2015),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의 한반도 평화체제”(2016), “The Discursive Origins of Anti-Americanism in the Two Koreas”(2017), “북한 핵 담론의 국제정치”(2017),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2018), “평창 임시 평화체제에서 판문점 선언으로”(2018), “두 ‘평양시간’”(2019) 등이 있다.

Koo Kab Woo is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He was a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oyama and a visiting researcher at Rikkyo University in Japan.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North Korean foreign policy, and Korean literature. His publications include Critical Peace Studies and Korean Peninsula(2007), A Critique of International Relations(2008), “Towards a Working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2011), “Civil Society and Unification Movements in South Korea”(2011), “Reproduction of Post-Colonial Divided States: A Comparative Analysis on Social Partition between Two Koreas and Ireland-Northern Ireland”(2012), “A Prototype of Nuclear Discourse in North Korea, 1947-1964”(2014), “The Discursive Origins of Anti-Americanism in the Two Koreas”(2017),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Pyeongchang Provisional Peace Regime”(2018), “Two Pyongyang Times”(2019), etc.

토론자 Discussant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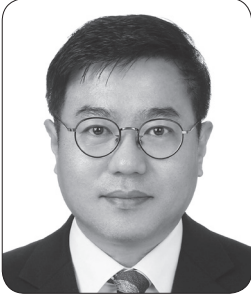
LEE Soo Hyung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INSS), Senior Research Fellow

이수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술로는 “얽힘이론과 동맹의 안보 딜레마(2017)”, 『중추적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3.0』(2019), 『신국제질서와 한국외교전략』(공저, 2021) 등이 있다.

Dr. LEE Soo Hyung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INSS). He received his Ph.D.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HUFS) in Seoul, Korea. Dr. LEE had formerly served as an administrator i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from 2005 to 2007. He is currently serving as a vice president in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KAIS), a standing member of the committee in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nd an adjunct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UNKS). His main research areas include international politics and security, NATO and European Security, ROK-US relations, and alliance politics in East Asia. His recent publications include “Entanglement Theory and Alliance Security Dilemma(2017 in Korean)”, South Korea’s Foreign and Security Strategy 3.0 as a Pivotal Middle Power(2019 in Korean), and A New International Order and South Korea’s Foreign and Security Strategy(2021 in Korean).

토론자 Discussant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KIM Sang Ki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김상기 연구위원은 중앙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통일연구원에 재직중이며,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한 바 있다. 주요 연구영역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미국외교정책이다. 최근 주요 저서로는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공저, 201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공저, 2018) 등이 있다.

Dr. Kim Sang Ki received his B.A. and M.A. at Chung Ang University, and obtain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at Iowa University, USA. He served as a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n Kyungnam University and is currently a research fellow at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He also worked as a policy advisor to the Minister of Unification from May 2019 to June 2020. Dr. Kim's major research areas include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U.S. relations,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and U.S. foreign policy. His recent publications are Plans and Suggestions for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Co-authored, 2019, in Korean),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and ROK-U.S. Relations (Co-authored, 2018, in Korean).

Session 4-3

남북 기후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생명공동체 추진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on of 'Inter-Korean Community of Life' through 'Inter-Korean climate cooperation

주관기관
Organized by

넷제로2050기후재단
Net Zero 2050 Climate Foundation

좌장
Moderator

노병렬 대진대학교 교수
ROH Byungryul Daejin University, Professor

발표
Presenter

- 토마쉬 비에르초보스키 한국외대 EU연구소 겸임교수
- Tomasz WIERZBOWSK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djunct Professor
- 나용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NA Yong Woo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KIM Yong-Gun Korea Environment Institute, Chief Research Fellow

토론
Discussant

-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HONG Sukho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KIM IIGi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Senior Research Fellow
- 김형수 단국대학교 교수
- KIM Hyeongsoo Dankook University, Professor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4-3)

■ 남북 기후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생명공동체 추진

코로나 19 확산은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한반도 생명공동체 인식 확산과 평화경제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협력을 통한 남북경협의 지속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이 새로운 평화경제 동력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이슈는 전지구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남북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공동 대응은 재난·재해 및 에너지 산업 분야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기후협력은 지속가능한 남북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본 세미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한반도 생명공동체 논의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on of 'Inter-Korean Community of Life' through 'Inter-Korean climate cooperation'

Recently, the spread of Corona 19 i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human security. It is time to spread awareness of Inter-Korean Community of Life and promote a peaceful economy. Sustainability and revitaliz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environmental cooperation are being discussed as a new peaceful economy engine. In particular, as the issue of climate change is emerging as a global problem, Inter-Korean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rough inter-Korean cooperation can be expected to have a role in promoting disaster and energy industries. Therefore, inter-Korean climate cooper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sustainabl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peaceful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eminar aims to sprea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iscussions on 'Inter-Korean Community of Life' by suggesting inter-Korean cooperation measures on climate change.

좌장 Moderator



노병렬

대진대학교 교수

ROH Byungryul

Daejin University, Professor

노병렬은 국제정치, 특히 핵문제해결에 관한 국제적 접근방법연구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자문위원회위원, 외교통상부 및 국가 산하 연구원 등과 한국국방외교정책수립에 일조를 하였으며, 대진대학교 북방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한반도문제와 동북아 군사전략포럼을 다수 개최했다. 지난 10여년간은 중국 요녕사회과학원, 대련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하였으며, 현재는 한국과 중국의 안보협력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Roh Byungryul has spent a lot of time on researching international approaches to international politics, especially nuclear proliferation, and has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Korean defense foreign policy with a member of the Foreign Policy Advisory Committee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past 10 years, he has continuously co-hosted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s with Liaoni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and Dalian University in China, and is currently researching ways to cooperate in security between Korea and China.

발표자 Presenter



토마쉬 비에르츠보스키

한국외대 EU연구소 겸임교수

Tomasz WIERZBOWSK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djunct Professor

토마쉬 비에르츠보스키는 유럽연합(EU)과 한반도에 관한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치며 동시에 사업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는 현재 EURAXESS 한국 대표로 재직 중이다. EURAXESS는 유럽 집행위원회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연구원 교류와 경력개발 지원을 통해 유럽과 세계 간의 학술 협업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다. EURAXESS 팀에 합류 전, 비에르츠보스키 교수는 FP7/Horizon 2020 계획 하에 EU 자금 지원을 받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그는 한국정부장학사업의 지원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성균관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북아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는 국제관계와 비교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사회과학의 방법론 또한 그의 관심분야이다.

Tomasz Wierzbowski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various academic as well as business activities regarding the European Union and the Korean Peninsula. He is currently a EURAXESS Korea Representative - EURAXESS is a European Commission initiative supporting researcher mobility and career development while enhancing scientific collaboration between Europe and the world. Before joining the EURAXESS team, he was a project manager for the EU funded programs under FP7/Horizon 2020 schemes.

Tomasz holds a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MA in International Politics obtained at Sungkyunkwan University under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Tomasz is focused on the Northeast Asia region and offers academic cours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mparative Politics. His academic interest lies also in the methodology of the social sciences.

기후변화에 관한 북한의 대응 및 동북아시아의 협력

토마쉬 비에르초보스키
한국외대 EU연구소 겸임교수

본 발표는 지역적 및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북한의 환경 과제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UN 국제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북한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이다. 북한은 지난 수십년간 심각한 가뭄과 치명적인 홍수를 동반한 폭우에 연달아 고통받고 있다. 이런 자연 재해는 토양침식 및 산림 황폐화와 같은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이로 인해 북한에게 가장 심각한 기후 변화 관련 문제인 식량 문제가 발생한다. 세계 식량 계획(WFP)은 2018년에 북한의 인구 중 1,010만명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식량 부족 위험에 처해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본 발표는 자연 재해의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식량난과 수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상급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의 정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본 발표는 북한은 혼자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 원조 및 다자간 협력이 북한을 비롯한 지역 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 주장한다.

북한의 직접적인 체계적 관찰로 이차적 연구 결과를 보충하는 방법을 택했으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재와 북한의 정치적인 특성으로 인해 북한의 환경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Session 4-3

남북 기후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생명공동체 추진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on of 'Inter-Korean Community of Life' through 'Inter-Korean climate cooperation'

The DPRK's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the Northeast Asia cooperation

Tomasz WIERZBOWSK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djunct Professor

This work is an attempt to assess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challenges within DPR Korea (North Korea) caused by regional and global climate change.

According to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North Korea is the most vulnerable country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as far as climate change are concerned. Over the last decades, North Korea has been affected by severe droughts followed by heavy rainfalls that lead to disastrous floods. These natural disasters cause such environmental problems as soil erosion and deforestation. All these factors cause the biggest climate change-related concern for North Korea, which is food insecurity. As the World Food Program (WFP) estimated in 2018, 10.1 million people in North Korea (more than 40% of the population) are at risk of food shortages.

I will also examine North Korean policies aimed to tackle the issues mentioned above with the priority of minimizing direct damages from natural disasters as well as addressing food shortages and improve water management systems. I will also argue that North Korea cannot cope with climate challenges alone, hence international aid and cooperation in multilateral arrangements could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address North Korean as well as regional environmental issues.

From the methodological perspective, the secondary research findings are augmented by direct systematic observations made in North Korea. However, the objective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situation inside the country is especially challenging due to the lack of credible data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y.

발표자 Presenter



나용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NA Yong Woo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나용우 박사는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박사는 성균관대학교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조지타운대학교 평화안보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그의 전공은 국제정치학으로, 최근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의 연구업적으로는 〈코로나19 시대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조건과 과제〉(2021),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2020, 책임),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2019, 책임), 〈남북관계의 변화와 동북아안보〉(2019, 공저), 〈한반도 평화의 국제정치학〉(2018, 공저) 등의 저서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에너지협력”(2019),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새로운 로컬 거버넌스의 모색: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2018, 공저), “김정은 시대의 대외개방정책과 남북경제협력: 경제개발구 전략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모델의 모색”(2018, 공저), “북핵고도화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진화와 우리의 대응”(2018, 공저), “초연결융합시대와 사이버안보: 사이버공간의 안보화와 한국의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2017)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Na Yong Woo is a Research Fellow of Humanitarianism and Cooperation Research Division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Dr. Na was a senior researcher at the Center for Good Democracy of Sungkyunkwan University, and a visiting researcher at Center for Peace and Security Studies of Georgetown University. Dr. Na majors in political science, especiall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nergy politics. Recently he has been focusing on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is recent writings include Conditions and Tasks for Inter-Korean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in the COVID-19 era (Korean, 2021), New Strategies and Initiatives for the New Southern Policy and New Northern Policy (Korean, 2020), New Strategies and Tasks for the Decentralized Policy towards North Korea (Korean, 2019), Changes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hips and Foreign Policy of Northeast Asian Region (Co-edited, Korean, 2019), Peace and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Korean Peninsula (Co-edited, Korean, 2018), North-South Korea's Energy Cooperation for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on Korean Peninsula (Korean, 2019), New 'Local Governance' for Peace and Prosperity of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authorship, 2018), The External Opening Policy in Kim Jong-un's Er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A Search for New Model of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s Strategy (Co-authorship, 2017), The Acceler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and the Searching for South Korea's New Policy toward North Korea (Co-authorship, 2017), The Hyper-connected Hybrid Era and Cybersecurity: A Securitization of Cyberspace and Proposals for Cybersecurity in Korea (Korean, 2017).

한국의 탄소중립과 그린한반도 구상

나용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은 최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그린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게 된 배경을 안보개념의 변화, 즉 기후변화 이슈의 안보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 이후 기후변화 이슈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우위 확보 및 미국 경제의 재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한국은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그린뉴딜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에서 그린뉴딜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함께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그러나 한국의 그린뉴딜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간적 확장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남북 협력은 첫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의지가 있어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입장에서 2050 탄소중립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착에 빠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 기후변화 협력을 통한 '그린한반도 구상'을 시론적 차원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Session 4-3

남북 기후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생명공동체 추진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on of 'Inter-Korean Community of Life' through 'Inter-Korean climate cooperation'

Korea's Net-Zero and Green Korean Peninsula Initiative

NA Yong Woo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South Korea recently declared '2050 Net-Zero' and decided to promote 'the Green New Deal'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of Korea's transition to an active attitude toward climate change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tization of climate change issues.

Carbon neutrality and climate change have become important agenda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 sense that climate change issues have to do with recovering US global leadership, securing an edge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revitalizing the US economy since the advent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n response to this international trend, Korea establishes active policies by suggesting a 'Green New Deal'. However, in order for Korea's Net-Zero to be realized, the space for 2050 net-zero should be expanded to the entire Korean Peninsula.

First, it can enhance North Korea's ability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Second, Korea's net-zero goal can be practically realized. Third, it can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a peaceful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by restoring inter-Korean relations that have fallen into a deadlock.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poses the 'Green Korean Peninsula Initiative(GKPI)'.

발표자 Presenter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IM Yong-Gun

Korea Environment Institute, Chief Research Fellow

그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1989)하고, 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과 및 산업경영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1996)하였다. 과거 20여년간 기후 및 대기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OECD 환경국 컨설턴트, IPCC 제5차 종합평가보고서 주저자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경제연구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환경부 기후변화 R&D 사업 '한국형 상하향식 온실가스 통합 감축시스템 개발' 연구단 단장을 맡은 바 있다. 2016년 6월부터 2년간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였다.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며 IPCC 제6차 종합평가보고서 주저자로 활동중이다.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Dr. Kim Yong-Gun is a chief research fellow a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He published widely on the economics of climate policies, including issues surrounding carbon market, mitigation modeling, GHG statistics. He was President of the Greenhouse Gas Inventory and Research Center (Ministry of Environment) and Consultant at OECD Environment Directorate. He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fifth and sixth IPCC assessment reports as a lead author.

Dr. Kim holds PhD in Environmental Economics from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and B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기후변화 대응 남북한 협력 방향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한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모두에 있어 공동 대응을 통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기후 공동체임. 기후변화 문제가 남북 협력에 있어 중요한 의제로 논의 될 필요가 있음. 특히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우회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라는 형태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가시화하는 데 기후변화라는 주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서 북한의 경제 발전 방향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 하에서 설계하는 문제는 북한은 물론 남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 특히 북한의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및 온실가스 라는 보다 구체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북한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는 남북한 모두의 과제일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보다 정보와 분석 역량이 많이 앞서 있는 남한의 연구계의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됨.

북한의 에너지 수급 현황과 전망에 대한 연구는 가장 시급한 연구 주제로 고려될 수 있음. 북한이 고도 성장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급속한 에너지 공급 증대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훼손이 유발될 수 있음.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확대의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일 것임. 신재생에너지의 가변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 수요 부하관리는 물론 유연성이 높은 발전기술의 비중 확보와 함께, 불가피하게 에너지 저장 기술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며,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 관점에서 남북한 전력망 연계의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경제연구원(2019)에 따르면 북한의 재생에너지를 평가한 결과 태양에너지의 경제적 잠재량은 1502 TWh/년으로 우리나라의 411 TWh/년의 약 4배이고, 풍력에너지 잠재량은 1130 TWh/년으로 우리나라 942 TWh/년보다 높음. 북한은 토지 비용도 매우 낮을 것이므로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생산비용은 남한보다 크게 낮을 것임. 이처럼 저렴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남북한 전체의 에너지 공급 잠재력은 훨씬 커질 것이며, 이를 고려한 남북한 통합 전력 수급 시스템 잠재력 연구를 통해 북한과의 협력에 따른 경제적 잠재 이익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협력의 방향과 우선 사업을 도출하는 노력은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태양광 발전의 경우 농지나 산지의 환경 보호 측면을 포함한 종합적 영향평가가 필요한데, 북한의 훼손된 산림에 대한 조림 활동과 태양광 패널 설치를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산림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할 수 있다면 이는 환경보전, 에너지 확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흡수원 확대를 통한 배출권 확보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시장메커니즘 도입은 현재 협상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진전이 매우 느린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권 혹은 크레딧의 거래가 활발해 질 것임. 우리나라는 국가 감축목표의 일부인 4.5%에 대하여 산림 경영 및 해외 배출권 확보를 통해 목표를 이행한다고 약속하였음. 이에 따른 해외 배출권 확보를 여하히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매우 부진한 상황임.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국가적 전략이 조속히 수립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 협상에 있어서도 상응하는 전략이 도출되어야 함. 이를 통해 국익을 최대화하면서 국제 사회에서의 기여도 극대화 하는 현명한 전략이 고민되어야 하는 상황임.

북한과의 신재생에너지 및 산림 분야 협력은 국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가장 유망한 사업 분야의 하나임. 북한의 황폐화된 산지에서 조림사업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태양광 패널 설치를 병행할 수 있다면 이는 조림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은 물론 태양광 발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모두 크레딧으로 인정받으므로써 대규모 배출권 판매이익을 남북한이 공유하게 되는 바람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 이렇게 생산되는 배출권은 배출권 국제 시장가격이

Session 4-3

남북 기후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생명공동체 추진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on of 'Inter-Korean Community of Life' through 'Inter-Korean climate cooperation'

높을 경우 제3국에 판매함으로써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국제 시장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국가 감축목표 중 해외 배출권 확보를 통해 이행하고자 하는 부문에 활용되거나, 혹은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의 해외 상쇄 배출권으로 활용될 수 있음.

파리협정하에서는 모든 국가가 NDC를 통해 국가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북한도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였음. 북한과의 전략적 기후 연대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매개로 하는 남북 협력의 확대를 통해 한반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한 필요가 있음.

Session 4-3

남북 기후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생명공동체 추진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on of 'Inter-Korean Community of Life' through 'Inter-Korean climate cooperation'

Cooperation between ROK and DPRK to Combat Climate Change

Yong-Gun KIM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IM Yong-Gun

Korea Environment Institute, Chief Research Fellow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share a single climate system that can increase synergy through joint responses to both adapting to climate change and reducing greenhouse gases. Climate change needs to be discussed as an important agenda for bilateral cooperation. In particular, the theme of climate change can play a major role in visualizing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rough humanitarian aid and cooperation by bypassing international sanctions on the North.

Designing the direc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under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long-term policy direc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ot only DPRK but also ROK. In particular, research on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future will be a task for both Koreas, focusing on the North's environment, climate change, energy and greenhouse gase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outh's research community, which is far ahead of North Korea's information and analysis capabilities, seems to be very urgent.

Research on the status and prospects of North Korea's energy supply and demand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priority research topics. In order for North Korea to enter the path of high growth, it will need to increase its energy supply rapidly, which could cause serious environmental damage in the process of securing it. Expanding renewable energy supply in the direc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will be an important policy agenda. Given the variability of renewable energy, the need for an expansion of energy storage technology is expected, along with managing energy demand load and securing the proportion of flexible power generation technology, and linking inter-Korean power grids in terms of overall system stability.

According to th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9), the economic potential of solar energy is 1,502 TWh/year, which is about four times higher than that of Korea's 411 TWh/year, and wind energy is 1,130 TWh/year, which is higher than that of Korea's 942 TWh/year. North Korea will also have very low land price, so solar and wind energy production costs will be extremely lower than South Korea. If such cheap and abundant renewable energy resources can be fully utilized, the mitigation potential of the two Koreas will be expanded significantly, and efforts to scientifically assess the economic potential benefits of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draw future cooperation directions and prior projects should be made quickly.

In case of solar power generation,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spects of farmland and mountainous areas is needed, and it is deemed necessary to maximize synergy by installing solar panels and afforestation activities for damaged forests in North Korea. If forests can be restored and renewable energy can be expanded, it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gain a wide variety of benefits, such as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securing energy,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ecuring tradable emission rights.

The progress of the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under the Paris Agreement is currently very slow due to sharp disagreement in negotiations. Nevertheless, under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transactions of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s or credits between countries will become active sooner or later. Korea promised to fulfill its goal by securing forest management and overseas emission rights for 4.5 percent of the national reduction goal. The discussion on how to secure the foreign emission

Session 4-3

남북 기후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생명공동체 추진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on of 'Inter-Korean Community of Life' through 'Inter-Korean climate cooperation'

rights is also very sluggish. A national strategy for securing overseas emissions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and a corresponding strategy should also be derived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to implement it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design a strategy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 as well as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operation in renewable energy and forestry with North Korea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business areas in achieving national reduction targets using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s. If it can support the afforestation project in North Korea's devastated mountains and install eco-friendly solar panels at the same time, it will be recognized as credit for both greenhouse gas absorption and emission avoidance. Emissions rights created in this way can be used to obtain financial gains by selling to third countries if the international market price is high, or it can be used as overseas offset credits in domestic emission trading system in the case of low international market prices,.

Under the Paris Agreement, all countries must set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through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Both South and North Korea set their GHG reduction goals, with South Korea established 2050 carbon neutrality vis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id- to long-term strategy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n the whole Korean Peninsula by expand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strategic climate alliance and GHG mitigation.

토론자 Discussant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HONG Sukho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홍석훈 박사는 2014 년부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북미관계, 북한외교정책 및 동아시아 평화체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는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조지아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국제정치학, 동아시아정치체제, 글로벌정치학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통일연구원 정책보고서 및 각종 저널을 통해 국제정치, 북한정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의 연구결과를 출판하고 있다.

Dr. Hong Sukhoon has been a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ince 2014. In terms of his research interests, he is keenly interested in the US-North Korea relations and North Korean foreign policy as well as the Asian "peace regime." He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Georgia (USA).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he taught cours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East Asian Political System, and Global Politics. He was in charge of an adjunct professor for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at Sungkyunkwan University. Hong's existing work in this area has been published in KNU's policy reports,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and in various book chapters. Recently, he authored "North Korea's Transition of It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Its Significance and the Politic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December of 2018.

토론자 Discussant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KIM IIGi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Senior Research Fellow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한국국가정보학회 총무이사, 한국동북아학회 총무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북한정치 전공으로 박사학위(2006)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정치와 남북관계이다. 주요 저서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공저), 김정은 시대 신안보 정책과 남북한 협력방향(공저), 『국가정보학』(공저), 『통일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북한통일 이슈 100』(공저)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김정은 시대 북한정치의 특징과 전망」, 「평화와 소통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중동시민혁명이 북한민주화에 주는 시사점」, 「해외 주요 국가와의 정보협력 전망과 과제」,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와 대내정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Kim IIGi is a Senior Research Fellow of th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of Korea. Dr. Kim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Konkuk University of Seoul, Korea (2006). He is currently a member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KANKS), the Korean Associa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Studies (KANIS)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KANAS). His main research field focuses on North Korean politics. Dr. Kim has published numerous articles and book chapters on North Korean politics.

토론자 Discussant



김형수

단국대학교 교수

KIM Hyeongsu

Dankook University, Professor

김형수는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과 정책학을 공부했다. 문화행정과 문화정책, 동북아문화공동체, 지방정부의 신공공외교 및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국가전략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KIM Hyeong-soo is a professor of Public Administration at Dankook University. He studied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cience at Dankook University. His primary fields of interest are Cultural Policies and culture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Northeast Asia Culture Community, New Public Diplomacy of Local Government, Policy Community in Northeast Asia, and Korea's National Strategy in Northeast Asia.

Session 4-4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구조 변화와 주민 삶의 변화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structure and people's lives in the Kim Jong-un era

주관기관
Organized by

KDI국제정책대학원,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좌장
Moderator

조동준 서울대학교 교수
JO Dong-J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발표
Presenter

- 손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SOHN Wook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Professor
- 윌리엄 브라운 동북아경제지식자문 책임
- William BROWN Northeast Asia Economics and Intelligence Advisory(NAEIA), Principal
- 김연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 KIM Yonho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ssociate Director

토론
Discussant

-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부교수
- LIM Eul ch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다니엘 베르츠 전미북한위원회 선임고문
- Daniel WERTZ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Senior Advisor
-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KIM Kyooch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ssociate Fellow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4-4)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구조 변화와 주민 삶의 변화

2011년 말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획기적인 경제적 변화를 목도했다. 김정은은 비공식 시장활동의 활성화를 일관되게 묵인하면서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정은은 일련의 경제 '개혁' 조치들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사금융과 공식금융을 포함한 경제부문에 대한 통제력 회복을 추구했다. 2020년 초 북한은 핵과 경제개발을 동시 추구한다는 병진노선을 재천명했지만, 강력한 경제제재와 글로벌 팬데믹의 엄청난 충격에 대응해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본 세션은 이러한 북한 내 경제적 변화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분야에서 다층적으로 고찰한다.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structure and people's lives in the Kim Jong-un era

Since Kim Jung Un took power in late 2011, North Korea has witness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people's daily economic lives. Unlike his father, Kim consistently tolerated and even showed his willingness to utilize the booming informal market activities. He also initiated a series of economic 'reform' measures not only to spu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but also to regain control over the economy, including the public and private finance. Although North Korea declared in early 2020 to return to its previous policy of pursuing nuclear and economic development simultaneously, it continues to explore ways to revitalize its economy in the face of robust international sanctions and the devastating effects of the global pandemic. This session will seek address these changes in a multifaceted approach, examining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changes in the Kim Jung Un era, the changing role of currency and finance, and the impact of North Korea's expanding mobile telecommunications sector on the market.

좌장 Moderator



조동준

서울대학교 교수

JO Dong-J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조동준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며, 국제기구 안에서 정치활동, 국제분쟁, 핵무기 확산의 영향 등을 연구한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정치학과에서 국제기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사)한반도평화연구원에서 원장, (사)한국국제정치학회와 (사)평화나눔회에서 이사를 맡고 있으며, 국방부 소속 '지뢰피해심의회'의 위원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2016-2018),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2005-2010)로 근무했다. 주요 논문으로 "Bargain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Inter-state Dispute", '인류공동의 유산의' 국제제도화 과정: 심해저 관리를 중심으로, "코로나-19와 지구화의 변화", "신호이론으로 분석한 2013년 한반도 위기" 등이 있다.

Jo Dong-Joon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li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state Conflict, and Nuclear Proliferation. He published articles to academic peer-reviewed journals such a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He is currently a board member for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Deliberation and Conciliation Committee for the Landmine Victims, and the Peace Sharing Foundation. Also, he serves as the director for the Korea Peace Institute (a Christian think-tank).

He received a Ph.D. from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and a M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as a faculty member for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University of Seoul from 2005 to 2010.

발표자 Presenter



손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SOHN Wook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Professor

손욱 교수는 현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겸 연구협력처장으로 있으며, 금융기관, 금융시장, 통화정책,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다. SSCI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3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금융경제 관련 학술서적을 기획 편집하는 한편, 한국 정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30여편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헝가리, 캄보디아, 베트남 정부를 위한 정책컨설팅도 수행하였다. UBC 경영대학 초빙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KAIST 경영대학원,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통화정책과 금융규제, 채권외환시장 등의 강의를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하면서 북한경제 연구에도 착수하였다. 서울대 학사 및 미국 Columbia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Mr. Sohn Wook is a professor of banking and finance and Associate Dean of the Office of Development Researc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the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Sohn specializes in financial intermediaries, financial markets, monetary policy,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He published many articles in academic journals and edited several books on the economic and financial issues in Korea. He also participated in the collaborative research and consultation projects of the various ministries of Korean, Hungarian, Cambodian, and Vietnamese governments. He was a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s Sauder School of Business and taught at Yonsei Business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KAIST Business School. Most recently, he was Executive Director of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the Bank of Korea. He also worked for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during graduate school. After receiving his B.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as awarded his M.A. and Ph.D. from Columbia University.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 「경제연구」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접근법

손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본 논문은 북한에서 발간되는 경제관련 대표적인 문헌인 「경제연구」를 기본 텍스트로 활용하여 북한의 경제전략과 정책 변화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2018년까지 발간된 논문의 제목과 주요어를 분석단위로 삼고,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법을 통치자별, 시기별,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전략과 경제정책 변화를 추적했다. 분석결과 각 통치자 시기별로 논문의 제목이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분류될 수 있었다. 또한 시기별로 논문 주제의 분포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며 주제의 범위나 방향도 통치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북한경제가 통치자 1인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통치자의 정책적 관심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경제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주제를 추출함으로써 통치자별 정책적 관심사 변화 추이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김일성 시대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수립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선대와 비교하여 시장화와 국제경제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고 있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 들어서며 독자적인 경제정책 노선을 추구하며 개혁과 개방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경제 당국은 핵경제병진노선의 종료와 함께 2016년 선언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지식경제, 새 세기 산업혁명, 기업관리 효율화, 국제무역시장 진출 등 경제제재 국면에서도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고질적인 자료부족으로 연구에 장애를 겪는 북한학 연구분야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통치자 또는 정책 당국의 관심사가 반영된 북한 정책관련 문헌의 경우 텍스트 마이닝과 머신러닝 기법을 잘 활용하면 북한학 연구에도 좀 더 풍부한 분석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conomic Policy Changes in North Korea: A Text Mining Approach to Economic Research

SOHN Wook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Professor

This paper uses the periodical *Economic Research* (one of the representative pieces of primary literature published in North Korea) as the basic text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Based on the titles and keywords of the articles published from 1980 to 2018, a text mining and machine learning approach was employed to track changes in economic policy after a change of the national leader and in the economic environment.

We find that the title of the paper can be classified into the period of a leader with relatively high accuracy.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of the thesis topic, along with the scope or direction, varies greatly from one period to another. Since the North Korean economy is inevitably influenced by a single leader, known as the Supreme Leader, the papers published in *Economic Research* can be regarded as reflecting the policy interests of the leader at the time. By extracting the keyword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tles, we gained an understanding of the trends in each leader's policy interests.

Kim Jong-un regime envisions a new economic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face of economic sanctions, including the knowledge economy,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new century, streamlining corporate management, and entering the international trade market. Specifically, the regime fosters the entry of international financial and commodity markets, and the exchange of advanced technologies and knowledge for competitive product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Nevertheless, in the absence of authority, acceptance, and ability, the gap between the state's political rhetoric and the actual economic reality is expected to remain wide.

North Korea-related research and national statistics are severely limited in terms of accessibility and credibility, thus, being the biggest obstacle in the field. The main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despite the limited data, results can be found with advanced text mining techniques and the comparison of different governance systems is analyzed objectively.

발표자 Presenter



윌리엄 브라운

동북아경제지식자문 책임

William BROWN

Northeast Asia Economics and Intelligence Advisory(NAEIA), Principal

윌리엄 B. 브라운은 컨설팅회사 동북아경제지식자문(NAEIA)의 책임이고 워싱턴 D.C. 소재 한국경제연구소 이사로 있다. 또한 메릴랜드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서 현대 중국 강좌를 가르치며 미국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브라운은 중앙정보국, 상무부, 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 경제학자 및 동아시아 전문가로서 연방정부 내 여러 보직을 지냈다. NIC에서는 동아시아 선임연구원 및 경제 국가부정보관으로 활동했다. 가장 최근의 보직은 국가정보장실 동아시아 국가정보관 선임 고문이었다. 브라운의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과 중국 경제이며 Voice of America를 비롯하여 여러 미국 및 한국 언론에 인용된다. 집필한 글로는 국가정보위원회 비분류 연구보고서 “북한의 돈과 시장”, 외교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통일의 경제학” 등이 있다.

William B. Brown is principal of his consulting company, Northeast Asia Economics and Intelligence Advisory, LLC (NAEIA.com) and is one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in Washington D.C. He also teaches a course on Contemporary China for University of Maryland Global Campus and does consulting work for the U.S. Government. Mr. Brown served a career in the federal government, working as an economist and East Asia specialist at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ommerce Department, and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 At the NIC, he served as Senior Research Fellow for East Asia and as Deputy National Intelligence Officer for Economics. His most recent service was as Senior Advisor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Manager for East Asia in 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Mr. Brown's research is focused on the North Korean and Chinese economies, and he is widely quoted in national and Korean media, especially with Voice of America. His publications include “Money and Markets in North Korea”, an unclassified study for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and the “Economics of Korean Unification” published by the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김정은 시대에서 변화하는 화폐와 금융의 역할

윌리엄 브라운

동북아경제지식자문 책임

김정은이 북한 정권을 이끄는 준비가 한창이었던 2009년 후반, 북한은 대참사에 가까운 수준의 금융 위기를 겪었고, 화폐의 가치를 현격히 떨어트리는 당국의 화폐 개혁에 반발해 사람들은 가두 시위에 나섰다. 이로 인해 조선노동당은 공식 사과했고, 계획재정부장은 공개 처형됐다. 이는 그 당시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됐고, 이후 그의 정권에 지속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배급 티켓을 지급하던 국가에서 갑자기 화폐의 통제가 중요해진 것이다. 현재까지 김정은의 정권은 이런 이데올로기적 변화가 반영돼 있으며, 약 1년 전까지 그의 가장 큰 성공은 원화 대비 US 달러와 중국 위안화 가치의 안정성 유지 및 안정적인 쌀과 옥수수의 원화 가치 유지였다.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누렸고, 특히 시장의 발전 및 시장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 안정적인 화폐는 민간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의 투자를 허용하고, 민간 저축을 장려한다. 이는 일정 부분 달러화된 경제 속에서 자유롭게 달러와 위안화를 사용하게끔 허용한 덕분에, 국정 운영에 큰 압박을 준, 극도로 제한적인 통화 및 금융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화폐 안정성은 심각한 UN 제재로 인해 국가의 수출이 막히고 수입 또한 대부분 제한적이었던 2018년과 2019년에 특히 두드러졌다. 2016년 균형을 이루던 경상 수지 적자가 (재화 교역 적자가 서비스 및 이전 흑자로 상쇄됨) 10억 달러 이상의 연간 적자로 전환됐다. 보통의 경우 원화 가치가 폭락하겠지만, 탄탄한 정책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붙잡았다.

많은 분석가는 이를 수행하는 평양의 역량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어렵지 않다. 그저 배급 뿐만 아니라 화폐 발행과 유통의 독점 지위를 상실하는 정부에게 지대한 영향이 있을 뿐이다. 북한 정권이 이런 결과를 이해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오랜 화폐 개발 역사에서 흔히 발생했던 것으로 팔시 받던 조선의 이씨 정권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이로 인해 파멸에 이르렀다. 하지만 김정은이 정권을 물려받으며 직면한 선택지는 냉혹했다. 화폐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허용하거나 대거금의 시절로 돌아가거나 둘 뿐이었다.

김정은 정권이 화폐 안정성을 위해 사용한 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조치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 매우 엄격한 화폐 정책. 중앙 은행이 의미 있는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신권 발행을 중단하고 국영 기업 신용의 기한 연장을 크게 제한했을 것이다. 통화 세액 캠페인이 그 증거다.
- 중앙 은행이 화폐를 발행해 재정 적자를 서포트해야 할 필요성을 제거하기 위한 엄격한 재정 정책. 북한은 공식적인 조세 세도가 없으나, 가능한 경우 국가 수수료를 올리고 지출을 줄였을 것이다. 이런 시도는 수 차례 목격된 바 있다.
- 유통되는 원화량을 줄여 원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 원화 채권 판매 시도. 시도했으나 장기적인 원화 가치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낮아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원화 또는 달러화를 받고 국영 자산 매각. 국가가 거의 나라 전체를 소유하고 있어 사회주의 이념을 없앤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단행할 수 있다. 수익금으로 임금 지출 및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야의 국가 지출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특히 아파트 같은 부분에서 일정부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토지나 집단 농장과 같이 큰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구 국영 기업의 행보를 보면 민영화 직전까지 온 것으로 보이며 전기나 쌀 배급 수수료 또한 시장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모든 조치의 목적은 줄어드는 외화 공급량에 맞춰 원화 공급량을 줄여 시장 교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원화 가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대중의 신뢰가 주요하며, 수 년이 지나며 신뢰를 얻은 듯하다.

Session 4-4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구조 변화와 주민 삶의 변화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structure and people's lives in the Kim Jong-un era

화폐를 달러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도했던 몇몇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효과를 보았다. 마치 재화가 아닌 다른 상품(외화)을 사는 것과 같다.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민간 저축 수단이 오랜 기간 없었기에 아주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수 세대 만에 처음으로 일반 대중이 주로 \$100 지폐인 달러화를 구매해 저축할 수 있게 됐고, 이는 경제적 및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발전이었다. 국내 저축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원화 가치를 지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지만 엄격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파급 효과는 그만큼 컸을 것이며, 이 또한 김정은 시대 경제에서 엿볼 수 있다. 주로 국영 투자 및 국가 임금에 영향이 컸을 것이라 예상된다. 소원도 프로젝트를 제외한 다른 투자는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전력, 수도, 민간 차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과 같은 핵심 인프라가 전부 악화됐다. 여기에 덧붙여 국가 임금 수준은 김정일과 김일성 정권의 배급 경제 시절과 비슷하게 쥐꼬리만 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배급 지출이 줄어들자, 노동자들은 국영 기업이나 에이전시를 떠나 성장하는 민간 분야에 취직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작년부터 실패로 돌아간 듯하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삼았지만, 결국 늘어나는 수입과 줄어드는 외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더욱 엄격하게 국경 통제를 함으로써 이전에 줄어든 수출량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수입이 중단됐다. 경상 수지가 다시 균형을 잡거나 약간의 흑자로 돌아섬과 동시에 아마도 달러와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졌을 텐데, 갑자기 원화 가치가 올라 모두를 놀라게 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저축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후에 추가 저축을 할 의지 또는 역량이 줄어들어 달러화 수요가 줄어든다.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된 시장 활동은 경제 활동을 더욱 제한했고, 개인은 달러 저축을 원화로 팔아 식량을 조달해야 했다. 이로 인해 원화 가치와 쌀 가격이 동시에 올라 아주 혼란스럽고 투기적인 상황이 형성됐다. 이상하게도 북한 시장에서 달러와 위안화 간의 재정환율은 수 년간 국제 환율과 비슷한 수준이 유지돼 시장이 꽤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달러-원 환율 대비 위안화-원 환율이 크게 떨어져 저렴한 위안화를 팔아 비싼 달러화를 사 거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이는 외환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것 외에 다른 뾰족한 설명이 없다.

일반적으로 가격과 외환 시세의 유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인플레이션을 내비치지는 않지만, 일부 사람들이 돈을 내기에 잘 걸어 부자가 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파산한 뒤 돈을 빌리고, 결국 도박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체적으로 아주 비 사회주의적인 환경이고, 이는 충실한 노동당원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아닐 리 없다. 김정은이 그 중 한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원화를 살리기 위해 국가사회주의를 버린, 그리 뛰어나지 않은 지도자로 남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다.

중국 속담인 “자본주의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가 의미하듯, 김정은이 호랑이 등에서 떨어져 잡아 먹히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국가를 팔아가야 할 것이다.

¹ Bill Brown은 전 미국 정부 관계자로 조지타운 대학과 UMGC에 출강 중이며, 워싱턴 DC 소재의 Board of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소속이다. Brown은 Voice of America 및 Radio Free Asia 보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ortheast Asia Economics and Intelligence Advisory, LLC (NAEIA.com) 컨설팅 업체의 대표이다.

Session 4-4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구조 변화와 주민 삶의 변화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structure and people's lives in the Kim Jong-un era

Changing Role of Currency and Finance in the Kim Jong Un Era

William BROWN

Northeast Asia Economics and Intelligence Advisory(NAEIA), Principal

As Kim Jong Un was preparing to ascend to the leadership of North Korea, in late 2009, the country underwent a near disastrous financial crisis that put people in the streets demonstrating against a maneuver by authorities to take their money, replacing it at a far lower value. I expect this experience, for which the Party was forced to apologize and the finance chief publically executed, made an indelible impression on the then young leader and has influenced his regime ever since. Control of money in a country where state delivered ration tickets had long ruled, suddenly became very important.

Kim's tenure to date reflects this ideological shift and until a year ago, his biggest claim to success may have been the stability of won in exchange for US dollars and Chinese yuan and stability of won prices for rice and corn. This stability had major benefits for the population and especially for the development of markets and market activity. Stable money allows investment in privately produced goods and services and encourages private savings. It was achieved in part by allowing the free use of dollars and yuan in what has become a partially dollarized economy but also by severely restrictive monetary and fiscal policy that has put great pressure on state operations.

This monetary stability was especially notable in 2018 and 2019 when severe UN sanctions crippled the country's exports and much of its imports. The current account deficit rose from probably about balance in 2016 (a goods trade deficit offset by a services and transfers surplus) to a huge billion-dollar plus annual deficit. Normally this would have caused the value of won to plummet, but strong policies were employed to keep it steady.

Many analysts have questioned Pyongyang's ability to do this but at least in theory it is not hard, it just has big consequences for the government which loses its monopoly not just on rations but on money creation and distribution as well. It is not clear whether the regime understood these impacts. Most likely it did; the situation is not uncommon in Korea's long history of monetary development and a similar situation had occurred in the despised late Yi Dynasty, helping lead to its downfall. But the choices facing the regime as Kim took over were stark. Either allow money to circulate or shift back to the horrid days of the Great Famine.

I don't have direct evidence of the tools employed by Kim's regime to stabilize its' money, but they likely included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 Very tight monetary policy. Since the central bank does not employ interest rates in a meaningful way, this would have meant simply stopping the printing of new money and greatly limiting the extension of credit to state enterprises. A small bit of evidence is the currency washing campaigns.
- Tight fiscal policy to obviate the need for the central bank to print money to support a fiscal deficit. The state does not have a formal tax system but this could include raising state fees wherever possible and cut spending. We have seen numerous efforts to do this.
- Attempt to sell won denominated bonds to suck in won from circulation and raise its value. This was attempted but generally failed as the public still has little faith in the longer-term value of won.
- Sell state assets for won or dollars, again to reduce money in circulation. The state owns virtually the whole country so it could do this with relative ease should it dispense with its socialist ideals. And it could use the proceeds to bolster

Session 4-4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구조 변화와 주민 삶의 변화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structure and people's lives in the Kim Jong-un era

state spending for salaries and other areas that need support. To some extent this has been happening, especially with apartments. It has not, however, spread to land and to the collective farms where huge benefits could be gained. Some state enterprise activities, however, do seem to be on the verge of privatization and fees for items such as electricity, and even rice rations, are moving close to market prices.

All of this would be aimed at reducing the supply of won relative to a declining supply of foreign currency thus keeping its market exchange rate stable. Much would depend on the public's trust in the value of won holding up which after several years may have been earned.

Dollarization in the few other countries that have tried it generally has been effective at combatting inflation. It is as if there is another good (foreign money) to buy instead of commodities. In North Korea's particular case it would have been very effective given the long absence of any private savings vehicles in the socialist economy system.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in generations could buy dollars, typically \$100 bills, and hold them as savings, a highly positive development for both economic and humanitarian reasons. This rise in domestic savings would have diminished inflation and thus supported the won.

No Free Lunch

Repercussions of tight monetary and fiscal policy would have been equally tough, however, and these can be observed in the Kim Jong Un era economy. The main impacts would be on state sector investment and state wages. Investment, except for showcase projects appears to have been nil and vital infrastructure, from electric power to water utilities to transportation of all types, except private vehicles, has deteriorated as a result. State wages, moreover, appear to have remained at the paltry level of his father and grandfather's ration economy. As state spending on rations has declined, workers are encouraged to leave their state enterprises or agencies to participate in the growing private sector.

This strategy seems to have come apart, however, just in the last year, as even tighter border controls, blamed on the pandemic but likely supported by worries of too much importing and loss of foreign exchange, have stopped most imports, matching the previous decline in exports. With the current account back in balance, or even in a slight surplus, demand for dollars and yuan probably declined and suddenly the won rose in value, surprising everyone. Moreover, once people have some level of savings their ability or desire to keep adding to them declines, taking away new demand for dollars. The stoppage in market activity that has accompanied the pandemic in the meantime has done even more to restrict economic activity, so individuals may need to be selling their dollar savings to buy won to buy food, pushing up the value of won and the price of rice at the same time, a very confusing and speculative environment. Oddly, the cross rate of exchange between dollar and yuan in North Korean markets had closely matched the international rate for years, suggesting a reasonably well working market. But in recent months, yuan has fallen much more against the won than has the dollar, indicating huge profits can be made by selling cheap yuan and buying expensive dollars. No good explanation is available except that the foreign exchange markets may have frozen up.

Generally, prices and exchange rates have become extremely volatile. While not indicating inflation, they do suggest some people are getting rich making the right bets while others are becoming bankrupt, borrowing, and then losing their gamble. All in all, a very non-socialistic environment, and no doubt a cause for concern by Party stalwarts. Whether Kim is among them or not, I suspect he is in danger of being cast as the not-so-great leader who sold state socialism to save the won.

As the Chinese "Riding the capitalist tiger" metaphor concludes, Kim had better keep selling the state if he is not to fall off and be eaten.

¹ Bill Brown is retired from a career in the US government and teaches periodically at Georgetown University and UMGC, and he serves on the Board of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in Washington, DC. He regularly contributes to Voice of America and Radio Free Asia reports and is principal of his consulting firm, Northeast Asia Economics and Intelligence Advisory, LLC. (NAEIA.com)

발표자 Presenter



김연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KIM Yonho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ssociate Director

김연호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연구교수다. 북한 무선통신과 미국 대북정책 전문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의 휴대폰 사용, 모바일 이체, 개인교통 서비스, 시장화, 정보 통제 및 유통, 변화하는 언론 환경 등이 있다. 또한 미국 국내정치 및 한반도, 한미관계, 대북 핵 협상 등에도 관심이 있다.

김연호 교수는 지난 20년 간 워싱턴 싱크탱크의 미국 한반도정책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언론매체와 폭넓게 교류해 왔다. GWIKS에 입소하기 전에는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 대학원 한미연구소의 USKI Washington Review 에디터이자 선임연구원으로 있었다. 2008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Voice of America 한국 서비스의 선임기자로서 VOA 동아시아태평양부장 “최우수표창”을 받았다. 2003년에서 2008년에는 Radio Free Asia 한국서비스의 방송인으로 활동했다. 2001년에서 2003년에는 애틀랜틱 카운슬 Program on Korea in Transition의 이사보로서 한국 국내정책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했으며, 대외정책 관련 미국 정부 및 언론 대상 프로그램 홍보를 총괄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박사와 석사를 받았고 존스 홉킨스 고등국제학대학에서 외교학 및 국제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Kim Yonho is an associate research professor of practice and the Associate Director of GW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He specializes in North Korea's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His research focuses on North Korea's cell phone usage, mobile money transfers, private transportation services, marketization, information control and circulation, and the changing media environment. He is also interested in US domestic politics and the Korean peninsula, US-ROK relations, and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Kim has extensively interacted with the Washington policy circle on the Korean peninsula at Washington think tanks and media outlets in the past 20 years. Prior to joining GWIKS, he was Senior Researcher and the editor of the USKI Washington Review of the US-Korea Institut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From 2008 to 2015, he was Senior Reporter for Voice of America's Korean Service where he received a "Superior Accomplishment Award," from the East Asia Pacific Division Director of the VOA. From 2003 to 2008, he was a broadcaster for Radio Free Asia's Korean Service. From 2001 to 2003, he was the Assistant Director of the Atlantic Council's Program on Korea in Transition where he conducted in-depth research on South Korean domestic politics and oversaw program outreach to US government and media interested in foreign policy.

He holds a B.A. and 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n 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Economics from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이동통신이 북한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재택’ 상인과 휴대전화 사용 시간 이체하기

김연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김정은 정권 중 북한 주민의 휴대폰의 사용량이 현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시장 거래 시 북한 주민들의 휴대폰 커뮤니케이션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동통신과 민간 대중교통 서비스가 결합돼 시장 물류에 혁명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고, 북한식 택배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거래인과 배송기사 뿐만 아니라 검문소가 전화 한통으로 연결되는 공급망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으로 ‘재택’ 상인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시대가 도래했다.

또한, 북한 주민은 소액 결제 및 이체 시 통화 분수 또는 모바일 사용 시간을 현금 대신 사용하고 있다. 휴대폰 사용 시간 이체는 신뢰성, 편리성, 및 편한 서비스로 인해 그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 소수의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휴대폰 사용 시간을 재충전해야 하는 비싼 비용과 불편함 대신 휴대폰 사용자 간 편리한 이체와 전문적인 휴대폰 사용 시간 거래자의 등장으로 심지어 휴대폰 사용 시간 유통 시장까지 형성됐다. 정권의 시야 밖에서 사람 및 물자의 이동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현실과 이동통신을 통한 빠른 시장 정보 확산 고려 시, 이동통신은 북한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로의 변화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되며 소비자를 위한 전국 가격 안정화를 포함하는 ‘유통 혁명’의 효익이 크게 감소했다. 식품을 포함하는 상품의 도(道)간 가격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민간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자는 줄어드는 승객 수를 체감하며,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들여오는 것이 어려워져 심각한 정비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은 2020년 여름에 전화 현금 이체를 금지시키고 현금 카드 멤버십 요건을 완화해 사람들의 전자 결제 시스템 사용을 장려했다. 외화 사용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정부가 화폐의 흐름을 다시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전자 결제 시스템은 대규모 상거래 및 경제 활동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바일 화폐의 목적과 더욱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평양은 가정의 외화를 흡수하는 등과 같은 국가의 재정적 니즈만을 위해 재원을 동원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전자 결제 시스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공식 금융 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다.

Session 4-4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구조 변화와 주민 삶의 변화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structure and people's lives in the Kim Jong-un era

How Mobile Telecommunications Changed North Korea's Markets: 'Stay-at-Home' Merchants and Airtime Transfer

KIM Yonho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ssociate Director

With the significant rise in cell phone use during the Kim Jong Un era, North Koreans are increasingly relying on cell phone communications for their market transactions. The combination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private transportation services has led to revolutionary changes in the logistics in the markets, which made possible North Korean-style parcel delivery services. Coupled with the ability to operate a chain supply through a phone call, connecting traders, drivers, and even checkpoints have opened up a new business era of 'stay-at-home' merchants.

In addition, North Koreans are using call minutes or mobile airtime as a proxy for money when transferring or making purchases with small amounts. Airtime transfers are growing in popularity due to their reliability, convenience, and ease. The high cost and inconvenience of recharging airtime at the limited number of official service centers coupled with the ease of transferring airtime between cell phone users and professional airtime traders have even created a secondary market for airtime. Considering North Korea's reality of great increase in mobility of people and products off the regime's radar, and rapid expansion of market information dissemination through mobile telecommunications, mobile telecommunications would be a core element in determining the changing direction of North Korean marketization.

The tight control over movements of people and vehicl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ramatically undermined the benefits of the 'logistics revolution', including price stabilization throughout the country for consumers. Price differences of goods, including food, are widening among the provinces. Private transportation service operators have seen decreasing number of customers and had difficulties in acquiring vehicle parts from China, which created serious maintenance problems. In addition, North Korea banned the transfer of phone money in the summer of 2020 while loosening the cash card membership requirements to encourage people to utilize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 Coupled with a ban on the use of foreign currency, these measures seem to be aimed to regain the government's direct control of the money flow.

In the long term, a North Korean electronic payment system needs to be better aligned with the purpose of mobile money, which is to improve large-scale commerce and economic activity. So far, Pyongyang has been single-minded about mobilizing financial resources for the state's fiscal needs, like absorbing foreign currency from households. The greatest obstacle to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 is the people's lack of trust in the official financial institutions.

토론자 Discussant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부교수

LIM Eul ch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임을출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장이자 부교수이다. 북한 경제, 남북관계 및 통일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 및 정책자문인으로 29년 이상 활동해왔다. 2019년에는 광범위한 연구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했다. 현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있다. 정책 자문과 더불어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 많은 글을 집필했다.

임을출 교수는 한반도 평화 및 번영을 위한 기여와 공적을 인정받아 2020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개성공단, 남북관계 등 남북경제협력 및 북한 정치경제학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펼쳐왔으며, 연구, 교육, 저널리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여러 단행본 및 학술지 논문도 집필했다.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등에서 가르쳤으며 이후 경남대학교 교수로 임용됐다.

극동문제연구소 입소 전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북한부서 전문가를 지냈다. 또한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연구하기도 했다. 영남대학교에서 통상학으로 학사, 고려대학교에서 지역학으로 석사, 그리고 경남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LIM Eul chul is an Associate Professor and the Director of the ICNK Center at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He has more than 29 years of experience dealing with North Korean economy, inter-Korean and unification issues as a scholar, a policy adviser. In 2019, with his extensive research background and experiences, he advised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inter-Korean summit between President Moo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e now serves as a member of the Policy Advisory Committee for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f the Blue House, ROK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other ministries. He has also written extensively on North Korean issues, in conjunction with policy consultation projects.

Due to his contribution and achievements for peace and prosperity promotion in Korean Peninsula, he received the Order of Civil Merit, Magnolia Medal in 2020.

Lim has been active in studying North Korea's political econom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the joint-Korean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ter-Korean relations and his work covers all the fields of research, education, and journalism, publishing many books and articles in academic journals. He taught at University of Korea, University of Chung-Ang, University of Hanyang,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before taking Professorship at Kyungnam University.

Prior to joining IFES, Prof. LIM worked as a specialist in the Department of North Korea in the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He also has studied at the Georgetown University of Washington D.C. as a visiting researcher. He received his B.A. in Trade from Yeungnam University, M.A. in Area Studies from Korea University and finally a Ph.D in Politics and Diplomacy at Kyungnam University.

토론자 Discussant



다니엘 베르츠

전미북한위원회 선임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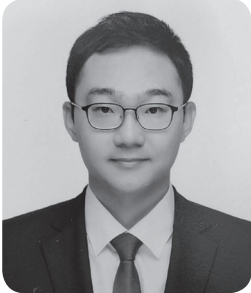
Daniel WERTZ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Senior Advisor

다니엘 베르츠는 2011년부터 전미북한위원회(NCNK)에서 활동했으며 현재선임고문으로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관련 현안에 대한 NCNK의 연구 및 출판물을 총괄했다. 또한 북한의 대외적 경제 및 외교관계를 연구하는 동서문화센터와 NCNK의 합동사업인 North Korea in the World 웹사이트의 책임연구원 겸 편집자로 활동 중이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북한경제포럼의 운영위원장이기도 하다. NCNK에 합류하기 전에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고등국제학대학 한미연구소에 있었다. 베르츠는 컬럼비아 대학교 및 런던 정경대 공동프로그램에서 국제 및 세계사학 석사를 받았으며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역사학 학사를 받았다.

Daniel Wertz is Senior Advisor at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NCNK), where he has worked since 2011. Wertz manages research and publications at NCNK, covering a broad range of issues relevant to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He is the lead researcher and editor of the North Korea in the World website, a joint project of NCNK and the East-West Center that explores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and diplomatic relations. He also serves as Chair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George Washington University's North Korea Economic Forum. Prior to starting at NCNK, Wertz worked at the U.S.-Korea Institute at the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Wertz received master's degrees in International and World History in a joint program from Columbia University and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a bachelor's degree in History from Wesleyan University.

토론자 Discussant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KIM Kyooch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ssociate Fellow

김규철은 2016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북방경제실의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주제는 북한의 거시 경제, 북한의 무역 및 북한 주민들의 소득과 후생이며, 북한의 경제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수행한 연구들은 “새로운 데이터로 추정된 북한의 소득과 후생의 장기 추세: 1인당 GDP 추정을 중심으로 (2020)”, “북한은 경제적 정상국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2019)”, “북한의 무역, 양적 성장만으로 충분인가? (2018)”, “북한의 석유교역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18)”, “북한 경제의 구조적 단절에 관한 연구: 분야별 데이터 추세 분석을 중심으로 (2017)”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Kim Kyoochul is an Associate Fellow a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He joined KDI in 2016. His research interests are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major research topics include North Korea's macro-economy, North Korea's trade and the welfare and income of North Korean people. His recent research publications are “Long-term trends in income and welfare of North Korea estimated by new data (2020)”, “How far is North Korea from an economic normal state? (2019)”, “Measure the quality of North Korea's trade (2018)”, “Analysis of North Korea's oil trade and policy implications (2018)”. He obtained his BA and MA degree in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h.D. degree in Economics a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Session 5-1

인도개발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HDP Nexus 이행과 과제 Implementation and task of HDP Nexus for Humanitarian aid-Development and Peace on Korean Peninsula

주관기관
Organized by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South-Nor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좌장
Moderator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KANG Young-sik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Chairperson

발표
Presenter

-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 KIM Taek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제롬 소바주 국제관계 컨설턴트
- Jerome SAUVAGE International Relations Consultant

토론
Discussant

- 이예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업국장
- YI Yehjung Korean Sharing Movement, Director of Programs
- 카타리나 젤웨거 KorAid Ltd. CISAC 대표
- Katharina ZELLWEGER KorAid Ltd. CISAC, Director
- 주시 오잘라 Finn Church Aid 북한 프로그램 수석 고문
- Jussi OJALA Finn Church Aid, Senior Advocacy Advisor in DPRK Programming
- 이지선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 YI Jisun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yung Hee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5-1)

인도개발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HDP Nexus 이행과 과제

기존의 국제개발협력은 듀얼 넥서스(Dual Nexus)접근을 통해 인도적지원과 개발, 개발과 평화, 평화와 인도적지원으로 분절되어 왔다. 2016년 HDP Nexus(인도적지원-개발-평화, Humanitarian aid-Development-Peace)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 이후, OECD DAC(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2019년 상호 보완적인 인도주의적 개발 구현을 위해 해당 권고안을 채택하였고, 이에 트리플 넥서스(Triple Nexus)이 시사하고 있는 중요성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에 반해 대북 인도개발협력 분야는 SDGs 달성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점 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HDP Nexus를 위한 세 가지 요소들이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분절되어 있다. 향후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HDP Nexus의 달성은 가능한 것인지, 달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해외 연사를 초청하여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Implementation and task of HDP Nexus for Humanitarian aid-Development and Peace on Korean Peninsula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gime has been divided into humanitarian aid-development, development-peace, peace-humanitarian aid through the Dual Nexus approach until now. Since an earnest, detailed discussion of HDP Nexus, Humanitarian aid-Development-Peace, began in 2016, the OECD DAC adopted the recommendation in 2019 to implement complementary humanitarian cooperation. Since then, it has been studied and discussed in the importance and applicability of Triple Nexus.

On the other hand, humanitarian development(H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has limitations of not achieving SDGs, while three factors of HDP Nexus are divided by various actors. Therefore, Experts and foreign speakers will be invited for in-depth discussions to focus on whether HDP Nexus can be achieved to H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what tasks are needed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좌장 Moderator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KANG Young-s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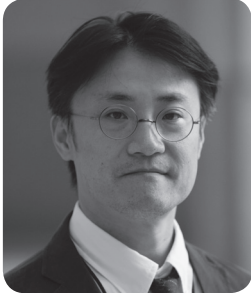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Chairperson

강영식 회장은 2019년 9월 24일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때부터 함께하여 2008년부터 11년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년 7월 이임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13년까지 56개 대북지원 단체들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운영위원장을, 2016년부터 17년까지는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150여회 북한(개성, 금강산 제외)을 방문한 그는 2017년 11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였다.

Mr. KANG Young-sik, the incumbent Chairperson of the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unde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as appointed on September 24, 2019.

Prior to the appointment, Chairperson Kang served as Secretary-General for 11 years since 2008 in Korea Sharing Movement. His involvement with the movement, KSM, goes back to its founding in 1996. Kang also has served as Chairperson of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 coalition of 56 North Korean support organizations from 2016 to 2017. His visits to North Korea, not considering the numerous times he visited Kaesong and Geumgang mountain, amount to more than 150 times from 1998 to the present. In recognition of his achievements, the Republic of Korea awarded him an order of civil merit: Dongbaek Medal, in November 2017.

발표자 Presenter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KIM Taek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김태균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동대학 기획처 협력부 차장을 역임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학술지인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의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유엔체제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인권학회, 한국사회학회, 국제개발협력학회 등의 운영위원을 역임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UNSDSN 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비상임이사, UNESCO 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학술부문에서는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풀브라이트연구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협력연구원, 독일 괴테대학교 AFRASO 공동연구원, 독일 튀빙겐대학교 Global South 프로젝트 참여연구원, 세계정치학회 RC18 운영위원 등으로 참여해 왔다. 시민사회부문에서는 경실련 국제위원장, 발전대안 피다 전문위원과 KCOC 정책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주제는 국제개발학, 평화학,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정치사회학으로 Oxford Development Studies, International Sociology, Journal of Democracy, Global Governanc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등 주요 국제저널에 저작을 출판하여 왔으며, 최근 <대항적 공존>, <한국비판국제개발론> 등의 대표저서와 <한반도 평화학>, <한국-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 토크보기> 등의 공저를 출판하였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와 미국 존스홉킨스 고등국제관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프랑스 파리4대학(소르본)에서 교환교수를 역임하고, 일본 와세다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조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Dr. KIM Taekyoon is a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Vice Dean for Public Affair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orking as editor-in-chief of the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he had diverse board member duties at academic associ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Korea Academic Council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Association of Human Rights Studies,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nd so forth. In the public and government sector, his various roles and contributions include a member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board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member of the Policy Committee at the Ministry of Justice, policy advisor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nd consultant for the UNESCO. In the academic circles, his participation encompasses a Fulbright fellow of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a collaborative researcher for the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partner researcher for the AFRASO of Goethe University Frankfurt, a collaborative researcher for the Global South Project of Tübingen University, and more. In the civic sector, he has also served as Chairperson of International Affairs at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member of Policy Planning Committee at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teering Committee member of the People's Initiative for Development Alternatives. His main research areas cover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peace studies, global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 Professor Kim's scholarly works feature on prestigious journals,

발표자 Presenter

particularly Oxford Development Studies, International Sociology, Journal of Democracy, Global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His books include *Oppositional Coexistence* (2018), *Critical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on Korea* (2019),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2021), and *Investiga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Africa* (2021). Professor Kim received D.Phil. from the University of Oxford and a Ph.D. from the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Johns Hopkins University. Before join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as an assistant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Waseda University and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Paris IV-Sorbonne.

Session 5-1

인도개발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HDP Nexus 이행과 과제

Implementation and task of HDP Nexus for Humanitarian aid-Development and Peace on Korean Peninsula

인도주의-개발-평화(HDP) 연계와 SDG 시대의 대북 원조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트리플 넥서스(인도주의-개발-평화 또는 HDP 연계)'는 오랜 역사를 가진 비교적 최근의 개념이다. 이는 하나의 기치 아래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데, 한 쪽에는 개발-인도주의 연계가 있고 다른 한 쪽에는 개발-평화 연계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점점 복잡해지는 환경 속에서 취약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념적, 프로그램적, 운영적 및 구조적 도전과제를 위한 유의미한 시도를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개발 및 인도주의적 행위자들에게 이 도전과제는 '재해 위험 경감'과 '구호 재활 및 개발의 연계'를 위한 노력 등이 있었다. 이와 병행하여 개발-평화 연계가 등장했으며, 여기서 평화는 흔히 정치, 안보 및 평화 구축 목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된다. 이러한 연계는 대북 핵제재의 상황 속에서도 국제사회가 인간안보의 보편적 개념들과 유엔의 SDG 16을 위한 노력에 북한을 참여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틀로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이 2021년 6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를 제출했음을 감안할 때, 북한의 맥락에 트리플 넥서스를 적용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 개발 협력 및 평화 구축의 건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데 시의적절하고 관련성 높은 접근일 것이다.

Session 5-1

인도개발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HDP Nexus 이행과 과제

Implementation and task of HDP Nexus for Humanitarian aid-Development and Peace on Korean Peninsula

HDP Nexus and Aid to the DPRK in the Era of SDGs

KIM Taek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he 'triple nexus' (known as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 or HDP - nexus) is a relatively recent concept with a long history. It effectively brings together two different paradigms under one banner: the development-humanitarian nexus on the one hand, and the development-peace nexus on the other. Both demonstrate meaningful attempts to grapple with the conceptual, programmatic, operational and structural challenges of addressing vulnerabilities in increasingly complex environments. For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ctors, this grappling has historically encompassed efforts to look at 'disaster risk reduction' and 'linking relief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In parallel, the development-peace nexus emerged, whereby peace is often used as a broad term, encapsulating political, security and peacebuilding objectives. This nexus can be taken into account as a good framework by which international society engages North Korea with the universal concepts of human security and UN's SDG 16, even under the nuclear sanctions against the DPRK. Given that the DPRK submitted its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to the UN 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 in June 2021, applying the triple nexus into the context of North Korea would be very timely and relevant to figure out how humanitarian assistanc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eacebuilding are able to be grappled in a constructive fashion.

발표자 Presenter



제롬 소바쥬

국제관계 컨설턴트

Jerome SAUVAGE

International Relations Consultant

제롬 소바쥬 컨설턴트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서 쌓은 폭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관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제롬은 북한 주재 UN 조정관으로 활동하던 2009년에서 2013년, UN의 긴급 및 인도적 대북지원을 제공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UN 대표로 활동했으며 UN의 북한 내 운영 조건을 북한 정권과 협상하고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한 모금활동 등을 총괄했다.

프랑스 국적인 제롬 소바쥬는 폴 니체 고등국제학대학(SAIS)과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석사를 받았으며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행정법 석사(Maitrise)를 받았다.

Mr. Jerome SAUVAGE is an international relations consultant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Asia, Africa and the Middle East.

As UN Coordinator in North Korea from 2009 to 2013, Jérôme Sauvage led the UN in providing emergency and humanitarian support to the population; represented the UN at bilateral and multilateral levels; negotiated with the Government the UN's operating conditions in the country and led fund-raising efforts in support of humanitarian activities.

Mr. Sauvage, a French national, holds a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 and a Maitrise in Administrative Law from Paris Sorbonne University.

HDP 연계의 적용 사례로서 유엔의 북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조정 메커니즘

제롬 소바쥬
국제관계 컨설턴트

개요

배경 -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는 인도주의적 환경에 대한 개발 원칙의 적용으로 시작하는, 개발에 대한 국제적 사고방식의 진화를 보여준다. 때로는 "인도주의에서 개발로의 연계"(UNDP 2008) 또는 "구제, 재활 및 개발 연결"(LRDD)이라고도 부른다.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회원국이 일관되고 상호 보완적인 인도적 지원, 개발 지원 및 평화 구축 활동을 이행하도록 돕는 포괄적 정책 권고안을 제안했다. 인도주의-개발-평화(HDP)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된 분쟁 및 재난으로 인해(FAO 2010:12) "인구의 상당 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사망, 질병 및 생계 중단에 심각하게 취약한" 환경을 설명한다(Macrae, Joana).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의 실제 적용은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의 맥락에 HDP 연계 적용 - 북한의 상황은 HDP 연계를 요하는 전형적인 경우는 아니다. 자연재해를 반복적으로 겪긴 하지만, 북한 정권은 분쟁을 겪고 실패한 국가가 아니며 영토와 민족에 대한 사업 권한 등 국가의 근본적 기능 및 국경 수호를 수행하고 있다. 연계의 요소들 중 평화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평화 구축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평화 행위자가 관여된 국내 분쟁도 없으며 난민이나 강제 이주도 없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들의 핵심 요구, 특히 식량 및 보건 안보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연 재해의 피해가 최악으로 치달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는 등 취약국가의 특징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구조적 원인으로 인한 장기적 위기로서 인도적 원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개발과 평화에 대한 장기적 전망 없이 생명을 구하는 긴급 구호만 제공해서는 지속되는 위기에 대응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 재해가 반복적으로 미치는 극심한 피해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국내가 아닌 지역적 차원이긴 하지만 북한에는 명확한 분쟁의 맥락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연결 사고'는 행위자들이 인도주의, 개발 및 평화 활동을 연결하고 통합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북한 UN국가팀 및 HDP 연계의 조정 - UN은 HDP 연계를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기타 국제 전략 지침을 통해 위기 시 보다 총체적이고 상호 연결된 대응이 가능해진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HDP 연계를 UN 의제의 핵심 요소로 설정했다(UN 2017, 2016a). UN북한팀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협력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UN 회원국으로서 북한은 2015년 10월 총회에서 채택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UN국가팀은 국제 규범과 기준에 상응하는 제도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북한 사회 내 모든 차원에서 복원력을 키워주고, 향후 인도주의적 필요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북한에서는 인도주의에서 개발로의 연계가 전략적 프레임워크의 4가지 구성 요소 모두에 포함되며, 이는 특히 자연 재해와 같은 어려움에 더 잘 대비하고, 흡수하고,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복원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UN의 전략적 프레임워크에는 SDG, 특히 '공정하고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을 위한 SDG #16 및 '국가 내 및 국가 간

Session 5-1

인도개발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HDP Nexus 이행과 과제

Implementation and task of HDP Nexus for Humanitarian aid-Development and Peace on Korean Peninsula

불평등 감소"를 위한 SDG #10과 연계한 평화와 정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이는 지원의 대상을 수혜자로 하는 등 각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구성 및 이행에서 인권 기반 접근 방식(HRBA)과 같은 접근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여, 이는 불평등을 해결하고 국가 내 가장 취약한 사람, 집단 및 지역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UN 북한 프레임워크의 전략적 우선순위 #4는 다양한 인권 협약 및 절차에 따라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도록 UN이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전략적 프레임워크의 전반적 주제는 사람 중심이며 인적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맺음말 –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극단적 자가격리는 자연 재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지난 1년 반 동안 북한 주민들의 식량과 건강 상황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감안하여 UN은 2021년에 대북지원에 대한 호소를 발표하지 않았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지만 HDP 대응이 이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1. OECD DAC,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 관련 OECD 규범에 대한 DAC 권고안 (파리: OECD, 2019).

2. 유럽연합(UN). 2017. 유럽연합 평화 및 안보 축의 구조조정: 사무총장 보고서. 뉴욕: 유엔총회. <https://undocs.org/en/A/72/525>.

3. <https://dprkorea.un.org/en/10156-un-strategic-framework-2017-2021>

The UN humanitarian program coordination mechanism in DPRK as an application of the HDP nexus

Jerome SAUVAGE

International Relations Consultant

Abstract

Background - The Humanitarian - Development - Peace Nexus represents an evolu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thinking starting with the application of development principles to humanitarian settings, sometimes called “Continuum of Humanitarian work to Development” (UNDP 2008) or “Linking relief,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LRRD). More recently,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proposed comprehensive policy recommendations to help member states implement consistent and mutually complementary humanitarian assistance, development assistance, and peace building activities. Humanitarian- Development-Peace (HDP) typically describes environments in which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is acutely vulnerable to death, disease and disruption of their livelihoods over a prolonged period of time” (Macrae, Joana) mainly due to perpetual and recurring conflicts and disasters (FAO 2010:12). It should be mentioned that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se new concepts has remained difficult.

Application of HDP nexus to the DPRK context - The DPRK context does not constitute a typical situation requi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HDP nexus. Whereas North Korea does experience recurring natural disasters, the North Korean regime is not a failed State amid conflict: it performs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a State such as project authority over its territory and peoples and protect its national boundaries. As regards the peace component of the nexus, there is no domestic conflict requiring traditional peace-building interventions and involving peace actors, nor are there refugees or forced migration.

However, North Korea displays features of Fragile States such as failing to fully meet key needs of their citizens, notably food and health security and preventing the worst effects of natural disasters. Most experts agree that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North Korea is that of a protracted crisis with structural causes, for which humanitarian aid alone is not sufficient. They find that life-saving emergency relief without long-term prospects for development and peace provides an insufficient response to this enduring crisis situation. We already mentioned as an example, the destructive re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Finally there is a clear context of conflict to the North Korean situation, albeit more regional than domestic. The ‘Linking Thinking’ referred to above proves necessary to make actors link and integrate their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peace actions.

The UN Country Team in DPRK and coordination of the HDP Nexus - The United Nations has developed tools to help implement the HDP nexus.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other international strategic guidelines support the ambition of a more holistic and interconnected response to crises. UN Secretary-General Guterres made the HDP nexus a central element of the UN agenda (UN 2017, 2016a)

The DPRK UN Country Team has prepared a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that aligns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s a Member State of the United Nations, the DPR Korea is committed to all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ession 5-1

인도개발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HDP Nexus 이행과 과제

Implementation and task of HDP Nexus for Humanitarian aid-Development and Peace on Korean Peninsula

and 169 targets, which were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October 2015. The UN Country Team believes that institutionally sustainable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s, which builds resilience at all levels of DPR Korean society, is the best way to reduce humanitarian needs for the future.

In DPRK, the Humanitarian to Development Continuum is present in all four components of the Strategic Framework which will contribute to building more resilience in its people to better prepare for, absorb, respond to and recover from setbacks, notably natural disasters.

The UN framework includes a search for peace and justice by aligning with SDGs, notably SDG #16 to 'Promote just,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and SDG #10 to "Reduce inequalities within and among countries". Practically, this means adopting such approaches as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each programme and project, including in the targeting of beneficiaries, to address any inequalities and to reach the most vulnerable people, groups and regions of the country. Additionally, Strategic Priority #4 of the UN DPRK Framework provides for UN support to the Government in implementing its commitments under a variety of human rights conventions and processes. Indeed, the overall theme of the Strategic Framework is that it is people-centered and designed to advance human development.

Final Note- The country's extreme self-isolation from COVID-19 almost certainly had an impact that might affect the population in a similar way as a natural disaster. Given the limited information on the food and health situation of the people this past year and a half, the United Nations did not issue an appeal for 2021. It is reasonable to expect a great worsening of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North Korea but too early to assess how a HDP response will need to adjust to it.

¹ OECD DAC, DAC Recommendation on the OECD Legal Instruments Humanitarian -Development-Peace Nexus (Paris: OECD, 2019).

² United Nations (UN). 2017. Restructuring of the United Nations peace and security pillar: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New York: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ttps://undocs.org/en/A/72/525>.

³ <https://dprkorea.un.org/en/10156-un-strategic-framework-2017-2021>

토론자 Discussant



이예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업국장

YI Yehjung

Korean Sharing Movement, Director of Programs

이예정 사업국장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2020년말까지 통일부 산하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근무했으며, 2021년 1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복귀하였다. 2003년부터 16년에 걸쳐 2018년까지 이예정 사업국장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남북보건의료협력사업, 정책사업, 국제연대사업 등을 담당한 바 있다.

Ms. YI Yehjung is the director of programs at the Korean Sharing Movement (KSM). From 2018 to 2020, she worked at the Gaeseong 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 fo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She then returned to KSM at the beginning of 2021. Before her involvement at the liaison office, her responsibilities include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health and medical sector, policy and advoca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rom 2003 to 2018.



카타리나 젤웨거

KorAid Ltd. CISAC 대표

Katharina ZELLWEGER

KorAid Ltd. CISAC, Director

카타리나 젤웨거 대표는 2015년에 홍콩 기반 NGO 코에이드(KorAid Limited)를 설립하여 북한과 중국의 보호소 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헌신해왔다. 코에이드는 북한과 중국에서의 추가적 사업 기회를 계속 모색 중이다.

코에이드는 홍콩, 중국, 북한에서 고위급 원조 담당자로 30년 이상 근무한 젤웨거 대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그녀는 2006년부터 5년 간 평양에서 근무하며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SDC) 평양사무소장을 역임하며, 식량안보를 위한 지속가능 농업 생산, 시민생계 제고를 위한 수익 창출, 개인 및 기관의 학습을 위한 역량개발 등을 책임졌다. 1978년에서 2006년까지 카톨릭 기구인 카리타스-홍콩(Caritas-Hong Kong)에서 고위직으로 활동하며 중국 및 북한에서 카리타스의 활동을 이끌고 외연을 넓혔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교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북한 프로그램 연계/방문연구원으로도 재직중이다. 그녀는 미국, 유럽 등지의 행사에 북한 인민이 처한 현 상황의 전문가로서 초청된다. 한반도, 특히 북한의 인도주의문제, 안보 등을 다루는 워크숍과 세미나, 컨퍼런스에 참여하며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며, 주요 인사의 방북, 방한 일정에 동행하기도 한다. 버몬트 주 브래틀버러의 School for International Training에서 국제 행정학 석사를 받았으며 2006년에는 북한 관련 공적을 인정받아 바티칸으로부터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훈장을 받았다.

Ms. Katharina ZELLWEGER manages KorAid Limited, an NGO she established in 2015, based in Hong Kong, to focus on serving children in institution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and China. KorAid has further potential for engagement in additional projects in these countries.

Zellweger brings over 30 years of field experience as a senior aid manager in Hong Kong, China, and North Korea to this undertaking. She was based in Pyongyang for five years (2006-2011) as the North Korea country director for the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an office of the Swis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t SDC, her work focused on 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tion to address food security issues, income generation to improve people's livelihoods, and capacity development to contribute to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learning. Before joining SDC, from 1978 to 2006, Zellweger worked in a senior capacity at Caritas-Hong Kong, a Catholic agency, playing a pivotal role in pioneering the Caritas involvement in China and North Korea. Zellweger is currently a North Korea Program Affiliate/Visiting Fellow at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at Stanford University in California. She is an expert and frequent presenter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giving talks to audiences in the US, Europe, and elsewhere. She has also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field by participating in workshops, seminars, and conferences concerning both humanitarian and security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most specifically regarding North Korea. Moreover, from time to time, she accompanies exclusive tours to North and South Korea. Katharina Zellweger has a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from the School for International Training in Brattleboro, Vermont. In 2006, she received the honor of a Dame of St. Gregory the Great from the Vatican for her work in North Korea.

토론자 Discussant



쥬시 오잘라

Finn Church Aid 북한 프로그램 수석 고문

Jussi OJALA

Finn Church Aid, Senior Advocacy Advisor in DPRK Programming

쥬시 오잘라는 국제 협력, 개발 협력, 중재, 평화 구축 및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에 있다. UN 및 EU를 비롯한 다자기구, 핀란드 및 스웨덴 정부, 시민 사회(Finn Church Aid)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2014~2015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때는 OECD와 평화국가건설국제대화기구(IDPS)에 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수단과 에리트레아에서 거주하고 근무한 바 있는 오잘라는 에티오피아, 남수단, 소말리아에서도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웠다. 오잘라는 2018년부터 FCA의 북한 인도주의 참여에 힘써왔으며, 북한에 대한 3중 평가 임무를 수행하고 또한 FCA의 북한구호활동을 이끈다.

Mr. Jussi OJALA has over 20 years of experience span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mediation, peacebuilding, and humanitarian aid. He has worked with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UN, EU), Government posts (Finland, Sweden), as well as with civil society (Finn Church Aid). Mr. Ojala has also consulted the OECD / International Dialogue for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IDPS) Secretariat during the Ebola response in West Africa 2014-2015. He has lived and worked in the Sudan and Eritrea, worked extensively in Ethiopia, South Sudan, and Somalia. Ojala has been working on FCA's humanitarian engagement with DPRK since 2018, has been part of the three assessment missions to the country, and leading FCA's advocacy work on DPRK.

토론자 Discussant



이지선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YI Jisun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yung Hee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이지선 교수는 2018년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개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의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6년에서 2017년 세계은행의 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팀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했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ESOC 연구소(Empirical Studies of Conflict Project)에서 초청 연구원으로 일했다. 최근 연구는 Korea Observer (SSCI)에 게재된 “National Donors’ Legaliz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Emerging Case of South Korea (Sep. 2021)” 및 Asian Perspective (SSCI)의 “Famine and Regime Response in Post-Cold War Communist States: Political Commitment, Food Distribution, and International Aid in Cuba and North Korea (Apr. 2021)”가 있다. 현재 중점연구분야는 원조외교사, 법과 개발, 대북지원, 아프리카, 무력분쟁, 평화-발전 넥서스, 지속가능발전 등을 포함한다.

Professor YI Jisun earned her Ph.D. degree in Development Studies at King’s College London, UK, in 2018. She currently works as a Research Professor at the Center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yung Hee University, South Korea. Before joining the faculty, she served as a consultant (2016~2017) at the Fragility, Conflict & Violence (FCV) Team at the World Bank Group, USA. Jisun also participated in research projects as Guest Researcher at the Empirical Studies of Conflict Project, Princeton University. Her recent publications include “National Donors’ Legaliz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Emerging Case of South Korea (Sep. 2021, Korea Observer (SSCI))” and “Famine and Regime Response in Post-Cold War Communist States: Political Commitment, Food Distribution, and International Aid in Cuba and North Korea (Apr. 2022, Asian Perspective (SSCI)).” Her main research interests are the history of aid diplomacy, Law and Development,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Africa, armed conflict, sustainable development, etc.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Session 5-2

김정은 집권 10년 평가: 정치/외교 분야

Evaluation of 10 Years of the Kim Jong Un Regime
– Politics and Foreign Affairs

주관기관
Organized by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좌장
Moderator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KIM Hyunwook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Professor

발표
Presenter

-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OH Gyeong-seob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KIM Jin-Ha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nior Research Fellow

토론
Discussant

- 박형중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PARK Hyeong Jung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Distinguished Research Fellow
-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LEE Seung-yeol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Senior Researcher
- 정구연 강원대학교 조교수
• CHUNG Kuyou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수
• NISHINO Junya Keio University, Professor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5-2)

김정은 집권 10년 평가: 정치/외교 분야

- 김정은 집권 이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정치 및 외교 분야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전망하고자 세션 기획
- 정치 분야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정권은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권력 안정화에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고자, 김정은 정권의 권력승계 이후 정치적 과정에 대해 분석
-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정권 10년 간 북핵 외교의 목적과 패턴을 살펴보고, 향후 북한의 대외관계 및 핵외교의 행위패턴과 예상하여 적실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

Evaluation of 10 Years of the Kim Jong Un Regime – Politics and Foreign Affairs

- This session is designed to reflect on the past decade of North Korea's politics and foreign affairs, 10 years after Kim Jong Un came into power, and to make a projection on what comes next.
- The session analyzes the political process after Kim Jong Un's succession of the power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in politics of how the Kim Jong Un regime has been able to establish a monolithic leadership and stabilize the power to some degree.
- The session examines the objectives and patterns of North Korea's nuclear diplomacy of the past decade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and seeks timely, responsive measures by predicting behavioral patterns of North Korea's external relations and nuclear diplomacy.

좌장 Moderator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KIM Hyunwook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Professor

김현욱 교수는 현재 국립외교원의 미주연구부장이자 교수이다. 김현욱 교수의 주 연구 분야는 한미동맹, 북미 관계와 동북아시아 안보이다. 김현욱 교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부의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상임위원이다. 또한 합동참모본부의 선임 자문위원이며 해군사관학교의 명예연구위원이다. 김현욱 교수는 2014년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교와 2020-2021년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방문연구원으로 있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브라운 대학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역임했다.

Professor KIM Hyun-Wook is currently a faculty member and director-general at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His research areas include the ROK-US alliance, US-DPRK relations,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He was an advisory board member for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is now a standing member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Currently, senior advisor for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an honorary research fellow at the Korean Naval Academy. He was a visiting scholar at UC San Diego in 2014 and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 2020-21. After receiving his Ph.D. and MA in political science from Brown University, he worked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s a postdoctoral fellow. He received his BA in political science from Yonsei University.

발표자 Presenter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OH Gyeong-seob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오경섭 연구위원은 2008년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에서 북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 연구 분야는 북한정치, 북한 엘리트,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북관계 등이다.

Dr. OH Gyeong-Seob received his Ph.D. in North Korean Studies from Korea University in 2008. He worked as a research fellow at the Center for North Korean Studies in Sejong Institute from 2009 to June 2015. He has served as a research fellow at the North Korean Research Division i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since July 2015. His primary research areas are North Korean politics, North Korean elites, South Korea's strategy o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 연구는 2012년 권력승계 이후 지난 10년 동안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를 위해서 추진한 정치 분야 정책을 평가한다. 권력승계 직후 김정은의 권력은 불안정했다. 김정은은 2008년 말 후계자로 등장할 때까지 공식적인 당직을 맡은 적이 없었고, 아무런 정치경력도 없었다. 최고지도자로서 정치적 업적을 쌓지도 못했다.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불과했다. 권력세습 직후 김정은이 완전하게 권력을 장악·통제했다고 볼 수 없었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고, 권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가? 이 연구는 독재연구의 이론적 성과를 활용해서 통치 안정화 전략을 독재자와 엘리트의 관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구분해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정치 분야 평가는 통치 안정화 전략, 지배연합 구성과 재편, 수령-인민 관계를 분석한다. 첫째, 김정은 정권은 통치 안정화 전략을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의 통치 안정화 전략도 내부 엘리트들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엘리트 관리전략과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주민 통제 전략으로 구분한다.

둘째, 김정은은 신속하게 지배연합을 구성과 재편했다. 김정은은 권력세습을 지원한 후견 체제에서 신뢰할 수 없거나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은 제거했고, 충성심이 검증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지배연합을 재구성했다. 셋째, 수령-인민 관계를 분석한다. 김정은이 권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정치적 반대를 막고, 인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김정은 정권이 실행한 인민들의 지지 확보 전략은 기존 제도와 시스템 활용, 김정은의 권위와 정통성 확립, 인민중시정책 등으로 구분해서 분석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김정은 정권은 지난 10년 동안 통치안정화 전략을 통해 유일지배체제 구축과 권력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둘째, 김정은 정권은 지배연합 구성·재편을 통해서 믿을 수 없는 엘리트들을 제거하고 충성심을 검증한 엘리트들 발탁함으로써 지배연합의 응집력을 강화했다. 셋째, 김정은 정권은 인민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민 중시 정책과 억압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인민들의 정치적 반대를 막는데 성공적이다. 향후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엘리트 응집력과 인민들의 지지를 유지한다면, 장기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stablishing the Kim Jong-un Regime and Stabilizing His Power

OH Gyeong-seob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This study evaluates North Korea's policy in the political area, which has contributed to establishing Kim Jong-un's monolithic ruling system and stabilizing his power of the last ten years since he inherited the power in 2012. Immediately after Kim Jong-un took power, his grip on power seemed to be on an unstable footing. He neither had assumed the official position in the Party nor had political experiences until he emerged as a successor at the end of 2008. He had no time to acquire political achievements as a supreme leader. An intensive training as a successor had only been for three years from 2009 to 2011. Kim Jong-un did not appear to be in total control of the power at the initial phase of his rule.

What kinds of policy has the Kim Jong-un regime pursued to establish a monolithic ruling system and stabilize its power? This research utilizes theoretical research findings on the dictatorship in analyzing his strategy of stabilizing the rule based on a category of the relations between a dictator and the elites and between the ruled and the ruler. In detail, the Kim Jong-un regime's political areas were assessed by analyzing a strategy of stabilizing its rule, composition, and repositioning of the ruling association, and relations between the Suryong and the people.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Kim Jong-un regime's strategy of stabilizing its rule. The Kim regime's ruling-stabilization strategy was divided into a strategy of managing the ruling elites to maintain their loyalty, and a strategy of controlling the people to preclude the grassroots resistance.

Second, Kim Jong-un expeditiously constructed and reorganized the ruling association. Kim Jong-un removed officials from the guardianship who supported him in the power succession process but was not trustworthy enough or were likely to challenge his power in the future. Instead, he reorganized a ruling association with people whose loyalty to the regime was verified and guaranteed. Third,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Suryong and the people. Kim Jong-un attempted to stem the political opposition of the people and win their support to stabilize his power. This study analyzes Kim Jong-un's strategy of earning the people's support and categorizes it into: 1) his way of utilizing the existing institutions and system; 2) obtaining the authority and legitimacy; and 3) the people-centered policy.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Kim Jong-un regime successfully pulled off establishing a monolithic ruling system and stabilizing its power through a strategy of stabilizing its rule over the last ten years.
2. The Kim regime removed unreliable elites by constructing and reorganizing the ruling association and appointed elites whose loyalty was verified, thereby strengthening the consolidation of the ruling association.
3. The Kim Jong-un regime has been successful at consistently maintaining both people-centered policy and coercive policy to keep earning people's support, thereby stemming the political opposition of the people.

If the Kim regime overcomes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and continues to gain people's support in the future, it will be able to maintain power over the long term.

발표자 Presenter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IM Jin-Ha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nior Research Fellow

현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고, 미 시카고대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 이사,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상임위 상임위원, 통일준비위원회 정책보좌관, 국무조정실국정과제평가지원단 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저작으로 「김정은 정권 통치 담론과 부분별 정책변화」(공저, 통일연구원, 2020), 「북한 외교정책: 정책 패턴과 북핵 외교 사례분석」(공저, 통일연구원, 2019), “독재체제안정화 경로와 북한의 가산세 권력집중 전략 (2021),” “북한 군사적 강압 외교의 수정주의적 기원(2020),” “북한공세국가의 대외인식분석(2020),” Who Denuclearize Whom? Pyongyang’s Revisionist Aims and the Risk of Negative Assurance (2019) 등이 있다.

Dr. KIM Jin-Ha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North Korean Research Division i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He received his BA in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Korea University and his MA and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Chicago University. He served as a research director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director of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Division in KINU, senior researcher at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policy advisor at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Unification Preparation, and evaluation committee member at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His recent publications include Governing Discourse on Kim Jung-un Regime and Policy Changes in Each Area (co-authored, KINU, 2019), North Korea’s Diplomatic Policy: The Policy Pattern and Case Analysis on North Korean Nuclear Diplomacy (co-authored, KINU, 2020), Routes for Stabilizing Dictatorship and North Korea’s Centralizing Strategy of Personal Power (2021), Revisionist Origin of North Korea’s Military Coercive Diplomacy (2020), North Korea’s Offensive Realism and the Strategy of Nationalism (2020)(all in Korean), and Who Denuclearize Whom? Pyongyang’s Revisionist Aims and the Risk of Negative Assurance (2019)(in English).

김정은 정권의 북핵외교 정책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발표는 김정은의 공개전략담론과 국제합의문 등 북한 공식문건 분석(이하 북핵전략담론)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 및 북핵·외교의 전략목표와 전술운영상의 변화패턴을 규명하고자 한다.

김정은 북핵전략담론은 일관되게 핵보유를 핵심목표로 상정해 왔지만, 국제사회의 비핵화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북핵외교전술에 대해서는 유화공세를 개시한 2018년을 분기점으로 비교적 명확한 변화와 차별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북핵 전략담론을 2012–2017년 간 <대립국면기>와 2018년 이후 <협상국면기>담론으로 대별 분석을 진행한다.

핵무장 프로그램 완성에 집중한 <대립국면기>에 김정은은 대미 핵·억제력 및 국가자주권 확보를 명목으로 북한핵무장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한편, 확대된 핵능력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의 대북정책변화를 압박하는 담론들로 대미·대남 강압외교에 집중한다. 이 시기 김정은 정권 세습 후 첫 미·북 합의로서 북한 측의 핵개발활동 유예 및 단계적 비핵화 조치 이행과 미국 측의 상응하는 단계적 제재해제를 요제로 하는 2012년 2.29합의가 도출되었지만, 북한은 곧 이른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으로 이를 무산시켜다. 이에 대응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핵무장강행을 방기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2018년 김정은 협상용 유화태세로 전환한다. <협상국면기>에 김정은은 평화·유화공세와 핵·위협을 배합한 전술적 담론들로 유리한 협상지형을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싱가포르의 성공은 하노이의 대실패로 종료된다.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의 김정은 담론에서는 협상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핵·위기고조전술과 핵·강압정책 재개를 위협하며 미국의 양보를 종용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협상파트너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는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며 극단적 언명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김정은은 바이든 신정부출범을 앞두고 지난 1월 개최된 8차 당대회를 통해 자력갱생의 장기전으로 제재의 압력을 버텨내면서 핵무장 고도화에 진력하겠다는 대미압박의 수위를 높인다.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천명하며 배수진의 결의를 다졌다. 김정은이 선제적 공세에 나서면서 미국 신정부의 북한비핵화방정식 도출이 더욱 어려운 난제가 되었다.

키워드 | 김정은, 북핵외교담론, 유화공세, 핵강압

A Policy of North Korea's Nuclear Diplomacy in the Kim Jong-un Regime

KIM Jin-Ha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nior Research Fellow

This presentation aims to identify changing patterns of North Korea's strategic goals and tactical operation in nuclear armament and its nuclear diplomacy by analyzing its official documents, including Kim Jong-un's open strategic discourse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referred to as "North Korea's strategic discourse").

Kim Jong-un's nuclear strategic discourse coherently set nuclear possession as a core objective. However, relatively apparent changes and distinctiveness have been spotted in North Korea's diplomatic tactics devised to respond to the pressure of denucleariz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2018, when North Korea launched a conciliatory offensive. Hence, this study divided North Korea's nuclear strategic discourse into a confrontational phase between 2012 and 2017 and a negotiation phase after 2018.

In the confrontational phase that focused on completing the nuclear armament program, Kim Jong-un argued for the legitimacy of nuclear armament in North Korea, citing the need to strengthen nuclear deterrence against the U.S. and to secure national sovereignty. In addition, he employed coercive diplomacy toward the U.S. and South Korea by releasing a series of discourses that pressure the ROK-U.S. alliance to change North Korea policy building on its extended nuclear capability. At that time, North Korea and the U.S. reached an agreement on February 29, 2012, for the first time since Kim Jong-un succeeded power. The gist of the deal was to suspend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implement phased denuclearization measures in return for the U.S.'s corresponding phased lifting of sanctions. Soon after, however, North Korea nullified this agreement by launching long-range missiles. In the meantime, the Obama administration's subsequent strategic patience backfired, creating the effect of overlooking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In 2018, Kim Jong-un turned to a conciliatory posture for negotiations. Kim Jong-un attempted to create a conducive environment in the negotiation phase by deploying tactical discourses combining peace-conciliatory offensive, and nuclear-threats. What seemed to be a "success" in Singapore culminated in a fiasco at Hanoi. After a breakdown in Hanoi, Kim Jong-un, in his discourses, blamed the U.S. for the failure of negotiations, threatened to resume nuclear escalation tactics and coercive nuclear policy, and urged the U.S. to concede.

While Trump was a sitting president, Kim Jong-un restrained himself from making extreme, provocative remarks leaving room for dialogue and negotiations. However, in leading up to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Biden, he elevated the level of pressure toward the U.S., stating at the 8th Party Congress held last January that he would muddle through the pressure from sanctions via the spirit of self-reliance (Charkyok Kaengsaeng) and focus on nuclear advancement. By declaring the principle of "responding to power with power and goodwill with goodwill," Kim Jong-un had his retreat cut off. Kim Jong-un has mad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equation all the more intractable to resolve for the U.S. administration by embarking on a preemptive offensive.

Keywords | Kim Jong-un, diplomatic discourse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conciliatory offensive, nuclear coercion

토론자 Discussant



박형중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PARK Hyeong Jung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Distinguished Research Fellow

박형중 박사는 통일연구원의 석좌연구위원이다. 박형중 박사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전문위원과 한-독 통일외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박형중 박사의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 관계, 남북 관계, 비교 독재체제이다. 박형중 박사는 또한 아이젠하워 펠로우 재단의 연구위원(2002)과 브루킹스 연구소의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의 객좌연구위원(2006-2007)을 역임하였다. 박형중 박사는 다수의 국문/영문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근 발간된 주요 영문 정책 논문으로는 State-Society Relations in North Korea (2018),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2015), “Kim Jong-un’s Renewal of Nuclear Strategy and South Korea Policy since 2012” (2014), “The Purge of Jang Song-taek and the Competition for Regency during the Power Succession” (2013), Fiscal Fra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2013) 등이 있다.

Dr. PARK Hyeong Jung is an emeritus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His former positions include; Expert Member of Unification Preparation Committee, Member of ROK-Germany Joint Advisory Council on Foreign Policy for Unification. His leading research encompasses politics, the economy, and foreign relations of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and comparative analysis on dictatorships. He was an Eisenhower Fellow in 2002 and a visiting fellow at the Center for East Asia Policy Studies at Brookings from 2006-2007. His numerous publications include books and research papers in Korean and English. His recent policy papers and articles in English are: State-Society Relations in North Korea (2018),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2015), “Kim Jong-un’s Renewal of Nuclear Strategy and South Korea Policy since 2012” (2014), “The Purge of Jang Song-taek and the Competition for Regency during the Power Succession” (2013) and Fiscal Fra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2013).

토론자 Discussant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LEE Seung-yeol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Senior Researcher

이승열 입법조사관은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에서 활동중이며, 2009-2014년까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 2011년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원(ISDP) 객원연구원 재직, 2009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 후계체제에 대한 연구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저서로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통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의 실현 방안(북한연구학회보, 2013), “Crisis in the Leadership of Kim Jong Un: Focused on the Unitary Leadership System”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2014), “North Korea Political Transitions in Kim Jong Un Era: Elites’ Policy Choices” (Asian Perspective, 2017) 등이다.

LEE Seung-yeol is a legislative examiner at the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Team of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He was a visiting research fellow at Ewha Womans University Institute for Unification from 2009 to 2014 and a guest researcher at the Institute for Security & Development Policy (ISDP), Sweden, in 2011. He earned his Ph.D. in North Korean Studies from the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 2009 with a doctoral dissertation on the succession of North Korean leadership. His prominent publications include “The Method of Accomplishment for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hn Jung Geun’s On Peace in East Asia” (North Korean Studies Review, 2013)(in Korean), “Crisis in the Leadership of Kim Jong Un: Focused on the Unitary Leadership System”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2014), and “Political Transition in North Korea in Kim Jong Un Era: Elites’ Policy Choices” (Asian Perspective, 2017).

토론자 Discussant



정구연

강원대학교 조교수

CHUNG Kuyou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정구연 교수는 현재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주제는 미국대외정책과 지역안보아키텍처, 그레이존, 해양안보 등이며 최근의 연구로는 “South Korea’s perspective on Quad Plus and Evolving Indo-Pacific Security Architecture” (Journal of Indo-Pacific Affairs, 2020), “Wartime Durability of the US-led Coalition of the Willing: The Case of the 2003 Operation Iraqi Freedom,”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2020)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UCL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졸업 후 동 대학교 강사 (2011–2012), 국립외교원 미주 연구부 객원교수 (2014–2015),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2015–2017)으로 근무했다. 현재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해군발전자문위원, 통일교육위원 등을 역임하며, 국제정책연구원 기초실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해양안보〉 편집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Prof. CHUNG Kuyoun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th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er research focuses on US foreign policy and Indo-Pacific security issues, including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maritime security, and grey-zone conflict. Her recent publications include “South Korea’s perspective on Quad Plus and Evolving Indo-Pacific Security Architecture” (Journal of Indo-Pacific Affairs, 2020), “Wartime Durability of the US-led Coalition of the Willing: the case of the 2003 Operation Iraqi Freedom”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2020).

Prof. Chung received her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in 2011. She was previously a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UCLA (2011–2012), visiting professor at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2014–2015), and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5–2018). Chung currently serves as a member of the policy advisory committee 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Republic of Korea Navy. She currently serves as an executive director at the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Institute Korea (IpsiKor) and editor-in-chief for the Journal of Maritime Security at the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토론자 Discussant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수

NISHINO Junya

Keio University, Professor

니시노 준야 박사는 일본 도쿄 게이오 대학교 법학부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현재 게이오 대학교 현대한국연구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다. 니시노 박사의 주요 연구분야는 현대 한국 정치, 동아시아 국제관계, 한일 관계이다.

니시노 박사는 우드로 윌슨 센터의 연구위원과 조지 워싱턴 대학교 시거 아시아 연구소의 방문학자로 활동했고(2012-2013) 하버드-옌칭 연구소에서는 교류학자로 있었다(2011-2012).

니시노 박사는 일본 외무성 정보 분석국의 한국 외교 특별 전문 분석가(2006-2007)와 주한 일본 대사관의 한국 정치 특별 보좌관을 역임하였다(2002-2004).

니시노 박사는 게이오 대학에서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Prof. NISHINO Junya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Faculty of Law and Politics, Keio University in Tokyo, Japan. He also serves as a director of the Center for Contemporary Korean Studies at Keio University. His research focuses on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and Japan-Korea relations.

Prof. Nishino served as a research fellow at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and visiting scholar at the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 2012-2013. He was also an exchange scholar at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in 2011-2012.

Previously, he served as a special guest analyst on Korean affairs in the Intelligence and Analysis Service of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2006-2007 and was a special assistant on Korean politics at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in 2002-2004.

Nishino received his BA and MA from Keio University and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Yonsei University in South Korea.

Session 5-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상과 역량강화 Envisioning and Empowering for Korea Peace Process

주관기관
Organized by

평화공공외교협의회
The Council for Peace and Public Diplomacy

좌장
Moderator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MOON Ah Young PEACEMOMO, CEO

패널
Panelist

- 하성웅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총무
- HA Seongung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General Secretary
- 이한빛 한국YWCA연합회 간사
- RHEE Hanbeet National YWCA of Korea, Program Officer
- 한가선 피스모모 동북아청년대화 코디네이터
- HAN Gasun PEACEMOMO YPS Coordinator
- 엄익호 오!각별 대표
- UM Ikho Oh!Special, Representative
- 김종대 리제너레이션무브먼트 공동대표
- KIM Jongdae Re'Generation Movement, Executive Director
- 메리 조이스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동북아시아 지역 보고관
- Meri JOYC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Northeast Asia Regional Liaison Officer
- 오경진 평화공공외교협력단 단원
- OH Gyeongjin Peace and Public Diplomacy Corps (PPDC), Member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5-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상과 역량강화

평화공공외교협의회는 2021년 두 번째 세션 주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의 생각과 평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이 갖고 있는 희망과 비전을 정리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nvisioning and Empowering for Korea Peace Process

The Council for Peace and Public Diplomacy (CPPD) intends to share thoughts and opinions on peace as the theme of the second session of 2021. In addition, we plan to organize the hopes and visions they have so that they can be continuously reflected in related policies rather than a one-time workshop.

좌장 Moderator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MOON Ah Young

PEACEMOMO, CEO

문아영은 피스모모 대표이자 국제평화사무국 집행위원이다.

그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기 상임위원이기도 하며 교육부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이다.

Moon A-Young is the Representative of PEACEMOMO.

She is also a Council member in the International Peace Bureau and a Central committee member in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She is National Curriculum Policy Advisory Committee in Ministry of Education

패널 Panelist



하성웅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총무

HA Seongung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General Secretary

하성웅 총무는 2009년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했다. 이어 2013년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Th.M) 졸업했다.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 부총무직을 수행, 이어서 2014-2016년도까지 감리교청년회에서 전국연합회 총무직을 맡았다. 2017-2019년도엔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간사 생활을 했다. 하성웅은 2020년도 이래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총무이다.

Mr. HA Seongung graduated from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Korea, in 2009 and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theology from the Graduate school of the same university in 2013.

His previous association included a Deputy General Secretary in the Methodist Youth Fellowship in Korea in 2013-2014. Then, from 2014-2016, he served as Deputy Secretary of the National Methodist Youth Fellowship, Korea. Between 2017-2019, his devotion included his role as a secretary in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EYCK). From 2020 to the present, he now serves as the General Secretary at EYCK.

Session 5-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상과 역량강화
Envisioning and Empowering for Korea Peace Process

초록

하성웅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총무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는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오이쿠메네, oikoumene)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결단하는 기독교청년 연합운동단체입니다.

본 단체는 1970년대 군사독재 아래서 민중들이 억압받던 시기에, 억압 없는 민주적 사회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며 활동해왔고, 19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통일운동을 지속해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의제들을 생명과 평화의 가치로 풀어내는 생명평화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는 생명평화운동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불평등의 문제, 환경과 생태 등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독교청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의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관련 한 프로그램으로는 기독교청년 통일이카데미, 정의와 평화의 순례, NCCK화해통일위원회 참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불평등의 문제와 관련한 프로그램으로는 청년빈곤 공무모임, 청년빈곤 심포지엄, 청년의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독교청년 탈핵아카데미, 생명평화순례, 방사능지도그리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독교청년들의 평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기독교청년 평화캠프, 평화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Session 5-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상과 역량강화
Envisioning and Empowering for Korea Peace Process

Abstract

HA Seongung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General Secretary

The Christian Youth Council of Korea is a Christian Youth Alliance organization determined to build a world full of life and peace (Oikoumene, oikoumene) on this land.

Our organization worked to make society respected during the 1970s when the people were oppressed under military dictatorship. We continued with our unification movement when the civil government took place in the year of 1990s. In the year of 2000, we continued to spread different kinds of Korean society issues and worked on a life-peace movement.

Currently, the Christian Youth Council of Korea is focusing on issues such as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inequality, environment and ecology, and is working to solve these agendas in the life of Christian youth.

Programs related to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e the Christian Youth Unification Academy, pilgrimage to justice and peace, and participation in the NCCK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Committee.

Programs related to economic inequality include youth poverty official meetings, youth poverty symposiums, youth festival projects, etc.

Regardi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issues, we are conducting the Christian Youth Denuclearization Academy, life peace pilgrimage, and drawing radioactive maps.

In addition, we are conducting a peace camp for Christian youth and a peace workshop to foster peace sensitivity for Christian youth.

패널 Panelist



이한빛

한국YWCA연합회 간사

RHEE Hanbeet

National YWCA of Korea, Program Officer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학과 석사 졸업
-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 운동, 국제 연대 담당 간사
- 2019~현재 움트다 운영위원회 위원
- 2014~현재 세계교회협의회(WCC) 청년위원회 위원 / 중앙위원회 청년 자문위원
- 2018~2021년 3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
- 2020년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직원
- 2019년 이화여자대학교 다락방전도협회 전도사

- National YWCA of Korea / Program Officer for Gender Equal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Ewha Womans University / Master Degree in Christian Studies
- 2019~Present WUMTDA / Steering committee member
- 2014~Present World Council of Churches / Youth Advisor of Central Committee / Commissioner of ECHOS Commission
- 2018~2021 March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Committee member
- 2020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 Staff
- 2019 Ewha Womans University Chaplain's office / Preacher

초록

이한빛
한국YWCA연합회 간사

1.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교회협의회는 2013년에 PJP(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정의와 평화의 순례)를 새로운 방향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PJP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평화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이전에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오랜 활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WCC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한반도 평화 이슈 활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WCC는 남북교회 대표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었고, 남북교회 대표들은 한반도 평화조약을 위한 활동 등을 논의하고 합의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저는 2016년 11월 홍콩에서 진행되었던 한반도 '평화조약에 관한 에큐메니칼 국제협의회' 청년대표로 참석하였고, 2018년 WCC 중앙위원회에 참여하여 북한 교회 대표단을 만났으며, 2019년에는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와 함께 '한반도 정의와 평화의 순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반도 정의와 평화의 순례(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in Korean Peninsula)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그러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청년들은 한반도의 오래된 아픔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러나 청년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을 촉구했고, 한국을 포함하여 16개국의 80여명의 청년들이 6박 7일 동안의 순례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2018년 WCC 중앙위원회에서 만난 북한교회 대표단과의 만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연령대가 높은 남성 중심으로 대표단이 꾸려졌었다면, 이때에는 젊은 여성들도 대표단으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연령대가 비슷하다보니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에큐메니칼 기관

WCC에서 활동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여러 에큐메니칼 기관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2018년 12월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에는 평화조약캠페인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러시아, 터키, 그리스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정교회 지도자 및 담당자, 국회의원 등의 정책 담당자, 기자 등을 만나면서 한반도 평화 및 평화조약 체결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에서는 직원으로 일하면서, '화해.평화 좌담회'를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매달 한반도 평화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함께 관련 장소를 방문하거나 연사를 초청하여 세미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3. 개인적 관심과 활동

저는 한국 전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외가, 친가의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한국전쟁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저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모두 한국전쟁 당시, 혹은 그 직후에 남한으로 온 실향민입니다. 두 분은 남한에서 만나

Session 5-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상과 역량강화

Envisioning and Empowering for Korea Peace Process

재혼을 하셨는데, 할아버지에게는 북한에 두고 온 두 딸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는 북한에 언니들이, 저에게는 만나지 못한 이모들이 있다는 것은 제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친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강원도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 징집되었다가 후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오랫동안 이 일이 깊은 상처이자 트라우마였고, 역사적 소용돌이 앞에 이 사실을 숨긴 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가족사로 인해 저는 한반도 슬픔의 역사에 더 깊이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이 된 이후,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단체와 함께 북한에 비타민 나무를 심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함께 활동하면서 북한의 상황과 필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활동이 이후 에큐메니칼 단체에서의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Session 5-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상과 역량강화
Envisioning and Empowering for Korea Peace Process

Abstract

RHEE Hanbeet
National YWCA of Korea, Program Officer

1.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In 2013,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decided on its new direction as PJP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and has been engaged in its movement since then. PJP covers various peace agenda inclu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s a long history of activities related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2014, I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WCC activities on various issues related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CC provides forums for representatives from North and South Korean churches to gather and talk with each other, facilitating discussions, agreements and implementation of activities for a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I participated as a youth representative in the Ecumenical International Council on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held in Hong Kong in November 2016, the WCC Central Committee in 2018, where I met with the North Korean church delegation, and the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in Korean Peninsula Program in 2019 with the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EYCK).

The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in Korean Peninsula is a meaningful program in many ways, in particular, in that it is a program organized by the young people for the young people. During the 7-day long program attended by about 80 people from 16 countries, young Christians from Korea called for the participants' interest in the long-standing pain and unresolved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are being forgotten by the youth of today.

My encounter with the North Korean church delegation at the WCC Central Committee in 2018 also left me with a strong impression. Prior to this, the delegation consisted mainly of older men. During this committee meeting, the delegation also included young women. In particular, since we were of similar age, we were able to develop strong bonds in our conversations.

2. Ecumenical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my involvement in WCC, I have also been engaged in activities related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rganized by many ecumenical organizations in Korea.

I became a member of the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Committee under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in December 2018. In 2019, I visited Russia, Turkey, and Greece to urge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peace treaty campaign. I met with Orthodox Church leaders and officials, policy makers such as lawmakers, and journalists to inform them of the importance of peace on the

While working as an employee for the Korean Mission of the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I helped organize and hold Reconciliation and Peace Conference. It was a monthly event, involving visits to related places with people interested 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eminars with guest speakers among others.

3. Personal Interests and Activities

I was raised with heavy influence of the Korean War because the lives of both my maternal and paternal grandparents were deeply

Session 5-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상과 역량강화

Envisioning and Empowering for Korea Peace Process

related with the Korean War.

My maternal grandparents are both displaced persons who came to South Korea during or immediately after the Korean War. The two met in South Korea and remarried. My grandfather had two daughters that he left behind in North Korea. It was when I was a teenager that I learned about my mother having older sisters and myself having aunts that I have never met before in North Korea.

Meanwhile, my paternal grandfather was a teenager living in Gangwon-do Province during the Korean War. He was drafted into the People's Army during the Korean War and later imprisoned in Geoje POW camp. This experience left him with a deep and long-lasting wound and trauma, and he had to live with this past hidden from the others amidst historical turbulence.

Such family history of mine gave me deeper sympathy with the history of sorrow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est in the issu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I became a young man, I took my first small step in this journey by initiating an activity to plant vitamin trees in North Korea with an international diaspora group. Subsequent participation in other activities has allowed me to learn more about the situation and needs of North Korea.

Such interest and involvement naturally led to my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of ecumenical organizations.

패널 Panelist



한가선

피스모모 동북아청년대화 코디네이터

HAN Gasun

PEACEMOMO YPS Coordinator

한가선은 북한과 남한출신 청년들이 함께 문화적 요소를 매개체로 교류하며 관계망을 쌓아갈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한다.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석사를 마쳤으며, 현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 상임위원, 통일부 인도협력분과 정책자문위원, 남북하나재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피스모모가 주최하는 '동북아 청년 평화활동가 사회적 대화'를 기획 및 진행하고 있으며, 유엔 DPPA의 동북아시아 청년평화안보 워크숍에 운영위원으로 함께 하는 등 국제적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HAN Gasun organizes diverse culture exchange programs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 youths in their 20-30s. She received her Master's in Sociology from Sungkonghoe University. She currently serves as a standing member of the Youth committee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dvisory committee member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Advisory member of Korea Hana Foundation. She works as a PEACEMOMO YPS Coordinator to organize "Northeast Asia Youth Peacebuilders Social Dialogue", and also participates in UN DPPA's Northeast Asian YPS Workshop as a steering committee member.

동북아시아 청년 피스빌더 사회적 대화

한가선
피스모모 동북아청년대화 코디네이터

- **활동** 동북아시아 청년 피스빌더 사회적 대화 Northeast Asia Youth Peacebuilders Social Dialogue (약칭: 동북아청년대화 NEA-YPSPD)
- **배경** 2020년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로 위촉된 이대훈님께서 주신 제안으로 2021년 상반기에 '동북아청년대화' 시즌1을 기획함. 피스모모가 주최하고 국제평화국(IPB)과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PAC)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음.
- **목적** 피스빌더로 활동하는 동북아 지역의 청년들 연결하기. 동북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평화'관련 또는 '갈등' 이슈에 대해 청년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서로 배움과 확장이 일어나는 관계를 형성.
- **참여** 총 27명이 참여 (한국, 중국(대만&홍콩 포함), 일본, 몽골, 미국)
- **시즌1 대화** (1회 당 2시간 30분씩 진행)
 - 1) 민주주의와 평화구축
 - 2)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정세
 - 3) 코로나19와 평화구축
 - 4) 동북아 평화구축의 비전 공유
- **특색**
 - 1) 청년들이 시작 단계부터 직접 기획하여 주제와 내용을 꾸리고 직접 진행함.
 - 2) 농담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대화 분위기를 형성.
- **결과**
 - 1) 동북아 및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함께 편안하고 수용적인 공간에서 지식, 생각, 감정 등을 공유하는 경험을 함.
 - 2)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
 - 3) 각자의 위치에서 동북아 평화구축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또는 함께 어떠한 장기적인 비전을 세울 수 있을지 미래지향적인 논의와 약속을 함.
- **생각거리**
 - 1) 집단(국가적) 정체성이 열어지고 개별 정체성이 교차하는 경험.
 - 2) 개인의 서사를 공유하는 연결의 힘.

Session 5-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상과 역량강화
Envisioning and Empowering for Korea Peace Process

Social Discourse of Northeast Asian Youth Peacebuilders

HAN Gasun
PEACEMOMO YPS Coordinator

■ **Activity** Northeast Asia Youth Peacebuilders Social Dialogue (abbreviation: NEA-YPSD)

■ **Background:** In the first half of 2021, Season 1 of 'Northeast Asian Youth Dialogue' was planned with a proposal from Lee Dae-hoon, who was appointed as 'Goodwill Ambassador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2020. It was a program hosted by PEACE MOMO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and the Global Partnership for Armed Conflict Prevention (GPPAC).

■ **Purpose** To connect young people in Northeast Asia who are working as peacebuilders. By providing a 'safe space' where young people can freely share their thoughts on various 'peace'-related or 'conflict' issues in Northeast Asia, a relationship of learning and expansion was created.

■ **Participation:** A total of 27 participants (Korea, China (including Taiwan & Hong Kong), Japan, Mongolia, USA)

■ **Season 1 Dialogue** (2 hours and 30 minutes per session)

- 1) Democracy and Peacebuilding
- 2) Military tension and status in Northeast Asia
- 3) Covid 19 and peace building
- 4) Sharing the Vision for Peacebuilding in Northeast Asia

■ **Characteristics:**

- 1) Young people planned from scratch, organized themes and contents, and operated.
- 2) Creating a natural conversational atmosphere where jokes and laughter do not cease.

■ **Results:**

- 1) Experience sharing knowledge, thoughts, and emotions in a comfortable and accommodating space with young people in Northeast Asia and other regions.
- 2) Form complementary relationships.
- 3) Engage in future-oriented discussions and promises about how each position can contribute to peace-building in Northeast Asia or what long-term vision can be established together.

■ **Things to think about:**

- 1) An experience in which group (national) identities fade and individual identities intersect.
- 2) The power of connection to share personal narratives.

패널 Panelist



엄익호

오!각별 대표

UM Ikho

Oh!Special, Representative

엄익호는 남북청년 문화교류모임 오! 각별의 대표이며 민주평통 자문회의 청년분과 상임위원이다. 오!각별은 남북청년들이 2018년에 만든 단체로 북한의 언어, 음식, 놀이, 예술 등의 문화를 남한에 전파하는 활동을 하며, 궁극적인 단체의 목적은 남북 청년들이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전에, 엄익호는 원불교 남북교류단체 한민족한삶운동본부에서 간사로 일했다. 엄익호는 그곳에서 기획부터 회계 정산까지 1억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총괄하며 정서적 정착 사업을 진행했다.

게다가 엄익호는, 통일부와 통일교육원, 남북하나재단, 통일NGO 등을 대학생 때 경험했다. 그곳에서 기회를 얻어 미국과 중국 일본을 통일과 평화라는 주제로 다녀왔다.

현재 엄익호는 젊은 청년들의 통일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Mr. UM Ikho is the President of 'Oh! Special, the youth of the two Koreas Cultural Exchange,' a social organization, and a standing member of the Youth department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The Oh! Special is an organization founded by young people from South and North Korea in 2018, and its mission is for South and North Korean youths to form friendships by spreading the North Korean culture in language, food, play, and art.

Previously, Mr. Um worked as an assistant administrator at the Head Office of One Life Movement, a Won Buddhism's inter-Korean exchange group. He managed settlement assistance for North Korean defectors, a project with a 100 million KRW budget, which he oversaw from planning to accounting settlement.

In addition, Mr. Um worked 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e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the Korea Hana Foundation, and the Unification NGO when he was in college. Through the associations, he visited foreign countries to promote unification and peace,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His current involvement with various organizations aim to raise awareness of Korea's unification among the young.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상과 역량강화

엄익호
오각별 대표

오각별은 남북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만든 남북청년 문화교류 단체입니다. 우리는 남한 청년 셋, 북한 청년 셋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을 필두로 약 10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2017년부터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남북의 문화, 그 중 특히 북한의 문화를 남한 사회에 전파하는 활동을 합니다. 언어, 놀이, 음식, 예술, 생활 등의 다양한 문화 영역을 다루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단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북의 청년들이 동등한 위상을 갖고 대등하게 교감합니다. 주인과 손님의 경계 없이 모두가 주인 의식으로 자발적으로 어울립니다. 둘째, 북한 문화는 북한 청년들이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남한 문화에 종속되면서 상실했던 주체성을 회복하고, 타인에게 가르치고 베풀며 자존감을 높입니다. 셋째,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닌 즐거움과 호기심으로 모이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경직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탈피하며 자유롭게 관계를 맺고 친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우리 단체의 주력 활동은 북한 카드놀이 '사사끼'입니다. 이 놀이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북에서 불린다고 합니다. 4명이 둘러앉아 카드를 치는 이 간단한 놀이를 통해 다양한 남북 청년들과 어울렸으며, 사사끼 대회도 열고, 사사끼 카드를 제작해 텀블벅 후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 <북한 음식 만들기>, 북한 농촌 체험을 하는 <삼시세끼_윗동네편>, 낮에는 레저를 즐기고 밤에는 토론을 즐기는 <쿨스키 핫토크>, 북한 영화를 관람하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북한 영화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단체들과의 협업하고 각종 대회에 입상하고 공모사업 운용하는 등 경계 없이 다양한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각별은 평화란 모두와 친구가 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념 위에서 앞으로도 남과 북 청년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친구가 되어가는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Session 5-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상과 역량강화

Envisioning and Empowering for Korea Peace Process

Initiatives and Capacity Building for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UM Ikho

Oh!Special, Representative

Oh!Gakbyeol is a cultural exchange organization for North and South Korean youths created independently by young adults of the two Koreas. Our organization of about 100 members have launched various activities since 2017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teering Committee consisting of three South Koreans and three North Koreans.

Our group is committed to spreading South Korean culture in North Korea and vice versa,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latter. We cover a variety of cultural domains such as language, play, food, art and life to facilitate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Our organization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young people of North and South Korea have equal status and communicate on an equal footing. Everyone interacts with each other based on spontaneity and a sense of ownership, without any boundary that divides owners and guests. Second, education of North Korean culture is provided by the North Korean youth. This promotes recovery of the identity that has been lost by being subordinated to South Korean culture and boosts self-esteem by giving them opportunities to teach and give to others. Third, everything has to be fun. Our group seeks to come together for pleasure and curiosity rather than for a specific purpose. This allows u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eople can break free from rigid and coercive atmosphere to foster and develop relationships freely.

The main activity of our group is focused on a North Korean card game called Sasaki. This is such a popular game in the North that if you do not know the game, you would be called a spy. This simple card game for four facilitated interactions among many young people from North and South Korea. We also held Sasaki Competitions and made our own Sasaki cards, which was sponsored by Tumblbug. We also organized events such as <Making North Korean food>, <Three Meals a Day_Uptown Neighborhood> offering North Korean rural experience, <Kulsky Hot Talk> offering leisure activities during the day and discussion at night, and <North Korean Movie Day> for watching and discussing North Korean movies together. We aim to introduce a diversity of activities without any boundary, including collaborating with other groups, entering competitions, and organizing contests.

We, Oh! Gakbyeol, believe that peace means becoming friends with everyone. We will build on this belief to promote interactions and friendship among young people from the two Koreas.

패널 Panelist



김종대

리제너레이션무브먼트 공동대표

KIM Jongdae

Re'Generation Movement, Executive Director

김종대, 리제너레이션무브먼트 공동대표는 정치적 난민으로 망명 중이던 가족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났다. 갈수록 다양화되어가는 시대적 맥락 속 공존과 사회통합에 대한 고민으로 비영리단체 Re'Generation Movement 를 아내와 함께 설립하여 활동 중이다. 미국의 난민, 이민자 출신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화합과 평화에 관련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작은 씨앗들을 심고 있다. 최근 난민을 향한 한국 교회의 고민을 돕기 위해 [교회, 난민을 품다]라는 책을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했다. 미국 에모리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와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졸업했다.

Mr. KIM Jongdae was born in the US as his family had fled South Korea as political refugees. Living in an ever more pluralizing world, he co-founded the Re'Generation Movement with a mission to make society a more welcoming and integrated place for diverse groups of people. By educating diasporic youths with refugee or immigrant experiences and creating rooms for conversations on peace, Mr. Kim plants small seeds that hopefully will bloom as a more hospitable society. Recently, he translated a book, 'Seeking Refuge' into Korean to help the Korean churches as they try to figure out their roles in the current refugee crisis. He received a bachelor's degree in sociology, and a master's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Emory University.

Session 5-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상과 역량강화
Envisioning and Empowering for Korea Peace Process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청년대화

김종대
리제너레이션무브먼트 공동대표

현재 우리는 세계화 되고 또한 다원화 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세계시민'이라는 정체성은 평화를 위해 우리가 품어야 할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디아스포라 (empowering peacemaking global diasporas)'라는 미션을 가지고 특히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대학 입시 교육과 더불어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며 평화가 필요한 어느 곳이든 연대할 수 있는 세계시민들을 양성합니다. 또한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시민들의 네트워크인 '코리아피스나우 (Korea Peace Now!)'와 더불어 풀뿌리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ession 5-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상과 역량강화
Envisioning and Empowering for Korea Peace Process

International Youth Dialogue on Korea Peace Process

KIM Jongdae

Re'Generation Movement, Executive Director

Today, we are living in an era of globalization and pluralism. In navigating this wave, the identity as a 'global citizen' is a value we must all embrace to achieve peace. With the mission of empowering peacemaking global diasporas, the Regeneration Movement is dedicated to provid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long with university entrance education to youth with a diaspora identity as well as nurturing global citizens who can demonstrate solidarity wherever peace is needed. In addition, it is involved in grassroots movements along with Korea Peace Now!, a network of global citizens with aspiration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iaspora of Korean Americans.

패널 Panelist



메리 조이스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동북아시아 지역 보고관

Meri JOYC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Northeast Asia Regional Liaison Officer

메리 조이스는 국제조정관이자 평화보트 동북아시아 지역 연락담당관으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PPAC)'에서 근무중이다. 조이스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비롯하여 일본과 동북아 내 다양한 평화프로세스 및 무장해제 관련 프로그램을 조율한다. 동북아시아평화건설연구소(NARPI) 운영위원이며 위민크로스DMZ (Women Cross DMZ)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그녀는 2020년 통일부장관 지정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로 위촉됐다.

An International Coordinator, Peace Boat Northeast Asia Regional Liaison Officer,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Meri coordinates various peacebuilding and disarmament-related programs within Japan and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civil society-led Ulaanbaatar Process. She is on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NARPI) and an Advisory Board Member of Women Cross DMZ. In 2020, she was appointed as a Goodwill Ambassador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the Republic of Korea Minister for Unification.

비전 구상과 권익 신장: 지역적 관점

메리 조이스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동북아시아 지역 보고관

한반도의 평화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더 넓은 동북아 지역, 나아가 전 세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간 경쟁과 긴장이 고조되고 코로나 19 팬데믹과 기후 위기가 우리의 삶과 생계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면 동북아 지역 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알 수 있다. 현재진행형인 한국전쟁의 비극적 상황과 군국주의, 불신 등 영속적인 영향 등 잔존하는 냉전 구조와 역대 핵무기의 존재는 동북아의 평화 구축과 유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시에 동북아 전체에 걸쳐 추진력을 얻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동북아 내 여러 지역에서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서로를 이어주는 가교를 놓고, 문화나 스포츠, 또는 기후나 평화를 위한 행동을 통해 교류의 기회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이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다. 동북아시아에는 약 3억 명의 젊은이들이 살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거대한 집단이다. 이처럼 다양한 도구와 국경을 넘어서 소통에 익숙하고 서로를 연결해줄 기술까지 갖춘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오늘 패널 토론을 통해 듣게 될 놀라운 구상들과 더불어 젊은이들은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에서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뜻을 함께 하고, 피스보트에서 함께 여행하며 관계를 쌓고 꿈과 좌절을 공유하며, GPPAC의 시민사회 주도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DMZ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시작하고,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ICAN)을 통해 실제로 핵무기를 금지하는 등 수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필자가 속한 피스보트는 위에 나열된 구상에 전부 참여하고 있다.

역내 행동 및 양자간 행동은 의심할 여지없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지역적 접근을 통해 함께 모여 대화와 협력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 공통의 정체성과 공통의 진정한 안보를 함께 모색하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교육 받고,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가상 및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 시민 사회, 정부, 학술 기관, 지역 조직, 민간 부문 등 모두가 이러한 권익신장을 위한 공간 확보에서 해야 할 몫이 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유의미한 참여를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 진정한 안보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포용적인 지역 메커니즘을 촉진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피스보트와 GPPAC는 동북아 내 모든 지역과 모든 분야의 파트너들과 힘을 합쳐 한국 전쟁과 한반도 분단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를 핵무기와 핵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오늘날의 긴장, 불신, 적대감, 경쟁을 새로운 미래의 대화, 협력, 지속가능한 평화, 진정한 인간안보로 바꿔 나갈 수 있길 고대하고 있다.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https://gppac.net/>

GPPAC 동북아시아: <https://gppacnea.org/>

피스보트: <https://peaceboat.org/english/>

meri@peaceboat.gr.jp

Session 5-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상과 역량강화

Envisioning and Empowering for Korea Peace Process

Envisioning and Empowering: A Regional Perspective

Meri JOYC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Northeast Asia Regional Liaison Officer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is crucial not only for the Korean people, but also for the broader Northeast Asian region, and indeed for the entire world. As we see increasing competition and tensions between the major power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severe and ongoing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climate crisis on our lives and livelihoods, the need for more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even more urgent than before. The continued existence of nuclear weapons and remnant Cold War structures in our region, including the tragic situation of the ongoing Korean War and its perpetuating impacts such as militarism and mistrust, are obstacles to 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in Northeast Asia.

At the same time, there are also exciting signs of hope and visions for the future gaining momentum throughout our region. Youth are standing up for their futures and to create the kind of society they want to live in - whether in building bridges online with youth from other parts of the region, creating opportunities for exchange through culture or sports, through actions for climate or for peace, and many more ways. Northeast Asia is home to around 300 million young people – a huge cohort, even from a global perspective. With the technical connectivity and familiarity of youth with both such tools and with connecting beyond borders, there is enormous potential. As well as the incredible initiatives we will hear about through the panellists today, young people are coming together across conflict divides to share their visions for a peaceful future through the 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NARPI); building relations and sharing their dreams and frustrations as they travel together onboard Peace Boat; coming together across the DMZ in dialogue as part of GPPAC's civil-society led Ulaanbaatar Process; or together actually banning nuclear weapons through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 all initiatives my organisation Peace Boat is engaged in.

Local and bilateral actions are no doubt very important. At the same time, coming together through a regional approach, building safe spaces together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and searching together for a common identity and common and genuine security is also vital. We need to see more and more opportunities to reach out beyond borders be created, both virtually and physically, to empower young people to be educated, engaged, active and excited toward the future. All of us - whether civil society, governments, academic institutions, regional organisations, private sector or more - have a role to play in securing that space. We have a role to play in providing funding, support and channels for young people to be meaningfully involved and to be enabled to take the lead. And, importantly, we all have a role in working together to facilitate inclusive regional mechanisms for peace, genuine security and sustainability in Northeast Asia. As Peace Boat and GPPAC, we look forward to working together with partners from all parts of the region, and from all sectors, to each contribute to ending the Korean War an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 creating a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n region and world free from nuclear weapons and nuclear threats, and towards transforming current tensions, mistrust, hostility and competition into a new future of dialogue, cooperation, sustainable peace and genuine human security.

Session 5-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상과 역량강화

Envisioning and Empowering for Korea Peace Process

For more information: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https://gppac.net/>

GPPAC Northeast Asia: <https://gppacnea.org/>

Peace Boat: <https://peaceboat.org/english/>

meri@peaceboat.gr.jp

패널 Panelist



오경진

평화공공외교협력단 단원

OH Gyeongjin

Peace and Public Diplomacy Corps (PPDC), Member

동국대 북한학과 (2019년 입학)

2020 평화공공외교협력단원

2021 평화공공외교협력단원

통일부장관 우수단원상 (2020)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대학생 인턴 (2021~)

Department of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ersity (Admissions in 2019)

Member, 2020 Peace and Public Diplomacy Corps

Member, 2021 Peace and Public Diplomacy Corps, Member

Excellence Award, Minister of Unification (2020)

Intern,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2021~)

Session 5-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상과 역량강화
Envisioning and Empowering for Korea Peace Process

평화공공외교를 통한 청년연대

오경진
평화공공외교협력단 단원

2020년에 발족한 평화공공외교협력단은 민주주의와 평화, 공공외교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모인 청년 연대 단체로서, 국내외 24개 시민사회단체와 대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선발한 2기 국내외 단원 84명은 국제 교류와 역량 강화를 통해 한반도 및 각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공공외교 활동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단원들은 한반도국제평화포럼 등 학술 행사에 라포터(Rapporteur)로 참여하여 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한반도평화아젠다 모니터링, 한국 민주주의 청년 공공외교 등 9개 팀으로 나뉘어 학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평화공공외교협력단은 나아가 전세계 청년들이 평화적인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차세대 국제협력의 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Session 5-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상과 역량강화

Envisioning and Empowering for Korea Peace Process

Youth Alliance via Peace and Public Diplomacy Corps

OH Gyeongjin

Peace and Public Diplomacy Corps (PPDC), Member

The Peace and Public Diplomacy Corps, launched in 2020, is a youth solidarity group of young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democracy, peace, and public diplomacy, and is operated by 24 civic groups and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and abroad. The 84 domestic and foreign members selected this year are focusing on public diplomacy activities for democrac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ch country via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apacity building. Korean members are developing their capabilities by participating in academic events such as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Peace Forum as rapporteurs, and they are divided into nine teams to focus on monitoring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enda and public diplomacy for youth in Korean democracy. As such, the Peace and Public Diplomacy Corps will further grow into the next gener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here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can cooperate for a peaceful future.

Session 5-4

미래 남북산림협력을 위해 함께 가야할 길 Paving the way for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주관기관
Organized by

국립산림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좌장
Moderator

박현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PARK Hyun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President

발표
Presenter

- 최형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장
- CHOI Hyungsoon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Director
-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
- JEON Seong Woo Korea University, Professor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학부총장
- YANG Moonso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Vice 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토론
Discussant

- 탕 쉹야오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협력연락사무소 소장
- TANG Shengyao FAO Partnership and Liaison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FAO Representative and Head of FAO PLO in ROK
- 이용권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장
- LEE Yong-kwon Korea Forest Service, Director
- 김일한 동국대학교 DMZ평화센터 연구위원
- KIM Il-Han Dongguk University DMZ Peace Center, Research Fellow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5-4)

■ 미래 남북산림협력을 위해 함께 가야할 길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협력을 재개한 산림분야에서 그간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기 위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 북한의 제8차 당대회 발표 등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세변화와 함께 다가올 대선 등 내부의 변화 등 침체된 남북산림협력을 타개할 수 있는 기회의 지점에 있다. 향후 변화예측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정부, 국제기구, 민간 등 각계각층의 토론을 통해 남북산림협력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모멘텀을 제시하고자 한다.

■ Paving the way for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It was the forest sector that resumed inter-Korean cooperation after the Panmunjom Declaration in 2018. Since then, we have prepared a forum for discussions on the achievements of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and preparations for a new turning point. There are several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including the Biden government of the U.S. and the North Korea's 8th party congress, etc. It can be seen as a good time to prepare for a new momentum for the currently sluggish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We would like to present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through discussions at various levels on the prediction of future changes.

좌장 Moderator



박현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PARK Hyun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President

서울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토양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임업연구원(국립산림과학원 전신) 산림미생물과 연구사를 시작으로 2021년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재직중이다. 한국산림과학회 부회장, 한국목재공학회 이사, 국회 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Dr. Park Hyun is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Korea. He started working as a research scientist in Forest Microbiology Division at the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the former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in 1994. His previous responsibilities include being a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a Director of the Wood Society of Korea, and a steering committe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 He holds a Ph.D. in Soi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an MS, and a BA in Forestr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발표자 Presenter



최형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장

CHOI Hyungsoon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Director

서울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5년 국립산림과학원에 입사 후, 임목육종, 증식기술 개발, 집단유전학, 난아열대 산림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국제산림연구과장으로 재직중이며 남북산림협력 및 국제협력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Dr. CHOI Hyungsoon leads the Division of Global Forestry at NIFoS. He joined NIFoS in 2005 and started his career with research on forest tree breeding. His research interest is related to the forest ecosystem, vegetation, silviculture with a Ph.D. in tree growth performance and M.Sc. in genetic linkage mapping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He is studying on Inter-Korean forest science exchang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초록

최형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장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협력은 재개되었다. 그 첫번째 협력분야로 산림부문이 선정되었으며, 양측은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공동대응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남북이 합의한 사항은 양측이 그간 경험이 축적된 분야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헐벗은 산림을 성공적으로 녹화한 유일한 국가이다. 남북산림협력은 북한이 겪고 있는 산림황폐화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우리나라가 가진 한반도에 최적화된 산림과학기술을 통해 한반도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경색국면은 아직까지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은 북한의 도전과 기회의 요인을 제공했다. 북한은 2021년 1월에 개최한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앞으로의 5년에 관한 계획을 공표하며 지난 5년간의 실패를 자인하며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드러냈다. 올초 코로나로 인해 봉쇄되었던 북중 무역이 재개되면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듯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국제관계 안에서 새로운 변곡점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자로 북한은 유엔에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에 관한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전지구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국가개발목표와 SDGs를 일치시킴으로써 북한 체제에 대한 유지가 국제질서에 맞춰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북한의 목표달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대북제재와 봉쇄, 코로나 등의 문제를 짚으며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직접적으로 국제협력에 관한 여지를 제공하며 전지구적 목표달성이라는 대의를 위해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목표 15와 같이 산림분야의 밀접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북한의 산림복구전투의 성공적이 이행과 이를 뒷받침할 양묘장의 현대화,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 상당수가 남북산림협력 합의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남북산림협력에 관한 기회가 많음을 시사한다.

북한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과 SDGs 달성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심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대북제재로 인해 대북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가능한 것부터 무엇인지 찾을 필요가 있다. 과거 남북관계의 부침이 있는 상황에서도 연구교류를 기반으로 한 협력성과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산림과학기술 교류를 기반으로 한 능력배양 및 역량강화 협력은 북한의 산림분야 국제협약 이행 수단을 정교화하고 산림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의 산림복구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지원하고 산림황폐화 극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상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Abstract

CHOI Hyungsoon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Director

South-North cooperation resumed with the 2018 Panmunjom Declaration. Forest sector has been chosen as the first area of collaboration, and the two Koreas agreed on key areas, such as modernization of tree nurseries and joint-responses to forest disasters, such as forest disease and pest/forest fire/landslides. The agreed agenda are the areas that the two Koreas are experienced in. In particular, South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successfully restored its bare mountains after the Korean War. The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the North Korea's will to overcome multiple issues that it faces due to deforestation, and to expedite the recovery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South Korea's forest science technology that is tailored to the peninsula.

After the failure of the Hanoi Summit, the international relations surrounding the two Koreas is still stalemate. However, there is hope. The Biden administration that took house in 2021 brings bo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o North Korea. North Korea has announced its 5-year plan during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in January. It has admitted to its failure during the past five years, recognizing the challenges of North Korea sanctions and COVID-19. Now, the landscape is changing with the resumption of North-China trade that was closed earlier this year due to COVID-19. As can be seen, a new inflection point is up ahead amongst the diverse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surround the Korean peninsula.

On July 1st, North Korea has presented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SDGs to the UN. Through this, North Korea has shown that it is together with the rest of the world, as a member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achieve global targets. By conforming it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NDS) to SDG, it has shown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capable of maintaining its socialist regime within international order.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has pointed out that continued sanctions and blockade on the country, COVID-19 and such are the main obstacles in the government's effort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is urging to resolve them.

This paper provides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direct engagemen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ir will to collaborate for the greater cause of achieving global targets. In fact, a big part of the North Korea's goal is closely aligned to the agreements of the South-North forest cooperation. For example, goal number 15 is related to achieving forest related goals, such as successfully completing the measures to restore forests, modernizing tree nurseries, and to prevent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 and floods. This implies that there still are many opportunities for South-North forest cooperation.

There is a need to fully make use of North Korea's proactive response to glob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respons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chieving SDGs. Clearly, North Korea sanctions make it difficult to promote North Korea cooperation. So we need to distinguish the measures that we can take now, in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past, joint-research efforts have continued despite the volatile North-South relations. Cooperation to foster competencies and to enhance capabilities based on the exchange of forest science technology will contribute by specifying the measures to implement international agreements in the forest field, and will build the foundation for joint projects. We may maximize the synergy of the two Koreas by supporting objective assessment of North Korea's forest restoration actions and to fast track the recovery of deforestation.

발표자 Presenter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

JEON Seong Woo

Korea University, Professor

고려대학교 전성우 교수는 30년간 환경계획 정책분야 연구를 국책 연구소 및 대학에서 수행한 전문가이다. 199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에서 근무하며, 50여건 이상의 환경정보 및 시스템 구축, 자연환경분야, 기후변화대응 분야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연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5년도부터 고려대학교에서 근무하며, 환경영향평가, 자연기반 환경모델링을 기반으로 과학적 환경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반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난 약 30년간 100여편이 넘는 SCI 및 KCI 논문을 국내외 유명 학회지에 게재했다.

Professor JEON Seong Woo of Korea University is an expert who has conducted environmental planning and policy research for about 30 years at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From 1993 to 2015, he worked at the Korea Environmental Institute. Jeon served as a research director to establish more than 50 national policies such as big data, nature-based environmental planning,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Since 2015, he has been working at Korea University and has conducted primary research necessary for scientific ecological modeling. He has published more than 100 SCI and K.C.I. papers in prestig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s over the past 30 years.

한반도 생태공간 연계측면에서의 DMZ의 역할과 공간상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반도국가이나, 한국전쟁이후 1953년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고 DMZ라는 인위적인 장벽이 설치되면서 섬처럼 고립된 형태가 되었다. 그나마 서식하고 있었던 야생동식물들은 1960-70년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 질 악화, 서식처 훼손, 개체 및 종수 감소, 희귀동식물의 멸종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80년대 말부터 전국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서식하고 있는 자연자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2005년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수립을 통해 한반도 핵심생태축으로 백두대간, DMZ, 도서 연안의 3개 핵심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한강수도권, 태백강원권, 낙동강영남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의 5대 광역권역별 광역생태축을 지정하였다. 또한 이를 도시 내부까지 연결하기 위한 도시생태축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고립된 생태계에서 한반도의 생태계, 동북아와 연결된 살아있는 생태계로 연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동북아 생태네트워크의 구축 추진이 필요하며, 한반도 허리에 위치하며 장벽 및 생물서식처 역할을 수행 중인 DMZ의 의미를 파악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2015년 12월 1일 개정)에 의거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005년 수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는 한반도를 3대 핵심축과 5대권으로 나누어 환경보전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함을 명시하였다.(그림 1 참고)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0년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을 정부계획으로 발표하였다. DMZ일원(DMZ내부와 민통선 남방한계선 북쪽지역)은 60여년간 군사활동을 제외하고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되어 생물다양성이 높고 자연생태계가 잘 유지보전되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인 백두대간과는 남북으로 연결되고 도서연안지역과는 동서로 연결되는 한반도 핵심생태축이며 생태계의 중요지역이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생물종 멸종위기에 대처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생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고립된 남한의 생태계가 DMZ를 통해 북한의 백두대간에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0여년간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통해, 반달가슴곰을 지리산에 방사한 결과 안정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여 민주지산-덕유산-수도산-가야산으로 서식처를 확산한 것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인제 부근과 DMZ안에서 반달가슴곰이 발견되고 있어 지리산부터 백두대간을 거쳐 DMZ 내부까지 양호한 서식처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DMZ일원의 인공장애물들을 제거한다면 지리산부터 DMZ를 넘어 북한까지 서식영역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고립된 생태계가 아닌 연결된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속히 남북한 환경협력사업의 일환으로 DMZ일원 남·북생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UNDP가 참여하고 있는 TumenNET사업에서의 국경간 진단분석(TDA)과 UNESCO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와 같은 사업을 통해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생태네트워크 추진이 멀기 만한 꿈은 아닐 것이다.

The Spatial Role of DMZ in the aspect of ecological network on the Korean Peninsula

JEON Seong Woo
Korea University, Professor

Although Korea is a peninsular country,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divided the nation into two Koreas and set up artificial barriers between them, leaving the Republic of Korea a virtual island. In the 1960s and 1970s, native wild fauna and flora faced diverse threats, including the aggravation of environmental conditions, damage to habitats, reduction in the number of species and individuals per species, and extinction of rare flora and fauna. To cope with such circumstan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ducted a series of Natural Environment Surveys since the late 1980s to thoroughly examine living natural resourc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National Environment (2006–2015) was established in 2005. The Plan defined three core ecological axes (i.e.,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DMZ, and coastal & island ecological axes), the Basic Plan for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five regional ecological networks (i.e., Hangang River/Seoul Capital Area, Taebaek Mountains/Gangwon, Nakdonggang River/Yeongnam, Geumgang River/Chungcheong, and Yeongsangang River/Honam ecological networks). Furthermore, to create urban ecological networks that connect the aforementioned ecological axes into inner urban areas,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establish a relevant legal foundation by amending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this respect,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can cope with the issues of climate change and decreasing biodiversity, the isolated South Korean ecosystem must be actively connected to the broader Korean Peninsula ecosystem and the Northeast Asian ecosystem. To this end, the Northeast Asian ecological network, which involves not only the two Koreas but also China and Russia, must be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the significance of the DMZ as a barrier and habitat situated in the middle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identified, and strategies to reinforce its role must also be prepared.

Pursuant to Article 14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mended on Dec. 1, 2015),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ust establish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National Environment every 20 years. One such plan established in 2005 stipulated that the government must establish and implement plans to pre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country consisting of three core ecological axes and five regional ecological networks (see Figure 1). As a consequence, from 2008 to 2010, the government conducted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ecological network and announced a plan to establish the Korean Peninsula ecological network. Over the past 60 years, the DMZ region (inside the DMZ and the area between the SLL and CCL) has experienced minimal human interference except for some military activities, which has made it a high biodiversity region with a well-preserved ecosystem. Moreover, the DMZ region is a critical ecological region and one of the three core ecological axe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connects to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ecological axis in the north–south direction and to the coastal & island ecological axis in the east–west direction.

In this age of climate crisis, where radical climate change continues to threaten biodiversity, we must urgently establish the Northeast Asian ecological network to protect endangered species and eventually help ensure the survival of humanity. To that

Session 5-4

미래 남북산림협력을 위해 함께 가야할 길

Paving the way for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end, first and foremost, we must connect the isolated South Korean ecosystem, via the DMZ, to the North Korean s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Over the course of past 20 years, Asiatic black bears (*Ursus thibetanus ussuricus*) have been steadily released into Jirisan Mountain forests through endangered species restoration projects. As a result, the habitats of these bears have steadily expanded to include Minujisan Mountain, Deogyusan Mountain, Sudosan Mountain, and Gayasan Mountain. Asiatic black bears have also been identified in Inje County and within the DMZ, suggesting that favorable bear habitats have been formed, from Jirisan Mountain and Baekdudaegan Mountain Range to the DMZ. As such, if artificial barriers in the DMZ are removed in the future, Asiatic black bear habitats will be expanded from Jirisan Mountain to the North Korean territory via the DMZ. To transform the isolated South Korean ecosystem into one connected to a broader network, a joint ecological survey of the DMZ region must be conducted urgently, as part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n, as a subsequent step, we must shar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n ecological network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transboundary diagnostic analysis (TDA) of the Tumen River area, part of UNDP's TumenNet project, and in the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EABRN), a project led by UNESCO. At the same time, we must build an institutional basis for this cause. If such efforts come to frui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Eurasian ecological network that connects Asia and Europe will become a dream much closer to reality.

발표자 Presenter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학부총장

YANG Moonso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Vice 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양문수 교수는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교학부총장 겸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기자,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장(2019년) 등을 역임했다. 연구 분야는 북한경제, 남북경협, 남북경제공동체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한 국가전략: 개성공단 사업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Prof. YANG Moonsoo is the Vice 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and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His B.A. is in Economic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in 1985. His M.A. and Ph. D. in Economics are from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in 1997 and 2000, respectively. Previously a Reporter at Maeil Business Newspaper in 1988-1991, and Research Fellow at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 2000-2002, he was also a Policy Advisor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2019). Research interests include North Korean Econom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e published books and articles, including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n Econom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Reformulating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남북상생을 위한 경제협력방안 모색과 준비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학부총장

앞으로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그 목표, 원칙, 방향을 명확하게 재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향후 남북경협은 과거의 일방적·시혜적 교류협력이 아니라 남북한간 호혜적인 교류협력, 이른바 상생의 협력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성장의 잠재력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는 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남북경협은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하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방향과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경협 구상이나 추진방안 수립시 북한의 경제개발 의도, 정책, 따라서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경협 사업에서 북한이 일정 정도 참여하고 또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장은 남북경협 사업의 소요 자원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의 자생적 경제성장 역량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정부와 민간의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이다. 즉 향후 남북경협은 정부 차원의 개발협력과 민간 기업 차원의 상업베이스 경험이라는 쌍두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어떠한 협력체계, 어떠한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산림협력 및 환경협력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산림 보호 및 환경 보호에 지대한 관심과 함께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공식 매체의 보도상황을 보아도 파악할 수 있지만 유엔의 SDGs(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이행과 관련된 북한의 행동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북한은 올해 7월 유엔에서 사상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 상황에 관한 자발적 국가 리뷰(Voluntary National Review, VNR)에 참여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행상황을 보고했다. 여기서 북한은 글로벌 규범인 SDGs를 북한에서 수용하고, 특히 7차 당대회때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년)의 달성을 위해 UN SDGs를 국가발전목표(National Development Goals, NDGs)에 연계/통합시켰음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리고 이들 목표에는 당연히 산림문제 및 환경문제도 중요한 목표로 포함되어 있다. 즉 북한은 SDGs 13번(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15번(생태계보호, 산림관리 등)와 연계해 NDGs 13번과 15번으로 각각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토지황폐화 중지, 생물다양성 유지를 제시했다.

그런데 북한에서 산림 황폐화 문제는 식량문제, 에너지문제, 환경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산림 복원을 위한 남북한 협력은 북한의 식량/에너지/환경 문제의 해결, 나아가 북한의 경제성장 역량 확충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따라서 남북한 산림협력은 식량/에너지 분야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며, 이 경우 남북한 양자협력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통한 다자간 협력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따라서 남북한 산림 협력의 틀을 짤 때는 △산림분야의 단독협력뿐 아니라 식량, 에너지, 환경분야의 협력과 연계해서 일종의 패키지 협력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산림분야의 개발협력과 여타 분야의 상업베이스 협력을 결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해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eeking and Preparing for Economic Cooperation for the Shared Prosperity of South and North Korea

YANG Moonso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Vice 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I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opens, clearly redefining its goal, principles, and direction will be key.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must be approached with the highest priority on a cooperation for shared growth and a mutually benefici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stead of the unilateral, charity-like exchange of the past. The limit of the growth potential in our economy has been revealed, as South Korea faces a crisis of falling into a swamp of lasting stagnation. And securing a new growth engine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 being raised as a crucial national agenda.

To this end, it is best to pursu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that aims for shared prosperity, led not unilaterally by South Korea, but jointly by both South and North Korea. When developing a plan or implementation measures for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t is important to fully consider North Korea's intention and policie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therefore, its demand.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encourage North Korea to take part in or play a role in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implemented in the regions of North Korea. This may raise doubts around the necessity in the near term especially with regards to available resources, but ultimately, it is essential to expand North Korea's homegrown economic growth capacity through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Building a new cooperation framework of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is essential. In other words, futur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s likely to proceed in two pillars - th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t the government level and the commerce-based economic cooperation of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consider what type of cooperation system and governance structure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build.

In this context, shining a spotlight on the forest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become an important agenda. Since Kim Jong-un took power, North Korea has shown great interest in fores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has made special efforts. This is implied in the press releases of North Korea's official newspaper, but also in its behavior in implementing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July this year, North Korea took part in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the first national report of the DPRK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SDGs 2030 Agenda,' and presented a report on its progress. Here, North Korea makes it clear that it accepts the SDGs, which ar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t has integrated UN SDGs into its National Development Goals (NDGs) established to achieve the Five-Yea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2020) announced at the 7th Party Congress. Of course, forest and environmental issues were included as important goals in the NDGs. North Korea integrated SDGs 13 (climate action) and 15 (protecting the ecosystem, sustainably managing forests) into NDGs 13 and 15, setting forth goal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 sustainably manage forests, prevent deforestation and desertification, and protect biodiversity.

The issue of deforestation, however, is intricately connected to food,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in North Korea. Therefore, South-North cooperation aimed to restore the forests in North Korea bears meaning in that it solves for North Korea's food,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as well as secures economic growth capacity. South and North Korea's cooperation in protecting forests

Session 5-4

미래 남북산림협력을 위해 함께 가야할 길

Paving the way for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must be pursued in connection to food and energy issues. And in this case,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a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possible. Therefore, it is best to develop various measures to pursue by discussing with North Korea when developing a framework for forest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cluding not only cooperating on managing forest as a solo goal, but also as a package cooperation project in connection to areas like food, energy, and the environment, and combining forest development and cooperation with commerce-based cooperation in other fields.

토론자 Discussant



탕 쉹야오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협력연락사무소 소장

TANG Shengyao

FAO Partnership and Liaison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FAO Representative and Head of FAO PLO in ROK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의 탕 쉹야오 소장은 지난 2020년 7월 부임한 이래, 식량 안보 및 기아 퇴치, 농업 생산성과 지역 협력을 증진하고, FAO와 한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1984년 7월, 중국 농업농촌부에서 업무를 시작하여 국제협력국에서 근무하면서 중국 정부가 다양한 지역과 분야와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고, 특히 1998년 로마에 본부를 둔 유엔기관들(FAO, WFP, IFAD)의 중국 대표이자 대사 대리로도 업무를 수행했다.

2019년 2월, 중국 농업농촌부 국제협력국의 부국장으로서는 업무를 마무리하고 FAO의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남남 및 삼각협력)의 국장으로서는, 개도국 간 농업 및 식량 관련 경험과 기술 공유를 지원했다.

Mr. TANG Shengyao, a nationa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been serving as the F.A.O. Representative and Head of F.A.O. Partnership and Liaison Office (P.L.O.) in R.O.K. since July 2020 to strengthen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F.A.O. and R.O.K. in contributing to global food security, eradication of hunger, enhancement of agriculture productivity, and strengthening regional cooperation.

Mr. Tang started his career in July 1984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ogressively increased his responsibilities in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Ministry, and served as the Deputy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Ministry since 2012. In January 1998, he joined the Chinese Permanent Mission to the Rome-based United Nations Agencies as Alternate Permanent Representative to F.A.O., W.F.P., and IFAD.

Tang joined F.A.O. in February 2019 as Director of the Office of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토론자 Discussant



이용권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장

LEE Yong-kwon

Korea Forest Service, Director

이용권 단장은 2007년 산림청에 입사하여 산림자원육성, 산사태방지, 산림교육치유, 국제협력 등 다양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1월부터 남북산림협력단장으로 부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용권 단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박사학위는 열대림에서 산림생태계 복원을 주제로 2006년 8월에 졸업하였다. 현재 이용권 단장은 남북산림협력에 있어 국민들의 북한 산림복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지원하고, 민간의 참여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Dr. LEE Yong-kwon is the Director of the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Division of the Korea Forest Service. He received his B.S., MS, and Ph. 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pecializing in forest restoration ecology in tropical forests. Since 2007, Dr. Lee has worked at Korea Forest Service and has experienced various forest policies on forest resources, soil erosion control, forest education & therapy, and international affairs. Now he is trying to inform the public of the importance of fore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and urging the private sector to participate in Inter-Korea forest cooperation.

토론자 Discussant



김일한

동국대학교 DMZ평화센터 연구위원

KIM Il-Han

Dongguk University DMZ Peace Center, Research Fellow

김일한 박사는 동국대학교에서 북한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DMZ평화센터 연구위원이다. 주요 관심사로는 북한 경제, 농업분야, 그리고 DMZ 분쟁역사가 있다. 북한의 시장을 비롯한 경제 운용 메커니즘을 연구해 왔고, 남북교류협력의 분야별 제도화, 북한체제 분석을 위한 방법론, 특히 양적방법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Dr. KIM Il-han obtained his Ph.D. in North Korean studies at Dongguk University and currently serves as a researcher at the university's DMZ Peace Center. His main interests are in the North Korean economy, North Korean agriculture, and the history of DMZ disputes. He has conducted studies on economic management mechanisms, including the North Korean market. He maintains a close interest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by sector and the methodology for analyzing the North Korean system, emphasizing quantitative analysis.

Session 6-1

김정은 집권 10년 평가 - 경제 · 사회 분야

Evaluation of 10 Years of the Kim Jong Un Regime – Economy and Society

주관기관
Organized by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좌장
Moderator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KIM Philo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발표
Presenter

- 홍제환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장
- HONG Jea Hwa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Director
-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JEONG Eunme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토론
Discussant

-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 CHOI Jangho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Research Fellow
- 김일한 동국대학교 DMZ평화센터 연구위원
- KIM Il-Han Dongguk University DMZ Peace Center, Research Fellow
- 미무라 미쯔히로 동북아시아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MIMURA Mitsuhiro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Senior Research Fellow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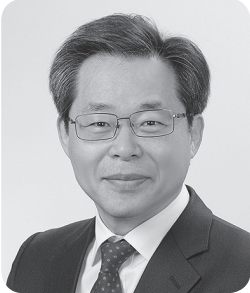
■ 김정은 집권 10년 평가 – 경제 · 사회 분야

- 김정은 집권 이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사회 및 경제 분야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전망하고자 세션 기획
-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정권 10년의 대외경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변화상을 이해하고, 대북제재 및 코로나 19 충격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 봄.
- 사회 분야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정권 10년의 사회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정책 변화에 내포된 북한의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에 대해 분석

■ Evaluation of 10 Years of the Kim Jong Un Regime – Economy and Society

- The session is designed to reflect on the past decade of society and economy, 10 years after Kim Jong Un took power, and to make a projection on the way forward.
- In terms of the economy, the session seeks to understand changes of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 Un era via an analysis on external economy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 Un regime and to predict the impacts that sanctions and COVID-19 shock have on North Korean economy.
- In terms of society, the session evaluates social policy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 Un regime and analyzes changes of nation-society relations embedded in changes of social policy.

좌장 Moderator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KIM Philo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김병로 교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럿거스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1991.1.18.)를 취득했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북한연구실장,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 및 북한연구소장을 거쳐, 2006년부터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겸임교수, 국방부·국가정보원·KBS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22대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는 북한, 통일 관련 이슈, 평화학이다. 주요저서로는 Two Koreas in Development,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다시 통일을 꿈꾸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미래』(공저), 『개성공단』(공저), 『분단폭력』(공저) 등이 있다.

Professor KIM Philo is currently a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Social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SKKU), and received M.A. in Sociology at the Graduate School of Indiana State University(ISU) and Ph.D. in Sociology from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New Jersey, U.S.A.(January 18, 1991). Professor Kim formerly served as a senior fellow and director of the North Korean Studies Division at the Korean Institute of National Unification (KINU), professor at the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rved as a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He was: an adjunct professor in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China; an advisory committee member of the Ministry of Defens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Korea Broadcasting System; the 22nd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He is now a policy advisory member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a standing member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His main research areas include North Korea, unification issues, and peace studies. He is the author of Two Koreas in Development, Reading North Korea from the View of Chosun Korea(in Korean), Dreaming Unification Again(in Korean), Transition to Post-Socialist Regime and the Future of North Korea(co-authored, in Korean), Gaeseong Industrial Complex(co-authored, in Korean), and Violence of Division(co-authored, in Korean).

발표자 Presenter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HONG Jea Hwa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Director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영역은 북한경제, 남북경협, 경제발전론, 한국경제사이며, 주요 저서로는 『북한 여성, 아동 인권 실태』 (2016),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2016),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2016),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2017),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2018) 등이 있다.

Dr. HONG Jea Hwan is a research fellow at the North Korea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His Ph.D. i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Dr. Hong's main research areas are the North Korean econom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Korean economic history. His publications include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2016), Current Status of Operation and Governance of North Korean Corporations (2016), Development Cooperation to Promote the Economic Activities of Ordinary People in Korea (2016),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ung-un Regime (2017), and Livelihoods in North Korea and Cooperation Plan (2018) (all in Korean).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경제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 연구에서는 유엔 통계를 활용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무역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 대해 소개한 뒤, 2010년대 북한 무역의 전반적인 추세를 개관하고, 2000년대에 비해 무역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 2010년대 내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는 점,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쪽으로 빠르게 변화했다는 점을 김정은 시대 북한 대외무역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이후에는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 북한의 무역통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수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대 북한의 수출은 석탄, 의류, 철광석, 철강, 수산물 등 5대 수출 품목에 집중되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석탄, 의류의 수출 증가가 수출 규모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수출은 2017년 하반기부터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제재 강화로 인해 주력 수출품목을 비롯한 많은 품목의 수출이 금지된 결과다.

제조업 부문의 수출 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제조업 부문 수출은 기술수준이 가장 낮은 저위기술 산업 중심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저위·중고위·고위기술 산업은 비중이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규모 자체도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수출이 양적으로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퇴보하는 양상을 보였음을 시사한다.

수입에 대해서는 제품의 사용 용도별 수입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개관하면, 2010년대 북한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중간재로, 전체 수입액의 40~50% 정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소비재 수입이 많았다. 중간재와 소비재의 경우, 제재 본격화 이후에도 수입이 정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나,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됨에 따라 2020년 이후 수입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북한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재의 수입은 2010년대 활발해졌는데, 제재가 자본재에 집중됨에 따라 2018년 이후 급감하였다.

수입 실태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자본재를 보면, 화물자동차, 통신기기, 컴퓨터 등의 수입 규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시장화, 정보화가 2010년대에도 꾸준히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중간재 중 산업용 소재의 경우, 제재 본격화 이후에도 코로나 이전까지 수입이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섬유·식물류를 제외하면 플라스틱의 수입이 가장 많았다. 산업용 음식료품 수입 규모는 2010년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밀·밀가루의 수입 증가 속에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식량 생산 감소 때문인지, 아니면 식료품 산업이 보다 활성화된 까닭인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중간재 중 부품의 경우 꾸준히 수입이 이루어지다가 제재 본격화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본재 활용에 제약이 커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North Korea's Trade under the Kim Jong-un Era

HONG Jea Hwa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Director

This research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trade in the Kim Jong-un era utilizing UN statistics. The study first introduces data utilized and presents som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trade as follows: the general trends of North Korea's trade in the 2010s; a significant rise of trade volume compared to the 2000s; a deficit in trade balance throughout the 2010s; and a rapid and overwhelming increase of trade with China.

This study analyzes North Korea's trade statistics in great detail, categorizing them into import and export. The findings of export analysis are as follows. North Korea's exports in the 2010s were primarily concentrated in coal, apparel, iron ore, steel, and marine products. An increase in the export of coal and apparel, among others, contributed the most to the expansion of its export volume. The export, however, started to decrease significantly since the second half of 2017, which is a result of an export ban on many items, including major export products, imposed by the toughening of sanc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expor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 more detail.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low-level technology industry drove an increase in the expor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under the Kim Jong-un era and that mid and low-level, mid and high-level, and high-level technology industry's portion kept decreasing with a decline in the export volume itself. This indicates that an export under the Kim regime significantly rose in terms of quantity but declined in quality.

This research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imports using the data classified by the usage of products. Overall, intermediary goods took up the most significant portion of North Korea's import in the 2010s, followed by consumer goods import. Although intermediary goods and consumer goods were imported at the normal level even after the full enforcement of sanctions, an import practically came to a halt due to the corona-induced border blockade after 2020, damaging the North Korean economy. An import of capital goods became active in the 2010s but dramatically plummeted after 2018 due to sanctions enforced primarily on capital goods.

The study also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import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volume of imports of a truck, communication device, and computer represents a significant portion of capital goods. This indicates that North Korea's commerci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kept happening during the 2010s. Industrial materials, among intermediary goods, had been continuously imported up until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even after the full enforcement of sanctions. Among them, the import of plastics was the highest except for textile and fabrics. The import volume of industrial food and drink products had been on the decline during the 2010s, and the rapid rise was driven by an increase in wheat and flour imports since 2017. Whether this is attributed to decreased food production or the food industry picking up requires additional analysis. In the meantime, components among intermediary goods had been continuously imported but the number of import went down after the full enforcement of sanctions. It is estimated that this increasingly puts a restriction on the utilization of capital goods.

발표자 Presenter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JEONG Eunme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정은미는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NU)에서 선임연구원(Senior Researcher)과 HK연구교수(HK Research Professor)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통일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NUAC) 상임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영역은 북한 사회변동, 통일외교, 사회통합이며, 현재는 북한의 정보화 및 사회정책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북한사회변동』(2021), 『북한변화의 변수와 경로』(2019),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대북정책』(2019),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방안』(2018), 『북한 노동시장의 현황』(2018) 등이 있다.

Dr. JEONG Eunmee received her Ph.D. in Social Scie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She served as a senior researcher and H.K.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N.U. Dr. Jeong is now a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She was also a standing member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NUAC) and currently serves as a policy advisor 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er primary research areas are North Korea's social changes, awareness of unifi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She is currently studying North Korea's informatization and social policies. Dr. Jeong's significant publications include North Korea's Social Changes (2021), Variables and Routes of Changes in North Korea (2019),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with the Cooperation of the Public (2019), Livelihoods in North Korea, and Cooperation Plan (2018), and The Labor Situation of North Korea (2018) (all in Korean).

김정은 정권의 사회정책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은 정권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2012년의 북한사회는 시장화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 안정망은 약화되어 북한주민의 생활은 점점 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식량배급과 주택(살림집)은 일찍 보편적 공급에서 선별적 공급으로 전환되었고, 무료교육과 무상의료는 부분적으로 '탈국가-상품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보편적 사회복지의 기초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주의체제에서 사회통합의 약화 또는 체제 이탈의 위험 신호로 인식되며, 이에 대응하여 김정은 정권은 한편으로는 대중 포섭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탈적 행위에 대한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양면적 성격의 사회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초기에 김정일 정권의 선군노선에서 '인민생활향상'을 국가정책의 우선적 목표로 하는 선민노선으로 전환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2016년 5월에 조선노동당 7차 대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 동안 '사회주의文明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 이후 북한은 한편으로는 교육과 보건부문의 공공성 강화, 도시와 농촌의 생활 격차 해소, 대규모 주택(살림집) 무상공급과 같은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 국가, 사회의 모든 조직의 사상학습과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의 현상'에 대한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양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Session 6-1

김정은 집권 10년 평가 – 경제 · 사회 분야

Evaluation of 10 Years of the Kim Jong Un Regime – Economy and Society

Social Policy of the Kim Jong-un Regime

JEONG Eunme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Inequality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North Korean society deepened, and the social safety net got weakened, increasing the instability of people's livelihood in 2012 when the Kim Jong-un regime officially took power. The policy of food and housing had changed from universal supply to selective supply. Free education and free public health had partially become 'commercialized and denationalized in terms of provision,' causing a crack at the foundation of universal social welfare. Such phenomena have been perceived as an alarming sign of the weakening of social integration or the relaxation of the system under the totalitarian regime. Hence, the Kim Jong-un regime has pursued an ambivalent social policy of embracing the hearts of the people and strengthening social control for deviant behaviors.

At the initial phase of its rule, the Kim Jong-un regime changed the basic policy direction from the military-first policy inherited from the Kim Jong-il regime to a people-first policy that prioritizes the 'enhancement of people's livelihoods' as a state policy. As the Kim regime has become stabilized, the regime held the 7th Party Congress in May 2016 and set the goal of building a 'civilized socialist country' over the next five years but it failed. Since the 8th Party Congress on January 2021, North Korea has adopted an ambivalent strategy: first is to strengthen the social welfare policy such as enhancing the public education and health sector, reducing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providing massive-scale residential buildings (Salimjip) for free; and the second is to strengthen ideology education to all the organizations in the Party, the state, and society and reinforce the social control over 'anti-socialist and non-socialist phenomenon.'

토론자 Discussant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CHOI Jangho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Research Fellow

최장호 박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팀장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하기 전에는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석사(2007년), 미국 오레곤 주립대에서 응용경제학 박사(2014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무역으로 박사 논문은 'analyzing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multi-product firm's productivity via the adjustment of the number of, and amount of products' 이다.

2014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하여 북한 대외무역과 대외협력, GTI(the Greater Tumen Initiative, 광역두만강개발계획),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개정, 남북경협의 경제효과, 북한의 체제전환 등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매년 발표하고 있는 '북한의 대중 무역 분석(각 년도)'; '동남아 CLMV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2020)';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2018)';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2018)'; '남북한 경제통합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2018)' 등이 있다.

Dr. CHOI Jangho is the Head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Team,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Before joining the KIEP, he received a Master in Agricultural Economic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and a Ph.D. in Applied Economics from Oregon State University, U.S.A. (2014). The main research area of his Ph.D. W International Trade and his Ph.D. thesis 'analyzes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multi-product firm's productivity via the adjustment of the number of products.'

After joining the Institute for Foreign Economic Policy in 2014, he studied North Korea's trad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 the revision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the economic effects of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transi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His primary research includes 'Analysis of North Korea's Trade with China (published annually)'; 'Implications of the Transitional Outcome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CLMV for North Korea';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ransition Index (2020)'; 'Study on North Korea's Trade System: Implications for the CEPA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2018)'; 'Transition Economies' Experience of W.T.O. Accession and its Implications for DPRK (2018)'; and 'Developing Analysis Model and Analyzing Growth Effects of South and North Korea Economic Integration (2018).'

토론자 Discussant



김일한

동국대학교 DMZ평화센터 연구위원

KIM Il-Han

Dongguk University DMZ Peace Center, Research Fellow

김일한 박사는 동국대학교에서 북한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DMZ평화센터 연구위원이다. 주요 관심사로는 북한 경제, 농업분야, 그리고 DMZ 분쟁역사가 있다. 북한의 시장을 비롯한 경제 운용 메커니즘을 연구해 왔고, 남북교류협력의 분야별 제도화, 북한체제 분석을 위한 방법론, 특히 양적방법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Dr. KIM Il-han obtained his Ph.D. in North Korean studies at Dongguk University and currently serves as a researcher at the university's DMZ Peace Center. His main interests are in the North Korean economy, North Korean agriculture, and the history of DMZ disputes. He has conducted studies on economic management mechanisms, including the North Korean market. He maintains a close interest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by sector and the methodology for analyzing the North Korean system, emphasizing quantitative analysis.

토론자 Discussant



미무라 미쯔히로

동북아시아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MIMURA Mitsuhiro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Senior Research Fellow

미무라 미츠히로 박사는 일본 니가타에 위치한 동북아시아경제연구소(ERINA)의 선임연구위원이다. 미무라 박사는 오사카 외국어 대학에서 한국어 학사학위를 받고 오사카 대학에서 석사학위와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후 동북아시아경제연구소에 입소하여 재직 중이다. 전문분야는 북한경제, 북한법, 한반도 남북경제교류 및 동북아 경제교류이며 1996년 이래로 북한을 대략 40번 정도 방문했다. 이외에도 동북아시아 주요 도시들을 방문해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학자들과 지식 및 정보를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본인 학자이다. 미무라 박사는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동료들과 함께 연구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차별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미무라 박사는 통합적 동북아시아 경제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Dr. MIMURA Mitsuhiro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ERINA) in Niigata, Japan. He received his B.A. in Foreign Study (Korean) from Osaka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a B.A., M.A., and Ph.D. in Law from Osaka University. Upon graduation, he began working for ERINA. His study area includes North Korean law, North Korean economy,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Since 1996, he has visited North Korea roughly forty times. He often visits various cities in Northeast Asia for academic exchange. He is one of the rare Japanese scholars who can exchange thoughts directly with North Korean scholars in Pyongyang. His research provides deep insight into Northeast Asia, supported by colleagues in Korea, China, Russia, the U.S., the E.U., and Japan. Based on his unique experience, he advocates a new perspective of the integrated Northeast Asian economy.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Session 6-2

노동당 신 규약과 북한의 탈민족주의론 KWP and its Post - Nationalism

주관기관
Organized by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and Peac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좌장
Moderator 임경훈 서울대학교 교수
LEEM Kyung H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발표
Presenter

-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 KIM Tae-Kyung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ssociate Research Fellow
-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
• LEE Jung-Ch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강혜석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 KANG Hye Suk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 Professor
- 모리 토모오미 세츠난대학교 교수
• MORI Tomoomi Setsunan University, Professor

토론
Discussant

-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교수
• LEE Nam ju Sungkonghoe University, Professor
- 이소자키 아쓰히토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수
• ISOZAKI Atsuhito Keio University, Professor
- 권헌익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교수
• KWON Heonik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Professor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6-2)

■ 노동당 신 규약과 북한의 탈민족주의론

북한의 8차 당대회가 북한 당국의 대외 정책이나 대남 정책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많은 내용외에도 특히 당 규약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따라 더 근본적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본 세션은 이같은 변화 중 북한의 전통적 민족주의 노선의 수정이 대외 정책과 국내 정치에 미칠 파장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한다.

■ KWP and its Post - Nationalism

It is of great policy importance to look at the changes that North Korea's 8th Party Congress will bring to the North Korean authority and its foreign policies. In particular, newly revised Party Programme and Rules are very important as it is likely to lead to many other changes.

Under this premise the session aims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Party Rules and then discuss the changes in North Korea's Nationalism and its one Korea policy.

좌장 Moderator



임경훈

서울대학교 교수

LEEM Kyung H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임경훈 교수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그는 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이었으며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LEEM Kyung Hoon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as a former president of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and Pea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complet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발표자 Presenter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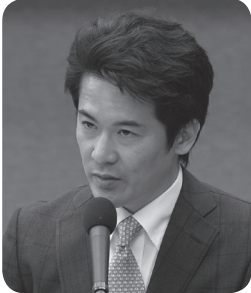
LEE Jung-Ch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정치외교학과에서 교수로 근무하였다. 송실대학교 재임 시절에는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연구 활동에 매진했다. 2014년에는 조지워싱턴대학교 시거센터에서 15개월간 방문학자 연수를 마쳤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통일부, 국회, 청와대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남북관계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이후 1995년부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1997년 석사 학위를 그리고 2002년에는 북한 정치 경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LEE Jung Chul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as a former Chief of Team for Economic Security Studies in the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2-2006) and a Professor in the dep't of PS & IR at Soongsil University.(2006-2021). In 2014, he served as a visiting scholar at the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in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e holds a Bachelor of Laws degree (1991)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n M.A. (1997) in Political Scienc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complet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2.

발표자 Presenter



모리 토모오미

세츠난대학교 교수

MORI Tomoomi

Setsunan University, Professor

현재 일본의 세츠난대학교 외국어학부 준교수(Associate professor, Faculty of Foreign Studies, Setsunan University)로 재직하고 있다. 전공은 역사사회학, 언론연구, 문화에 관한 연구이고, 주요 연구영역은 현대 한반도 지역학(Korean Studies)이다. 최근 주요논저로는 '한국저널리즘과 언론민주화운동: 한겨레신문을 둘러싼 역사사회학' (일본경제평론사, 2019, 일어, 단행본), 'North Korea as a small Great power'(Pekka Korhonen과의 공동 집필, The Asia Pacific Journal: Japan Focus, 2019) 등이 있다. 또한 북의 문화연구와 관련된 논저로는 'The Samjiyon Orchestra as a North Korean Means for Gender Based Cultural Diplomacy' (Pekka Korhonen 과의 공동 집필, European Journal of Korean Studies, 2020), '김정은 시대의 음악정치: 모란봉악단을 중심으로'(현대한국조선연구, 2018, 일어), '예술 공연 "추억의노래"가 가지는 의미'(북한연구학회보, 2016, 한국어) 등이 있다.

Tomoomi Mori is an Associate Professor for Faculty of Foreign Studies at Setsunan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Media Studies from Doshisha University in 2013.

His majors were sociology, journalism, mass communication studies, and area studies.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Korean Studies, particularly concentrating on South Korean (ROK) journalism, political culture, and civil society.

Recently, he has been interested in North Korean (DPRK) culture and cultural policy as well as North Korea-Japan relations. He has published mainly in Japanese, Korean, and English.

Books (Selected):

'Journalism and Media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Historical Sociology Concerning the Hankyoreh' (Nihon Keizai Hyoronsha, 2019, Japanese)

'Walking in Seoul: The first step of researching about Korean culture' (Kwansei Gakuin University Press, 2019, co-author, Japanese)

Journal Articles (Selected):

Pekka Korhonen & Tomoomi Mori. North Korea as a Small Great Power.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ume 17, Issue 5, No. 2, 2019

Pekka Korhonen & Tomoomi Mori. The Samjiyon Orchestra as a North Korean Means for Gender Based Cultural Diplomacy. European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19, No. 2, 2020

토론자 Discussant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교수

LEE Nam ju

Sungkonghoe University, Professor

이남주는 성공회대 교수이다. 북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대 방문학자를 지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평화번영분과),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LEE Namju is a professor at Sungkonghoe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Peking University and was a visiting scholar at Harvard University. He currently serves as a member of various advisory committees such as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a Policy Advisory Council to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Committee.

토론자 Discussant



이소자키 아쯔히토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수

ISOZAKI Atsuhito

Keio University, Professor

그는 주중국일본대사관 전문조사원, 일본외무성 제3국제정보관실 전문분석원, 조지워싱턴대학교 객원연구원, 우드로윌슨센터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 전문분야는 북한정치. 저서에 『북조선과 관광』(마이니치신문출판, 2019), 『신판 북조선입문』(동양경제신보사, 2017) 등이 있다.

His research focuses on contemporary North Korean politics. Previously, he served as a special analyst on North Korean politics in the Intelligence and Analysis Service of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was a senior researcher on North Korean politics at the Japanese Embassy in Beijing. In addition to this, he was selected as a Japan Scholar at the Woodrow Wilson Center's Asia Program and a visiting scholar at the Sigur Center of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is major publications include Tourism in North Korea (Mainichi Shimbun, 2019),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n Regime (Woodrow Wilson Center, 2017) and New Introduction to North Korean Studies (Toyo Keizai, 2017).

토론자 Discussant



권헌익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교수

KWON Heonik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Professor

권헌익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메가아시아 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있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트리니티칼리지의 선임연구원이다. 베트남전쟁과 아시아냉전에 관한 저술에 이어 근래에는 북한 정치문화와 한국전쟁의 인류학적 연구에 집중해 왔다. 현재 인류학과 국제관계학의 소통의 역사에 관한 저술을 완성 중이다.

Kwon Heonik participates in the mega-Asia research projec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Asia Research Institute and is a senior researcher at Trinity College at Cambridge University in the UK. Following his writings on the Vietnam War and the Asian Cold War, he has recently focused on anthropological studies of North Korean political culture and the Korean War. He is currently completing a book on the history of communication between anthropolog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Session 6-3

북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인권, 인도주의, 개발협력 넥서스
Human Rights,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Nexus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주관기관
Organized by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Seoul

좌장
Moderator

다니엘 콜린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네바, 인권 담당관
Daniel COLLING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Geneva,
Human Rights Officer

패널
Panelist

- 이메쉬 포카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 대표 대행
- Imesh POKHAREL UN Human Rights Office, Seoul, Representative, ad interim
- 시아미 푸비마나싱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네바, 인권 담당관
- Shyami PUVIMANASING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Geneva, Human Rights Officer
- 강경모 노트르담 로스쿨 JSD후보
- KANG Kyung Mo Notre Dame Law School, JSD Candidate
- 다이앤 데지에르토 노트르담 로스쿨 교수
- Diane DESIERTO Notre Dame Law School, Professor of Law and Global Affairs
-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LEE Keumso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nior Research Fellow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6-3)

북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인권, 인도주의, 개발협력 넥서스

이 세션에서는 북한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권, 인도적 지원, 개발/경제 이니셔티브 간의 연계 및 협력에 대해 살펴본다. 북한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인구의 40% 가까이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고 건강, 교육, 안전한 식수, 고용 기회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여전히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국경 폐쇄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 의도치 않은 인구 제재 등 엄격한 COVID-19 예방조치는 2020년 말 국제 인도주의 기구들이 북한에서 탈퇴한 이후 거의 중단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OHCHR은 인권, 개발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인민들의 오랜 취약점을 해결하고 북한에서 지속 가능하고 권리에 기초한 평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Human Rights,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Nexus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proposed session will explore the interlinkages and collaboration between human rights, humanitarian assistance, development/economic initiatives to promote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peace in the DPRK.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civil and political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tinue to be committed in the DPRK with no accountability. The socio-economic situation remains vulnerable with nearly 40 per cent of the population in need of food support and extreme shortcomings in the delivery of basic services like health, education, safe drinking water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Strict COVID-19 prevention measures including the interruption of economic activities due to prolonged border closures and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sanctions on the population has nearly come to a halt since the departure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agencies from the DPRK at the end of 2020. It is in this context OHCHR proposes this session to discus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human rights,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s a way forward to addressing the long-standing vulnerabilities of the people and bringing sustainable and rights-based peace and development in the DPRK.

좌장 Moderator



다니엘 콜린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네바, 인권 담당관

Daniel COLLING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Geneva, Human Rights Officer

다니엘 콜린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인권사무관이며 조선인민공화국 내 인권상황의 감시, 기록, 지지에 대한 책무를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이임 받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서울사무소에서 재직중이다. 콜린지는 미얀마, 제네바, 태국 동남아 지역사무소 등지에서 OHCHR의 업무를 진행한 바 있다. 영국 에식스 대학에서 인권과 인도주의 법학에 대한 LLM을 받았고 영국 워릭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했다.

Daniel COLLINGE is a human rights officer in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He is currently based in OHCHR's Seoul Office, which is manda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to monitor, document, and advocate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 has previously worked for OHCHR in Myanmar, Geneva, and the South-East Asia Regional Office in Thailand. He holds an LLM i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from Essex University and an M.A. in Politics from Warwick University.

패널 Panelist



이메쉬 포카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Imesh POKHAREL

UN Human Rights Office, Seoul, Representative, ad interim

이메시 포카렐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지부의 대표 대행이다. 그는 2006년부터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근무해왔으며 아시아 지역 비상 코디네이터, 태국 프로그램 팀 코디네이터 및 태국,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말레이시아, 제네바, 네팔 지역의 인권사무관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미얀마 지부, 네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일한 바 있다. 그의 전문분야는 법치주의, 책임주의, 인권중시의 확산, 평화구축 등이다.

Imesh POKHAREL is the Representative ad interim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in Seoul. He has worked with OHCHR since 2006 as a Regional Emergency Coordinator for Asia, the Team Coordinator for the Thailand Programme, and as a human rights officer in Thailand, Myanmar, Afghanistan, Malaysia, Geneva, and Nepal. He has also worked with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 Myanmar and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Nepal. Pokharel's expertise includes the rule of law, accountability, human rights mainstreaming, and peacebuilding.

Session 6-3

북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인권, 인도주의, 개발협력 넥서스

Human Rights,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Nexus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기타 유엔 회원국에게 발전권의 의미

이메쉬 포카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경제 발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선언한 최우선 정책 목표다. 본 논문은 발전의 권리에 대한 유엔 선언의 관점에서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발전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이며, 경제적 권리뿐 아니라 시민, 정치, 사회 및 문화적 권리 등 인권의 전 범위에 대한 이행을 포함함을 확인한다. 이 맥락에서 북한은 국제인권법의 주요 의무 이행자로서, 발전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국가로서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기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행해야 하는 인권 관련 의무를 이해하기 위해 발전권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살펴본다. 여기에는 발전권이라는 기준을 활용함으로써 원조 및 인도적 지원 제공, 역량 개발 참여, 제재 부과, 무역 및 투자 관계, 군축 등에 관한 정책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음이 포함된다.

Session 6-3

북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인권, 인도주의, 개발협력 넥서스

Human Rights,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Nexus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mplications of the Right to Development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other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Imesh POKHAREL

UN Human Rights Office, Seoul, Representative, ad interim

“Economic development” is a declared priority policy objective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is paper considers the goal of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prism of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In doing so, it demonstrates how development is a much broader concept than is often appreciated, involving the fulfilment of the whole spectrum of human rights: not just economic rights, but also civil,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is context, the paper highlights the obligation of the DPRK State - as the primary duty bearer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to instigate profound reforms to enable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development. The paper then goes on to consider how the right to development helps us to bring to light the human rights obligations of other UN member states in their engagement with the DPRK. This includes consideration of how polici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id and humanitarian assistance, engagement in capacity development, the imposition of sanctions,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and disarmament can all be shaped for the better when placed under the rubric of the right to development.

패널 Panelist



시아미 푸비마나싱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네바, 인권 담당관

Shyami PUVIMANASING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Geneva, Human Rights Officer

시아미 푸비마나싱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서 인권사무관으로 재직중이다.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발전권 및 국제협력에 대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녀는 인권위원회 소셜포럼의 비서도 겸임한다. UN OHCHR 근무 전엔 스리랑카 콜롬보대 법학부에서 강의 전담교수로 재직하며 환경법, 지속가능한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과목을 담당했다.

또한 그녀는 보츠와나의 수도인 가보로네의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윤리, 법률, 에이즈, 인권, 환경 및 개발 분야에서 일한 바 있다. 콜롬보 대학에서 법학 학사를,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한 그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에라스무스 대학 소속 사회학국제연구소(SS)에서 국제법과 개발기구로 준석사학위를, 개발학으로는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녀는 'Foreign Investment,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A Perspective from South Asia on the Ro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for Development'를 비롯한 다수의 책을 집필했다.

Shyami PUVIMANASINGHE is a Human Rights Officer at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Geneva, Switzerland. She supports the mandates of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High Commissioner on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She is the Secretary of the Human Rights Council's Social Forum and previously supported the Independent Expert on International Solidarity. Formerly, Shyami served as a Senior Lecturer at the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Colombo, Sri Lanka, where she taught several subjects, including Environmental Law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he also worked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Gaborone, Botswana, on ethics, law, HIV/AIDS,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Shyami is a lawyer and holds a Bachelor of Laws from the University of Colombo; a Master of Laws from Harvard Law School, USA; a Post-Graduate Diploma in International Law and Organization for Development and a Doctor of Philosophy in Development Studies from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The Hague, The Netherlands. Her publications include the book 'Foreign Investment,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A Perspective from South Asia on the Ro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for Development'; several chapters and journal articles mostly in the area of sustainable development.

Session 6-3

북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인권, 인도주의, 개발협력 넥서스

Human Rights,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Nexus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평화, 인권, 발전의 접점 탐색

시아미 푸비마나싱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네바, 인권 담당관

본 발표는 발전에 대한 인간의 권리와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논의를 위해 1986년 유엔 개발권 선언의 원칙 및 구성요소, 그리고 다차원적 프레임워크 하 평화, 인권 및 발전의 접점을 고찰한다. 선언문과 인도주의적 및 환경적 고려요소 간의 연관성, 그리고 선언문과 현대의 국제 개발 정책 프레임워크, 특히 2030 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오늘날의 COVID-19 팬데믹은 모든 차원에서 불평등을 드러내고 악화시켰다. 개인과 민족, 그리고 집단의 발전에 대한 권리와 국가의 평등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조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여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을 바로잡아 회복력을 키우고 지속적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발전권이 가져오는 의무들은 여러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간 상호 작용, 국제 협력 의무의 중요성 및 인권 분야의 역량 강화를 포함한 국제 기구의 역할을 반영한다. 국제적 연대를 전제로 하는 발전권은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인민을 비롯하여 전세계 사람들, 특히 빈곤층,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의 안녕을 개선하고 보장하기 위한 희망이기도 하다.

Session 6-3

북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인권, 인도주의, 개발협력 넥서스

Human Rights,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Nexus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ploring the interface of peac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Shyami PUVIMANASING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Geneva, Human Rights Officer

This presentation will focus on the human right to development and its potential in adv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It will reflect on the principles and elements of the 1986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the interface of peac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in its multidimensional framework. It will consider the Declaration's nexus with humanitarian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and with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framework, in particular, the 2030 Agenda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has exposed and exacerbated inequalities at all levels. The holistic, structural and systemic approach of the right to development of individuals and peoples as well as groups, and equality of nations, contains much promise to redress inequalities within and among nations, including through addressing root causes of conflict, towards building resilience and sustained peace. The levels of obligations foreseen in the right to development recognize the interplay of governance at different levels, and the importance of the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well as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in capacity-building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remised on international solidarity, the right to development aims at creat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development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t offers hope to improve and ensure the well-being of all the peopl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of people everywhere, especially the poor, the vulnerable and the marginalized.

패널 Panelist



강경모

노트르담 로스쿨 JSD후보

KANG Kyung Mo

Notre Dame Law School, JSD Candidate

강경모는 컬럼비아 바 구에 입회한 변호사다. 강 씨는 명지대에서 법학 학사(한국법학)를 취득하고 한동국제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박사(J.D)를 취득한 뒤 주로 조선회사 사내변호사로 활동했다. 또한 그는 계약변호사로 폴 헤이스팅스 E. duPont v.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발굴절차와 국내 주요 건설사인 KCC의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한편, 그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북한의 인권이다. 강씨는 서울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단체인 과도정의실무단의 연구원이다. 그는 연구원으로 캄보디아 법원 특별회의소(ECCC)의 과도기적 사법 메커니즘과 강제 실종(납치) 범죄를 연구해왔다. 그는 '캄보디아 법정의 특별재판소에 관한 연구-캄보디아 과도정의와 통일'과 '한국전쟁 중 민간인 납치사건의 책임자를 기소하기 위한 국제재판소 연구'라는 두 권의 책을 냈다. 게다가 그는 변호사가 되기 전 기독교 난민 지원 단체에서 난민들이 한국에서 자리를 얻기 위한 소송에서 난민을 성공적으로 도왔다. 그의 연구 관심사는 과도기적 정의, 대량 학살, 반인륜 범죄, 국제 형사 재판 시스템, 국제 분쟁 해결, 유엔 메커니즘, 종교 자유, 언론의 자유이다.

KANG Kyung Mo is a lawyer who is admitted to the District of Columbia Bar. Mr. Kang has practiced law mostly as an in-house counsel at a shipbuilding company after obtaining a Bachelor in Law (Korean law) from Myongji University and J.D. equivalent from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a U.S. style law school in the Republic of Korea. Also, he, as a contract attorney, participated in the discovery process in E. I. duPont v. Kolon Industries Inc. at Paul Hastings and on a compliance project at KCC, which is a major construction company in Korea. Meanwhile, his main focus is on North Korea issues in the human rights area. Mr. Kang is a research fellow at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a Seoul-based organizatio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s a research fellow, he has researched transitional justice mechanisms in the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ECCC), and the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 (abduction). He has published two books titled "A Study on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 Transitional Justice in Cambodia and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Tribunal to prosecute those who are accountable for Civilian Abduction during the Korean War". Moreover, he successfully assisted refugees in litigation to obtain refugee status in Korea at a Christian refugee supporting organization before becoming a lawyer. His research interests are transitional justice,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system,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UN mechanisms, religious freedom, and freedom of speech. Here is the link from the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in Korea

Session 6-3

북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인권, 인도주의, 개발협력 넥서스

Human Rights,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Nexus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북한의 식량 위기 및 국가의 실패

강경모

노트르담 로스쿨 JSD후보

본 발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CCPR)의 관점을 통해 북한의 식량 위기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CCPR) 위반이 현재의 지속적 식량 위기를 어떻게 조장하는지 살펴본다. 북한 식량 위기의 특수성은 공공배급제 하 식량 배급 시 '성분'이라는 사회적 분류 체계에 의존하는, 차별이 일상화된 식량 안보 정책의 실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이 국경 횡단을 통해 식량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범죄로 취급하는 총살 정책을 통해 인민의 식량 안보, 영양실조 및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역시 위협에 처해 있다.

Session 6-3

북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인권, 인도주의, 개발협력 넥서스

Human Rights,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Nexus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Crisis and State Failure of North Korea

KANG Kyung Mo

Notre Dame Law School, JSD Candidate

This presentation will focus on analyzing the North Korean food crisis through the lens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and relatedly, how vio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foments the ongoing food crisis. The uniqueness of North Korea's food crisis is not just in the failure of North Korean governmental policies to ensure food security that are routinely applied in a discriminatory manner under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s reliance on the songbun social classification system to allocate food rations. However, food security, malnutrition, and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North Korean citizens are also imperiled by the criminalization, through shoot to kill policies, of North Korean citizens' attempts to secure food for themselves using border crossings.

패널 Panelist



다이앤 데지에르토

노트르담 로스쿨 교수

Diane DESIERTO

Notre Dame Law School, Professor of Law and Global Affairs

다이앤 데지에르토 교수는 노트르담의 법학 및 국제 문제 교수이자 LLM 교수 책임자이며, 미국 노트르담 대학의 커프 국제문제학교 커프 국제문제학교에 공동 임용되었습니다. 국제법 및 인권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의 5개 연구소에 펠로우로 재직하고 있다. 그녀는 유럽 국제법학회지, 국제법학회지, 세계투자무역학회지, 월터스 클루어 인간 사회와 국제법 모노그래프 시리즈 및 여러 아시아 저널의 편집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의 필리핀 사법아카데미 국제법과 인권교수로 병행 임용됐고, 상설중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동남아 기관과 재판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데시에토 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법학 서기, 헤이그국제법학아카데미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 헤이그학원재단 이사장이다. 그녀는 유엔 개발권리 실무그룹 전문가그룹에 속해 있으며, 유럽연합 대외행동기구, 미국 국제개발청, 아시아개발은행(ASEAN) 등에서 전문가로 자주 활동하고 있다.

Dr. Diane Desierto is Professor of Law and Global Affairs, and LLM Faculty Director, at Notre Dame Law School, with a joint appointment at the Keough School of Global Affairs of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USA), where she is also Faculty Fellow at five of the University's Institutes (Kellogg, Klau, Liu, Pulte, Nanovic), specializing in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She serves in the Editorial Boards of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aw Studies, the Journal of World Investment and Trade, the Wolters Kluwer Human Society and International Law monograph series, and several Asian journals. She holds a parallel appointment as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at the Philippines Judicial Academy of the Supreme Court of the Philippines, and is active as Counsel at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Southeast Asian agencies and tribunals. Professor Desierto was a law clerk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erved as Director of Studies and faculty member at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and is the current President of the Friends of the Hague Academy Foundation. She is a member of the Expert Group of the UN Working Group on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frequently serves as Expert at the European Union External Action Service,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at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ession 6-3

북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인권, 인도주의, 개발협력 넥서스

Human Rights,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Nexus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북한의 식량 위기 및 국가의 실패

다이앤 데지에르토
노트르담 로스쿨 교수

본 발표(12분)는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ESCR) 보호를 위한 가능성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제재 정책 하 북한 인민의 사회권 실현에 대한 구조적, 자원 기반 및 제도적 장애물을 살펴본다. 또한 무역 제한, 수입 금지 및 기타 안보리 승인 금수 조치의 내용과 관련하여, 국제 인권법의 지속적인 준수를 위해 1966년 이래 도입된 기타 안보리 제재들(30개 제재 체계)과 비교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유엔 헌장 55조 및 56조에 명시된, 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 및 개별 행동에 대한 유엔의 의무에 따른 안보리의 지속적인 책임 범위 내에서 사회권을 고찰한다.

Session 6-3

북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인권, 인도주의, 개발협력 넥서스

Human Rights,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Nexus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DPRK Sanctions

Diane DESIERTO

Notre Dame Law School, Professor of Law and Global Affairs

This presentation (12 minutes) will focus on exploring spaces for the protec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SCR) in North Korea, and the structural, resource-based, and institutional impediments to the realization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s ESC right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s policies against North Korea's authoritarian regime. The presentation will comparatively consider other Security Council sanctions in other situations since 1966 (30 sanctions regimes) which have sought to ensure continued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the design of trade restrictions, import bans, and other Council-authorized embargoes, and situate ESC rights well within the parameters of the Council's continuing responsibilities under the United Nations' obligations for joint and separate action to protect human rights in Articles 55 and 56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패널 Panelist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LEE Keumso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nior Research Fellow

현재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주요 연구분야는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 남북간 인도주의 사안이다. 이전에는 통일부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장, 통일교육원장, 북한인권기록센터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Dr. LEE Keumsoon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Humanitarianism and Cooperation Research Division, KINU. She has worked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humanitarian affairs. Previously, she served as the Chairperson of National Committee for the Compensation of the Victims of North Korean Abduction (2007-2009), President of National Unification Education (2015-2017), and President of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Records (2018-2020), Ministry of Unification. Dr. Lee received her educ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Marquette University, and Purdue University, where she obtained her Ph.D. in Political Science in 1993.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Session 6-4

북한의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농업 전망

North Korea's New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Future Agricultural Prospects

주관기관
Organized by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좌장
Moderator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Daniel COLLING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Geneva,
Human Rights Officer

발표
Presenter

- 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CHOI Yong ho**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Research Fellow
-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LEE Jongkyu**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nior Fellow

토론
Discussant

-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KIM Young-Hoo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enior Research Fellow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학부총장
- **YANG Moonso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Vice 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 팀 재커너크 컨설턴트
- **Tim ZACHERNUK** Independent Consultant
- 최문 연변대학교 교수
- **CUI Wen** Yanbian University, Professor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6-4)

북한의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농업 전망

2020년 김정은 시대를 통틀어 최저 식량 생산량을 기록한 북한 농업은 제8차 당대회와 새로운 경제발전계획을 계기로 반전을 꾀하고 있음. 본 세션에서는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새로운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존 농정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북한 농업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함. 특히 북한 경제 및 농업이 중국에 의존도가 높고 양국이 친밀도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은 북한 농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에 중국 현지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North Korea's New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Future Agricultural Prospects

North Korea's agriculture in 2020 recorded the worst performance in the entire Kim Jong-un era. It is attempting a reversal through the 8th Party Congress and a new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this session, we will look at the new policy directions and main contents in the plan, and forecast the future changes in North Korean agriculture through comparison with the past agricultural policies. In particular, as North Korea's economy and agriculture are highly dependent on China and the two countries continue to emphasize closeness, China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changes in North Korean agriculture. Therefore, we would like to invite Chinese experts to discuss in the session.

좌장 Moderator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KIM Hong Sang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President

김홍상 신임 원장은 1994년 대통령 자문 농어촌발전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농정체계 기틀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으며, 같은 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평가위원장 직을 맡아오며, 농지와 농업용수를 비롯한 농업·농촌분야의 다양한 농정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농지은행 제도 및 관련 정책사업 도입 연구를 수행하고 제도화에도 기여했다. 또한 농림부 감사관,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TF 위원 등 다양한 활동과 농업정책연구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에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Kim Hong Sang served as an expert member of the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on Rural Development in 1994 and joined the Korea Rur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 the same year to conduct various agricultural and rural research, including farmland and agricultural water. In particular, it has conducted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the farmland banking system and related policy projects and contributed to institutionalization. He also received the National Medal of Merit in 2018 for hi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society through various activities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cluding the Agriculture Ministry auditor, the Presidential Advisory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and the TF member of the Presidential Policy Planning Committee.

발표자 Presenter



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CHOI Yong ho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Research Fellow

최용호 박사는 2014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북한 및 통일 농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2016~2017년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방안, 2020년 평화경제 구현 남북 농림수산업협력 모델 개발 및 실행전략 연구 등이 있다. 최용호 박사는 2014년 미국 콜로라도대학교(볼더캠퍼스)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Dr. Choi Yongho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on agriculture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a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ince 2014. The main researches include 'A Study on Cooperation Policies to Attract Agricultural Investment into North Korea in the Future Reform and Opening Period of North Korea' conducted during 2016 and 2017 and 'A Study on Development of a Model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for the Realization of the Peace Economy' conducted in 2020. In 2014, he received his Ph.D. in Economics from the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USA).

발표자 Presenter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EE Jongkyu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nior Fellow

이종규 박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북방경제실의 선임연구위원이고, 원내에서 발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2008년 런던대학교(UCL)에서 경제학박사를 받은 이후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경제연구실에서 2013년까지 수석연구원으로서 근무했다. 현재 KDI에서는 북한경제의 내부 상황과 북중 경제관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최근 주요 연구로는 ‘북한의 재정충격, 경제적 영향은?’ (KDI 2021), ‘북한의 경제사회지표 분석: 복합지표조사(MICS)를 중심으로’ (KDI 2019), ‘한반도 통일의 거시경제적 영향: 요소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문외솔, 문성민 공동, Journal of Asian Economics 2018),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북한의 경제정책 대응 분석’ (KDI 2018) 등이 있다.

Lee Jongkyu is a Senior Fellow at the Department of North Korean Economic Studies, and Editor in Chief at Korea Development Institute(KDI). His main research focuses on the economic situation of North Korea as well as its special trade relationship with China. Prior to joining KDI, he was a Research Fellow a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SERI) from 2008 to 2013. In 2008, he received a Ph.D in Economics from University of London(UCL).

Some of his recent publications include North Korea's Fiscal Shock: What are the Economic Implications? (KDI 2021); Analysis on the DPRK's Socioeconomic Status: Focusing on the MICS(KDI 2019); Macroeconomic Impact of Korean Reunification: The Role of Factor Market Opening(Journal of Asian Economics, 2018, with Moon Weh-Sol and Mun Sung min); The DPRK's Policy Response to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KDI, 2018).

토론자 Discussant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IM Young-Hoo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enior Research Fellow

김영훈 박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북한농업과 대북농업협력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남북한 농업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북한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이들 협력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추진주체와 정부에 필요한 자문을 하였다.

김영훈 박사는 대북 농업정책 및 통일정책 분야에서 정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정책 개발과 추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2014~2017)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남북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2019~2021)을 역임하였으며, 지금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20~)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2013~)으로 재임하고 있다.

최근 수행한 연구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남북한 경험 재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구상과 추진 방안(KREI, 2019)'과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KREI, 2018)'을 들 수 있다.

Dr. Kim Young-Hoon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and is an expert in North Korean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Dr. Kim visited North Korea several times in connection with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projects and gave necessary advice to the project implementers and the government.

Dr. Kim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creation and implementation of relevant policies by serving as a member of various government committees. He served as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Preparation Committee for Unification(2014~2017) and a chairman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Subcommittee in the Special Commission on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Policies(2019~2021). He is still a member of the Unification Ministry's Policy Advisory Committee(2020~) and a standing member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2013~).

Representative of his recent studies are the Agri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itiative (KREI, 2019) and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Agricultural and Livestock Trade Trends and Future Prospects (KREI, 2018) in the wake of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토론자 Discussant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학부총장

YANG Moonso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Vice 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양문수는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교학부총장 겸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기자,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장(2019년) 등을 역임했다. 연구 분야는 북한경제, 남북경협, 남북경제공동체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한 국가전략: 개성공단 사업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Yang Moonsoo is the Vice 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and the professor a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His B.A. is in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85, and M.A. and Ph. D. are on Economics, University of Tokyo; Japan in 1997 and 2000, respectively. Reporter at Maeil Economic Daily Newspaper in 1988-1991, Research Fellow at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 2000-2002. He was also a Policy Advisor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w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2019). Research interests include North Korean Econom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e published some books and articles: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n Econom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Reformulating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토론자 Discussant



팀 재커너크

컨설턴트

Tim ZACHERNUK

Independent Consultant

팀 재커너크는 1995년부터 중국에서 지역 농업인,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한 농촌개발 및 빈곤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는 8억 명에 달하는 주민이 빈곤에서 벗어남에 따라 중국이 급속한 경제발전과 농촌지역 변화를 이루는 과정을 보며 여기에 일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018년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북한의 농업발전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회의를 하였으며 북한 협동농장 및 관공서 등에 현장방문할 기회가 가졌다.

4월 FAO/WFP 식량안보평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9년에는 FAO와 함께 일하면서 북한에서 4개월을 보냈다. 그는 중국에서의 경험이 북한 농촌개발의 기회와 장애물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이 세션을 통해 북한에 대해 많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생각과 견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Since 1995 he has worked on a wide variety of rural development and poverty alleviation projects in China, much of that work being at a local level working directly with farmers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Over this time he had the opportunity to witness and to participate in China's rapid economic progress and the transformation of its rural areas as the country lifted 800 million people out of poverty.

In 2018 he was engaged by the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to lead a team tasked with identifying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DPRK. This exercise involved literature reviews, meetings in-country with a wide variety of stakeholders in government agenc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ield visits to cooperatives and government stations. In 2019 he spent over four months in DPRK working with FAO, including participating in the FAO/WFP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in April.

He believes his experiences in China gives him a unique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some of the opportunities and obstacles for rural development in DPRK and he welcome the opportunity to share ideas and perspective others who have more knowledge and experience about DPRK.

토론자 Discussant



최문

연변대학교 교수

CUI Wen

Yanbian University, Professor

최문 교수는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교수이다. 연변대학교 한반도연구협동창신센터 연구원이기도 하며, 현재 조선 및 한국의 여러 대학들과 함께 한반도경제발전 관련 공동연구과제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Cui Wen is Professor in the college of Economics and Management at Yanbian University. He is also a researcher of the Co-innovation center for Korean peninsula studies. At present, he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joint research project concerning economic development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various universities in North and South Korea.

Session 7-1

친환경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two cases

주관기관
Organized by

KDI국제정책대학원, 베를린자유대 한국학연구소 공동주관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
Institute of Korean Studies, Freie Universitaet Berlin

좌장
Moderator

이은정 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
LEE Eun-Jeung Freie Universität Berlin, Director

발표
Presenter

- 안드레 리우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국제팀장
- Andre LEU Regeneration International, International Director
-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 MYOUNG Ho Eco-Horizon Institute, Vice President

패널
Panelist

- 김상국 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
- KIM Sangkuk Freie Universität Berlin, Research Fellow
-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CHOI Chang Yong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Professor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7-1)

■ 친환경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김정은 시대 접어들면서 북한의 정책에서 친환경, 녹색경제 등에 대한 지향이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개발, 환경오염 방지, 환경보호, 유기농 등에 대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갖추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유럽의 다양한 기구와 협력사업을 진행했다. 이 세션에서는 두 가지 협력 사례를 통해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친환경공동체 구축 전망을 논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북한의 평양 국제새기술경제정보교류사(PIINTEC)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간의 협력사업이다. 이 두 기관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다. 두 번째 사례는 갯벌보호와 관련된 유럽의 네덜란드-독일-덴마크 3국 협력위원회와 북한 당국 간의 협력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해안 갯벌보호와 관련해 남북한-유럽으로 이어지는 삼각협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유기농 개발, 갯벌 보호 등과 같은 사업은 유엔의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이다.

■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two cases

Over the past ten years North Korea has been pursuing policies toward an eco-friendly and green economy. These include areas lik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the reduction and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organic farming among others. In these areas channels of cooperation with a number of European organizations have been opened. We would suggest to discuss two cases of cooperation between the EU and North Korea. One case is the cooperation, centered on food security and organic agricultural practices, between the Pyongyang International New Technology and Economy Information Exchange Company (PIINTEC) and the IFOAM Organics International. The second case is the project between the Dutch-German-Danish Trilateral Wadden Sea Cooperation and North Korea on the preservation of the North Korean wadden sea. Both projects do not fall under the UN sanction regimes.

좌장 Moderator



이은정

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

LEE Eun-Jeung

Freie Universität Berlin, Director

이은정 교수는 현재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 겸 동아시아대학원 원장으로, 정치사상사와 정치이론, 체제변동과 정치문화에 관한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에 베를린-브란덴부르크학술원 (구프러시아 왕립학술원) 정회원으로 선출되었고, 2013년에는 유럽아카데미 (아카데미아 오이로페아) 정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알렉산더폰훔볼트재단 (1994-1996), 독일연방공화국 작센안할트주 (1997-1999) 저팬화운데이션 (2001-2002)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펠로우십을 받았다. 2019년에는 통일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Prof. LEE Eun-Jeung, with a research focus on the intercultural history of political ideas, is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the Freie Universität Berlin and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Graduat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in Berlin. She is a Member of the Academy of Art and Science Berlin-Brandenburg (former Royal Prussian Academy) and Academia Europea. Lee has served as a Member of the German-Korean Advisory Council for Foreign and Unification Policy (2014-2017). She was a Fellow of Alexander von Humboldt Foundation at the Institute for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Halle (1994-1995); Fellow of State Sachsen-Anhalt Germany (1997-1999); Fellow of Japan Foundation at the Aoyama Gakuin University Tokyo (2001-2002).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stowed, in 2019, Prof. Lee with the Order of Civil Merit (Moran Medal) for her Work in the Field of Peace and Unification.

발표자 Presenter



안드레 리우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국제팀장

Andre LEU

Regeneration International, International Director

안드레 리우 이사는 Regeneration International의 세계이사이다. 해당 단체는 기후, 행성, 사람 모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식량사용, 농업기술 및 토지사용 시스템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Regeneration International은 70개국에 350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두고 있으며 농업, 유기농 식품, 농경, 생태 농업, 총체적 방목, 생물 농업, 유기농, 농업 등 수많은 농업 시스템과 협력하고 있다. 45년에 걸쳐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온 안드레 리우 이사는 작물개발의 손꼽히는 전문가이다. 그는 'Poisoning our Children' 및 'Myths of Safe Pesticides'라는 두 권의 책 외에도 잡지, 신문, 저널, 회의록, 뉴스레터, 웹사이트에 많은 글을 기고하고 TV, 라디오, 온라인 매체를 망라하며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안드레 리우는 유기 분야의 최대조직이자 세계에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서 가장 오래 재임한 회장으로 널리 알려져있으며, 현재는 연맹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IFOAM의 회장으로 재임하던 2011년~2017년 기간동안 안드레 리우는 여러 차례 방북하며 강의와 교육을 통해 IFOAM의 '북한 유기농법 식량안보 프로젝트'에 기여했다.

세계 유수의 대학, 기관, 워크숍에서 강의하고 세계 각지의 유엔 행사, 관련 회의, 세미나, 워크숍에서 연설하는 안드레 리우 이사는 정부, 유엔 기구, 산업계, 농부, 소비자, 시민단체와의 접견을 통해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고 한편으로 빠른 적응을 돕는 회복농업과 토양유기물 증가의 다양한 이점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있다.

André Leu is the International Director of Regeneration International. This organization promotes food, farming, and land-use systems that regenerate and stabilize climate systems, the planet's health, and people. Regeneration International has over 350 partners in 70 countries and works with numerous agricultural systems: agroecology, organic foods, permaculture, ecological agriculture, holistic grazing, biological agriculture, organic agriculture, and agroforestry. André is one of the experts in these fields with his 45 years of working and visiting countries and developing new crops across Asia, Europe, North American, South America, and Africa.

Besides the two books entitled 'Poisoning our Children' and the 'Myths of Safe Pesticides,' he has published extensively in magazines, newspapers, journals, conference proceedings, newsletters, websites, numerous media interviews for T.V., radio, and online systems.

André was the longest-serving President of IFOAM – Organics International, the world change agent and umbrella body for the organic sector. IFOAM – Organics International. He is currently an IFOAM Ambassador.

As IFOAM President from 2011 to 2017, he took an active role with IFOAM's organic agriculture food security project in the DPRK. He visited the country many times to run training courses and give lectures.

He lectures and teaches at universities, institutions, and workshops around the world. He speaks at numerous conferences, seminars, workshops as well as United Nations events on every continent. He meets with governments, United Nations bodies, industry, farmers, consumers, and N.G.O.s on the multi-functional benefits of regenerative agriculture and the science of increasing soil organic matter to both mitigate and adapt to climate change.

북한의 지속 가능한 식량 체제 및 유기농업 개발을 위한 역량 구축 (BOKK)

안드레 리우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국제팀장

북한은 농업 자원이 척박해 농산물 생산량이 제한적이다. 북한은 대부분 산악 지형으로 이뤄져 있어, 총 면적 중 약 17% (20,000km²)만이 경작에 적합하다.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는 북한이 비료 또는 농약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기 보다 자립 및 자급 자족을 우선하는 북한의 주체 사상이다. 유기농업은 수입 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가와 현지의 자원만으로 풍작을 거둘 수 있게 하므로 주체 사상에도 적합하다.

유럽 연합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유기농업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의 3가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인도주의적인 행위로 여겨지므로 심각한 제재를 적용 받지 않는다.

프로젝트는 2012년 BOKK I 하에서 시작했고, 2015년 BOKK II로 이어져 2019년까지 지속됐다. 당시 본인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이행, 발표 및 교육을 위해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퇴임한 후 2018년에 3번째 프로젝트인 더 나은 제도를 통한 복원 (RBI, Resilience Through Better Institutions)을 시작했으며, 2022년 종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북한의 유기농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식량 및 영양 안보에 집중하며, 유기농업 관행 개발을 목표로 한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은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PIINTEC)와 함께 3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BOKK 프로젝트는 북한의 식량 및 영양 안보와 관련된 어려움을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극복하기 위해 유기농업의 확산을 꾀했다. 평양남도의 쌍운 농가를 유기농 시범 교육 농가로 지정했다. 농장 관리자는 농장의 일부를 유기농으로 전환해 다양한 유기농업 방식을 적용했다. 쌍운 농가는 북한의 현지 농업 방식에 유기농업 방식이 어떻게 적용 및 활용됐는지를 보여주는 현지 사례다.

가장 핵심적으로 농업과 영양 간의 관계를 강조했다. 북한의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BOKK는 정책, 교육, 실용이라는 3가지 차원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정책 수립 차원에서 BOKK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유기농업을 변화의 동인으로 지지하는 방식을 가르쳤다. 교육적 측면으로는 프로젝트에서 온라인 도서관을 지원하고, 책, 연구 논문, 과학 학회 및 유기농업에 대한 최신 연구 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실용적 차원에서는 프로젝트에서 250명 이상의 농업인 및 영양학자에게 유기농 전환과 관련된 기술적 이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현지 보급 체계를 활용해 5개도에서 800명 이상의 전문가 및 농업 종사자들에게 다가갔다.

Session 7-1

친환경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two cases

Building Sustainable Food Systems and Capacity for Organic Agriculture Developmen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OKK)

Andre LEU

Regeneration International, International Direct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sparse agricultural resources limit its agricultural production. The majority of the country consists of mountain terrain and only about 17% of the total landmass, or approximately 20,000 km², is arable.

The international sanctions meant that the DPRK could not get access to fertilizers or pesticides. Very importantly, the Juche philosophy means that the DPRK's priority is to be self-reliant and self-sufficient rather than relying on outside resources. Organic agriculture is ideal to achieve this due to not needing imported fertilizers and pesticides and instead can produce good yields with on farm and locally supplied inputs.

The European Union funded IFOAM-Organics International for 3 projects from 2012 to 2022 to scale up organic agriculture in the DPRK. These projects were not subject to the severe sanction regime because feeding the people of the DPRK is considered to be an humanitarian action.

The projects began in 2012 under the BOKK I and was followed by the BOKK II in 2015, which ran until 2019, during the time I was President of IFOAM-Organics International. I visited the DPRK several times to ensure that projects were running efficiently as well as presenting and doing training. The third project, Resilience Through Better Institutions (RBI), started in 2018, after I had retired, and will end in 2022. It focuses on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c sector in DPRK, paying special attention to food and nutrition security and the strengthening of organic agriculture practices. IFOAM - Organics International partnered with Pyongyang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w Technology Center (PIINTEC) on the three projects.

The BOKK projects sought to mainstream organic agriculture as the most sustainable way to address challenges related to food and nutrition security in DPRK. Ssangun Farm, located in the South Pyongyang Province was selected to serve as a demonstration site for organic trials practical training. The farm's management converted part of the farm to organic and adopted several organic agriculture practices on other areas of the farm. Ssangun Farm has served as a local example of how organic agriculture practices have been adapted and enriched by local agricultural practices of DPRK.

Critically, emphasis was plac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riculture and nutrition. To increase outreach around organic agriculture in the country, BOKK worked across three levels: policy, academia, and practical. At the policymaking level, BOKK trained government officers on how to advocate for organic agriculture as agents of change. At the academic level, the project supported an online library and provided books, research papers, a scientific conference and information on the latest research developments in organic agriculture. And at the practical level, the project trained over 250 agricultural and nutrition professionals on technical issues regarding organic conversion and utilized local dissemination systems to reach over 800 professionals and farm workers in five provinces

발표자 Presenter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MYOUNG Ho

Eco-Horizon Institute, Vice President

명호 부소장은 2006년부터 NGO기반의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생태지평연구소 (Eco-Horizon Institute where field and theory meet)'에서 환경정책 및 생태계 보전 연구를 하고 있다.

그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운동연합(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에서 환경정책을 담당했다. 그는 정부주도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하여 생태계 보전운동을 전개하면서, 주민 공동체 기반의 자연자원 보전과 보호지역 지정, 자연자산에 기반한 지역 발전 전략 마련, 시민모니터링 체계 구축, 민-관 협력에 기반한 보호지역 관리 등에 관여하고 있다.

생태지평연구소에서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한반도 갯벌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관리, 와덴해 3국(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국제협력, 황해 3국(Yellow Sea/한국, 중국, 북한 등) 갯벌의 공동관리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의 현장 대응을 총괄하였고, 2012년 및 2020년에는 한국환경단체를 대표하는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을 담당하기도 했다.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삼성 중공업-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시민과학에 기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양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2016년부터 갯벌키퍼스 플랫폼([https:// getbolkeepers.org](https://getbolkeepers.org))을 개발하여 전국 단위의 시민 철새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민간환경정책협의회 자연 분과장, 국립생태원 습지보전 정책협의회 위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중앙관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문화재청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Mr. MYOUNG Ho, the Vice President of Eco-Horizon Institute, an NGO-based institute with the slogan 'where field and theory meet,' has been researching environmental policies and ecosystem conservation.

Between 1996 and 2005, he was responsible for environmental policies in the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He initiated ecosystem conservation movements to recuperate the ecological damage done by several government-led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He is now involved in conserving natural resources and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s based on local communities, developing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natural assets, building civic monitoring systems, and managing protected areas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Eco-Horizon Institute was involved in efforts to seek registration of 'Korea's tidal flats' as world natural heritage, sustainabl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idal flats on the Korean peninsula, transborder cooperation with three countries by Wadden Sea (Germany, Denmark, the Netherlands), and joint management of tidal flats in three countries by the Yellow Sea (Republic of Korea, China, North Korea, etc.)

Between 2008 and 2010, he was in charge of the environmental agencies' field response against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and between 2012 and 2020, he was the Steering Chair of 'Korea Environment Meeting.' Following the Samsung-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on a beach in Taean in 2007, he conducted field studies to conserve the ecosystem based on citizen science. In 2016,

발표자 Presenter

he developed the Tidal Flat Keepers platform to enable ongoing nationwide research on migratory birds.

Currently, he is a member of the Central 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ember of the Central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Director of Nature Sub-committee in Public-Private Environmental Policy Consultative Council, member of Policy Consultative Body for Wetland Preservation at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nd member of Central Marine Sanctuary Management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e is also involved in registering Getbol (Korean Tidal Flats) as a world natural heritage.

와덴해에서 황해까지: 갯벌 보전을 위한 와덴해와 남-북의 공동 협력 프로젝트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상황에서도 최근 갯벌과 습지 관련 국제 환경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국토환경보호성의 IUCN 가입(2017), 람사르협약 가입(2018) 및 람사르 사이트 등록(문덕, 라선 철새보호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EAAFP) 가입(2018) 및 네트워크 서식지 등록(문덕, 금야 철새보호구), 황해 조간대 및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워킹그룹 참여(2018~), 람사르사이트 관리자 교육 워크숍의 지역단위 관리 실무자 참여(2018), 국제기구 및 전문가 그룹과의 철새 공동조사, 해외 전문가 초청 습지 관련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추진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과정은 북한의 갯벌 현황 및 관리 실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북한은 다양한 국제협약 및 관련 기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습지 보호관리 정책의 국제적 흐름에 맞춰 자국 내 습지 및 철새 공동조사, 습지보전계획 수립, 주민이 참여하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 모델 개발, 습지 보전 역량 강화 및 대중인식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생태지평연구소는 2009년부터 굳건하게 쌓아온 와덴해 공동사무국과 베를린자유대 한국학연구소와의 교류와 협력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황해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북한의 갯벌과 습지 보전 노력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는 1980년대부터 추진된 와덴해 3국의 갯벌보전 공동협력 모델이 황해를 공유하는 3국의 공동협력에도 도움이 되며, 북한의 갯벌보전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창구 역할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매우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어 당분간 활발한 교류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대북제재와 코로나 봉쇄조치에 더하여 심각한 식량위기는 오히려 북한이 대규모 농경지와 양식장 확보를 위해 황해 보전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북한의 갯벌을 빠른 속도로 파괴하는 갯벌매립정책을 추동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 결과는 또 다시 지구적 차원의 생물다양성 감소와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철새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차원의 생태계 보전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는 환경과 갯벌 보전이라는 비정치적 이슈를 통해 북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의 형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황해 3국 중 한국과 중국은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전략을 통해 적극적인 갯벌보전에 나서고 있으며, 이미 10년 전에 와덴해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와덴해 3국의 공동협력은 황해 3국에도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남아 있는 북한이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전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 파괴와 해양오염, 남획 등이 집중되고 있는 황해 보전을 위해 북한의 갯벌보전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사업이 시급하며, 이는 결국 지구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From Wadden Sea to the Yellow Sea: Joint Cooperation Project by Wadden Sea and the South-North Koreans for the Conservation of Wetlands

MYOUNG Ho

Eco-Horizon Institute, Vice President

Despite the North Korea sanction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North Korea has been recently proactively engaging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etworks related to mud flats and wetlands. The Ministry of National Territory Environment Protec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joined the IUCN (2017), acceded to the Ramsar Convention (2018), and designated Ramsar sites (Mundok and Kumya Migratory Bird Reserves), joined the East Asian-Australian Flyway Partnership (EAAFP) in 2018 and designated network habitats (Mundok and Kumya Migratory Bird Reserves), engaged in working groups to conserve coastal wetlands and intertidal zones in the Yellow Sea (2018~), regional working level manager participated in the Ramsar site manager training workshop (2018), took on joint investigation on migratory bird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xpert groups, and invited overseas experts to hold wetland workshops and training programs, to name just a few examples of North Korea's engagements.

The engagements led to internationally opening up the status and management conditions of wetlands in North Korea. North Korea is engaging in joint investigations on wetlands and migratory birds in North Korea, establishing wetland conservation plans, developing models to wisely use the wetlands with the participation of its people, and strengthening wetland conservation capabilities, aligned to the international trends of wetland protection and management by acceding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aking part in various programs offered by relevant organizations. Also, North Korea is actively requesting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s interest and support to raising the public's awareness.

To support this, based on the strong trust relation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Comon Wadden Sea Secretariat an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n Freie Universität Berlin since 2009, the Eco Horizon Institute has been discussing the detailed plans to support North Korea's efforts to conserve mud flats and wetlands, as a partner that share the Yellow Sea. It is because we believe that the joint effort model to conserve the wetlands created by the Trilateral Wadden Sea Cooperation since the 1980s helps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3 countries that share the Yellow Sea, and that it acts as a stable window to support North Korea's wetland conservation activities.

Currently, North Korea has closed down its borders in order to prevent COVID-19, making it difficult to engage in active exchange and cooperation. Also, added to 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COVID-19 controls, the severe food crisis is inducing policies that aim to reclaim and wetlands to secure large-scale farmlands and fish farms, which in turn destroys the wetlands in North Korea, which is the most critical in conserving the Yellow Sea. As a result, it will lead to reduced global biodiversity, destruction of international migratory bird reserves, and negative impact to climate change.

Therefore, in order to conserve the global ecosystem and to mitigate climate change despite the international society's sanctions on North Korea, we need to create platforms and diverse programs that can provide stable support to North Korea through non-political issue of environment and wetland conservation.

Session 7-1

친환경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two cases

Of the 3 Yellow Sea countries, South Korea and China is already actively working to conserve the wetlands by registering the wetlands as a World Heritage. The Trilateral Wadden Sea Cooperation that registered the Wadden Sea wetlands as a world heritage 10 years ago is a good role model for the 3 Yellow Sea countries. We need to urge North Korea to join in designating their wetlands as a world heritage and to provide continued support in the North's efforts to conserving their wetlands, so that we can conserve the Yellow Sea, where marine ecosystem destruction, marine pollution, and overfishing is prevalent. These efforts in the end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conservation of the global ecosystem.

토론자 Discussant



김상국

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

KIM Sangkuk

Freie Universität Berlin, Research Fellow

김상국 교수는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연구교수이다.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 비교연구, 독일과 유럽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을 주요 연구분야로 두고 있으며, 현재 한반도 남-북측간 환경사업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독일 할레 루터대학에서 수학했고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수 년간 주독 한국 대사관에서 에너지 환경정책 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연구와 더불어 현재 해외 통일 교육위원이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Dr. KIM Sangkuk, a Research Fellow and Lecturer at Freie Universität Berlin, researches comparative studies of German unification and Korean unification and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ies in Germany and Europe as his core research areas. He is working on an ecological cooperation projec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n the Korean Peninsula. He studied at Halle Luther University in Germany, received a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Freie Universität Berlin, and served as an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er at the Korean Embassy in Germany for several years. He is a Member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Committee and Member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토론자 Discussant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CHOI Chang Yong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Professor

최창용 교수는 시라큐스 대학에서 사회과학(정책학 전공)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CID) 정책자문·평가실장직을 수행하면서 KSP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시스템을 구축했다. 주요 연구영역은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개혁, 북한 개발협력 등이며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개발도상국의 제도개혁, 국제개발협력의 거버넌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몽골, 라오스, 베트남 정부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사업을 수행했고, 최근 연구물로는 Differential Effect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n (De-) Democratization of Authoritarian Regim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북한 대상 기술협력 분석과 협력 방안 연구” 2020,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한국개발연구원, 2019 등이 있다.

Prof. CHOI Chang Yong is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at the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development assistance, governance reform,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Working as an advisory director at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K.D.I., he established the Knowledge Sharing Program's planning, managing, and evaluation system. As a professor, he has taught institutional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and governanc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e received his Ph.D. in Social Science (Public Policy concentration) in the Maxwell School of Citizenship and Public Affairs of Syracuse University.

Session 7-2

북한의 지속가능 경제와 회복탄력적 사회 Sustainable Economy and Resilient Society in North Korea

주관기관
Organized by

센트럴랑카셔대학교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UK

좌장
Moderator

하네스 모슬러 독일, 뒤스부르크 에센대학교 교수
Hannes MOSLER University of Duisburg-Essen, Professor

발표
Presenter

- 케빈 그레이 영국, 서섹스대학교 교수
• Kevin GRAY University of Sussex, Professor
- 니키 올스포드 영국, 센트럴랑카셔대학교 교수
• Niki ALSFORD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Professor
- 버지니 그르젤치크 영국, 아스톤대학교 교수
• Virginie GRZELCZYK Aston University, Professor
- 임소진 영국, 센트럴랑카셔대학교 부교수
• LIM Sojin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Associate Professor

토론
Discussant

- 크리스토퍼 그린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조교수
• Christopher GREEN Leide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마르코 밀라니 이탈리아, 볼로냐대학교 조교수
• Marco MILANI University of Bologna, Assistant Professor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7-2)

북한의 지속가능 경제와 회복탄력적 사회

이 세션은 북한의 사후 제재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사후 제재 완화 노력의 잠재적 범위를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즉, 이 패널은 향후 국제사회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사후 제재 준비의 필요성으로 근거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사후 제재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한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과 탄력적인 사회의 새로운 보안 문제를 다룬다.

본 세션에서 네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째, 대북 제재의 영향과 기존 제재의 수정 방법을 다루는 반면, 둘째 영국이 경제발전과 사회 측면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관여해왔는지, 향후 제재 시나리오에서 포용력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한다. 또한 쿠바, 미얀마와 같은 사례에서 배운 교훈에 특히 초점을 맞춰 사후 제재 시나리오를 다루는 과제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기초하여 미래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세션은 최근 제기되는 새로운 보안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북한의 현재와 사후 제재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다룰 수 있도록 전통적 안보에서 인적 안보로의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Sustainable Economy and Resilient Society in North Korea

This panel intends to focus on the post-sanction scenario in North Korea by outlining the potential scope for post-sanction relief efforts. In other words, this panel aims to expand the rationale to the need of preparation of post-sanctions development in North Korea by providing future direction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project addresses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of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resilient society as a way of preparing for a post-sanction scenario. We plan to conduct research in four key areas in this panel. While the first panelist deals with the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how existing sanctions can be revised, the second panelist discusses how UK has engaged North Korean issues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ety, and how its engagement needs to be developed in the future in a (post)-sanctions scenario. Both third and fourth panelists provide future implications based on how to meet the challenge of dealing with post-sanction scenarios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lessons learned from other cases, such as Cuba and Myanmar. This panel will consider the necessity of addressing recently raised issues of non-traditional security. It will also discuss a possible paradigm change from traditional security to human security so that we can address socio-economic changes in a current and post-sanctions North Korea.

좌장 Moderator



하네스 모슬러

독일, 뒤스부르크 에센대학교 교수

Hannes MOSLER

University of Duisburg-Essen, Professor

하네스 B. 모슬러는 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에서 한국의 정치 및 사회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동아시아 사회과학위원장이다. 동 대학 산하 정치학연구소 및 동아시아학연구소(IN-EAST)에서도 활동 중이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과거 국학연구원 및 베를린 자유대학교 동아시아대학원(GEAS)에서 강의하던 중 교수로 임용되었다.

Professor Hannes B. MOSLER holds the Chair for Social Sciences of East Asia with a focus on Politics and Society of Korea at the University of Duisburg-Essen, where his affiliation is with the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and the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IN-EAST). He received his M.A. from the Humboldt University of Berlin and earned his Ph.D. from the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viously, he was a lecturer and later was appointed Professor for Korean Politics at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nd the Graduat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GEAS) of Freie Universität Berlin.

발표자 Presenter



케빈 그레이

영국, 서섹스대학교 교수

Kevin GRAY

University of Sussex, Professor

케빈 그레이 교수는 서섹스 대학교 글로벌학부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친다.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의 정치경제학, 그리고 보다 광범위하게는 동아시아의 발전이다. 저서로는 북한과 발전의 지정학(이종운과 공저)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 출판 예정), 한국의 근로자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루트리지, 2008), 동아시아의 노동과 발전: 사회적 세력과 수동적 혁명(루트리지, 2015) 등이 있다. 그가 편집한 책으로는 신흥 강대국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루트리지, 2018)(배리 길즈 공편), 글로벌 위기의 시대 속 사람의 힘: 반란, 저항 및 해방(루트리지, 2013)(배리 길즈 공편), 신흥 강대국과 남남협력(루트리지, 2018)(크레이그 머피 공편) 등이 있다. 또한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New Left Review, Pacific Review, New Political Economy, and Third World Quarterly 등의 학술지에 글을 게재한 바 있다.

Professor Kevin GRAY is a Professor in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School of Global Studies, University of Sussex. His research expertise relates to the political economy of North Korea and East Asian development more broadly. He is a co-author, along with Jong-Woon Lee of North Korea and the Geopolitics of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rthcoming), as well as Korean Workers and Neoliberal Globalisation (Routledge, 2008), Labour and Development in East Asia: Social Forces and Passive Revolution (Routledge, 2015). He is also editor of (with Barry Gills) Rising Powers and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Routledge, 2018); (with Barry Gills) People Power in an Era of Global Crisis: Rebellion, Resistance, and Liberation (Routledge, 2013); (with Craig Murphy) Rising Powers and South-South Cooperation (Routledge, 2018). His work has also appeared in the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New Left Review, Pacific Review, New Political Economy, and Third World Quarterly.

북한의 의류산업 및 UN 제재

케빈 그레이

영국, 서섹스대학교 교수

북한에 대한 다자간 국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북한 경제에 압박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재가 북한의 지역 및 글로벌 의류 생산 네트워크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논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위탁 기반 가공 방식을 통해 의류 수출국의 경쟁력을 키워왔다. 공식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부문별 금지 이후 북한의 의류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보다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수출활동이 계속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북한의 의류 생산 네트워크 내 통합은 중국 동북 접경 지역의 공장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형태로도 나타났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관행에 제재가 적용되면서 중국 기업과 지방 정부의 도움을 받아 방문 비자로 일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북한의 의류 생산 네트워크 내 통합의 회복력은 자본주의 논리를 따르며, 이는 모든 관련 행위자들에게 고수익을 가져다 주는 의류 생산업의 특성과 더불어 그만큼 더 강력히 제재를 회피하려는 열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논문의 분석은 제재 조치가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관행으로 이어지고 비밀경제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North Korea's Apparel Industry and UN Sanctions

Kevin GRAY

University of Sussex, Professor

The strengthening of multilateral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s raised questions as to how effective they are in exerting pressure on the country's economy. In this paper, the question is addressed through examining their impact on the country's integration into regional and global apparel production networks. As the paper argues, North Korea has in the past decade become an increasingly competitive exporter of apparel on the basis of consignment-based processing arrangements. Official trade data shows a sharp drop in North Korean exports of clothing since the sectoral ban in 2017. There is evidence to suggest, however, that exports have continued on a more informal and clandestine basis. North Korea's integration into apparel production networks has also taken the form of the dispatch of workers to factories in China's north-eastern border regions. Yet there is evidence that the recent sanctions imposed on such practices has similarly led to illicit practices such as working on visitors' visas, often with the help of Chinese enterprises and local government. The resilience of North Korea's integration into apparel production networks follows a capitalist logic and is result of the highly profitable nature of apparel production for all actors concerned and a correspondingly strong desire to evade sanctions. As such, the analysis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sanctions that suggests that the measures may contribute to emergence of growing informal and illicit practices and to the role of the clandestine economy.

발표자 Presenter



니키 올스포드

영국, 센트럴랑카셔대학교 교수

Niki ALSFORD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Professor

니키 J. P. 올스포드는 센트럴랑카셔대학의 아시아태평양학 교수이자 동 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이다. 아시아태평양학연구소장, 국제한국학연구소 공동소장, 대만학북부연구소 공동소장, 오스트로네시아 연구센터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연구대학(SOAS) 내 대만연구센터의 연구원이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원이다. SOAS에서 현대동아시아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사인류학자로서 주로 대만의 민족역사 비교연구를 한다. 특히 오스트로네시아족의 이주와 아시아태평양 해안지역의 역사인류학을 중점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개발인류학과 태평양 지역의 기후 인류학도 연구한다. 저서로는 2017년 루트리지에서 출판한 *Transitions to Modernity in Taiwan: The Spirit of 1895 and the Cession of Formosa to Japan*이 있다. 또한 BRILL에서 출판한 대만 시리즈와 루트리지에서 출판한 한국 연구 시리즈의 편집자이기도 하다.

Professor Niki J.P. ALSFORD is a Professor in Asia Pacific Studies and Head of Asia Pacific Institutes at the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being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the Asia Pacific, Co-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nd the Northern Institute of Taiwan Studies, and Chair of the Centre for Austronesian Studies. He is also a Research Associate at the Centre of Taiwan Studies at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and a research fellow at the Ewha Institute of Unification Stud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He received his Ph.D. in Modern East Asian History from SOAS. As a historical anthropologist, his research focuses on Taiwan's comparative ethnohistorians. Chief among these is an engagement with Austronesian migration and the historical anthropology of the maritime Asia Pacific region. In addition to this, he works on developmental anthropology in North Korea and climate anthropology in the Pacific. He is the author of *Transitions to Modernity in Taiwan: The Spirit of 1895 and the Cession of Formosa to Japan*, published by Routledge in 2017. He is book series editor for the Taiwan series at BRILL and the Research on Korea series at Routledge.

EU 내 풀뿌리 유사 마셜플랜에 대해

니키 울스포드
영국, 센트럴랑카셔대학교 교수

1948년 4월 3일, 미국은 모겐소플랜을 대체하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유럽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120억 달러 이상(현재 가치로 10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간 장벽의 완화, 엄격한 규제의 철폐, 경제적 생산성의 장려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오래된 역사적 분열을 치유하고 오늘의 유럽연합(EU)으로 성장하게 될, 상호 연결되고 통합된 유럽의 토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이 경제 발전의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EU가 이와 유사한 계획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남북한 및 북미 간 나타난 화해의 암시는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연시킨 UN 안보리 결의 해제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金正은은 북한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경제 발전이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의 경우처럼) 항상 현대화 이론의 규칙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인지 하에 지속적 협상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 간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셜플랜 도입 후 4년 간 EU의 경험은 이러한 계획의 실행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경험을 통한 교훈을 바탕으로 북한을 위한 유사 마셜플랜이 국가 자체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상향식 및 NGO 주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EU가 향후 북한의 경제 및 사회 발전 과정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Session 7-2

북한의 지속가능 경제와 회복탄력적 사회

Sustainable Economy and Resilient Society in North Korea

The Writing of a Grassroots Marshall-like Plan within the EU

Niki ALSFORD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Professor

On 3 April, 1948, the United States gave over \$12 billion (more than \$100 billion in today's money) to replace the Morgenthau Plan and assist in the rebuilding of Western Europe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It required a lessening of interstate barriers, dropping of rigid regulations, and an encouragement of economic productivity. It laid the foundations for an interconnected and integrated Europe that would eventually heal old historic divides and grow into what is now the European Union (EU).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k out whether the EU should lead in writing up a similar plan for North Korea as it begins to open its doors to economic development. The hint of rapprochement between the Koreas as well as with the United States, have substantial implications for the removal of UNSCRs that have slowe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s its leader, Kim Jong-un consolidates his power, and with the knowledge that economic development does not always follow the rules of Modernisation Theory (as is the case of China, Singapore, and Vietnam), his continued negotiations may result in improved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experience that the EU had during the four years of the Marshall Plan gives it a first-hand awareness of the difficulties that implementing it can have. Given the benefit of hindsight, this paper argues that perhaps The North Korean Marshall-like plan should be bottom-up and NGO driven to impact North Korean society directly, rather than working as a function of the state itself. Attention to this is important if the EU wants to have a seat at the table on the future of North Korea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발표자 Presenter



버지니 그르젤치크

영국, 아스톤대학교 교수

Virginie GRZELCZYK

Aston University, Professor

버지니 그르젤치크는 아스톤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사회과학 및 인문학 대학 학장이다.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정부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외교안보학 석사를 받았다. 주 연구 분야는 한반도, 특히 북한의 안보관계이며, 6자회담 프로세스, 북한의 에너지안보 딜레마, 통일이라는 맥락 내 한국의 정체성, 동북아시아 위기의 개념, 북한의 대외관계 등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최근 진행 중인 연구 주제는 분쟁 및 분쟁 후 지역에서 장난감의 정치학이며 Leverhulme 연구 펠로우십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이다.

Professor Virginie GRZELCZYK is a Professor in International Relations at Aston University and Head of the Schoo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She holds an M.A. and Ph.D. in Government and Politics from the University of Maryland and an M.A. in Diplomacy and Security from Ewha University. Her research focuses on security relationships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especially about North Korea, with publications spanning the Six-Party Talks process, North Korea's Energy Security Dilemma, Korean identity in the context of reunification, the concept of crisis in Northeast Asia, and North Korea's foreign relations. Her latest project focuses on the Politics of Toys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pheres and has been supported by a Leverhulme Research Fellowship.

제재 (이후) 발전에서 쿠바의 보건 부문 발전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버지니 그르젤치크

영국, 아스톤대학교 교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쿠바는 공통점이 거의 없어 보일 수도 있다. 두 나라 모두 식민지화, 혁명, 생존에 대한 위협을 경험했지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서로 다른 정치적, 지리적 영역 속에서 진화해왔다. 그러나 두 나라는 모두 냉전의 영향을 받았으며, 한쪽으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SSR), 다른 한쪽으로는 미국(USA)이라는 후견국의 이익을 위해 대리 전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 결과, 북한과 쿠바는 1950년대 이후 일방적이고 다자적인 제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쿠바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성공했고 의료 서비스를 전 세계에 수출하기까지 했다. 북한이 의료보건 분야 회복력에 있어서 쿠바 의료보건 분야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본 논문은 북한과 쿠바 의료보건 분야의 결정 요인들을 검토하고 쿠바에 제공된 개발 협력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의료보건 부문 및 사회 회복력을 위한 길을 모색한다.

Health Sector Development of Cuba in (Post)-Sanction Development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Virginie GRZELCZYK

Aston University, Profess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Cuba might have little in common: whilst they have experienced colonisation, revolution, and threats to their own survival they are located several thousand miles apart and they evolved within different political and geographical spheres. Yet, they have both been shaped by the Cold War, embroiled in proxy-wars that served the interests of their patron states, the United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 on the one hand, and the United States (USA)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both the DPRK and Cuba have experienced since the 1950s a heavy set of unilateral and multilateral sanctions. However, Cuba has managed to strive as a provider of universal healthcare and has also exported its medical services around the world. What is there to learn from the Cuban health sector experience for the DPRK, when considering its own health sector resilience? This paper considers the determinants of both the DPRK and Cuba's health sectors, examines in detail how development cooperation was provided in Cuba, and considers the avenues for the DPRK's own health sector and society resilience.

발표자 Presenter



임소진

영국, 센트럴랑카셔대학교 부교수

LIM Sojin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Associate Professor

임소진 교수는 센트럴 랑카셔 대학교(UCLan)에서 북한학 석사과정 및 아시아태평양학 석사과정 리더이자 부교수이며, 국제한국학연구소(IKSU) 공동소장이다. '루트리지 한국 연구' 시리즈의 공동편자이자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UCLan 부임 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원조기구에서 현장실무경험을 갖춘 선임연구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한국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개발정책경영연구소(IDPM)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북한 및 탄자니아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개발, 공공정책, 정치경제학 등 주제에 대한 논문과 단행본 내 장을 집필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공동편저인 *Assessing the Landscape of Taiwan and Korean Studies in Comparison* (2021)를 출판했다. 또한 BBC에 출연하는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한반도 내 변화에 대해 논하곤 한다.

Dr. LIM Sojin is an Associate Professor, Course Leader for both M.A. in North Korean Studies and M.A. in Asia Pacific Studies, and Co-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Korean Studies (IKSU) at the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UCLan). She works as Co-Editor of the 'Routledge Research on Korea' series and is also a Research Fellow at the Ewha Institute of Unification Stud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Before joining UCLan, she worked for aid agencies, such as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a senior research fellow with hands-on field experience. She obtained both B.A. and M.A. degree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South Korea, and her Ph.D. degree from the Institute for Development Policy and Management (IDPM) at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U.K. She is the author of articles and book chapters on sustainable development, public policy, and political economy with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anzania. She recently published a co-edited book, *Assessing the Landscape of Taiwan and Korean Studies in Comparison* (2021). She frequently discusses recent changes in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in media interviews, such as BBC.

제재 이후 미얀마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과 북한에 미치는 영향

임소진

영국, 센트럴랑카셔대학교 부교수

대북제재 이후, 그리고 제재의 부분적 해제 시기에도 다수의 개발협력 주체들이 북한에 ODA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되든지 간에 양자원조기관과 국제기구는 인도적 지원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경제 발전과 사회 회복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임은 거의 확실하다. 과거 제재를 경험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제공받은 미얀마의 사례를 통해 제재 이후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사회적 발전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방향 수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제재 이후 미얀마에서 국제협력이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북한에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Post-Sanction Myanmar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LIM Sojin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Associate Professor

In post-sanctions North Korea, and even during times in which sanctions are partially lifted, there will be multiple development cooperation actors entering North Korea to provide ODA and other forms of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Regardless of when this happens, it is almost certain that bilateral donor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will need to cooperate beyond humanitarian aid to bring about wider economic development and contribute to a resilient society. A set of modifications to support changes in the economic, political, technical and social development of North Korea in a (post-)sanction period need to be sought for from the case of Myanmar where the country experienced sanctions in the past and received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in the post-sanction period. With this in mind, this research discusses how post-sanctions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 provided in Myanmar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토론자 Discussant



크리스토퍼 그린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조교수

Christopher GREEN

Leide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크리스토퍼 그린 교수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에서 한국학 부교수로 강의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 리스크 그룹의 북한 전문 분석가이다. 과거에는 국제위기감시기구의 선임자문을 지냈고 북한 내 훈련받은 시민기자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 내부 소식을 보도하는 서울 기반 언론회사 데일리NK의 국제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북한 정치, 경제, 이념, 문화를 비롯하여 현대 한국 방송언론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등에 대해 폭넓은 글을 집필했다. 고령의 탈북자 황장엽이 쓴 회고록의 번역가이기도 하다.

Dr. Christopher GREEN i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of Leiden University, Netherlands, and N.K. Pro Analyst at Korea Risk Group. He is a former senior advisor for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and manager of the international department of Daily N.K. This Seoul-based media company reports inside news from North Korean affairs via a network of trained citizen journalists inside the country. He has published widely on North Korean politics, economy, ideology, culture, as well as contemporary South Korean broadcast media portrayals of resettled North Korean migrants. He is also renowned as the translator of the memoir of Hwang Jang-yop, a senior North Korean defector.

토론자 Discussant



마르코 밀라니

이탈리아, 볼로냐대학교 조교수

Marco MILANI

University of Bologna, Assistant Professor

마르코 밀라니는 볼로냐 대학교 예술학부 조교수다. 과거에는 셰필드 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조교수, 한국학 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 그리고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조교수로 활동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했고 통일평화연구원(한국)과 라이덴지역학연구소(네덜란드)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지냈다. 남북의 대외정책, 한국현대사, 남북관계 등의 주제로 여러 논문 및 단행본 내 장을 집필했다. 공동편저에는 *The Korean Paradox: domestic political divide and foreign policy in South Korea*(루트리지, 2019)라는 제목의 한국 대외정책 관련 단행본이 있다. 현재는 '남북협력의 진화: 역사, 이론 및 관행'이라는 제목의 본인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단행본 원고 작업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로는 한국현대사, 동아시아 역사 및 국제관계, 남북 대외정책, 남북관계, IR 이론 등이 있다.

Dr. Marco MILANI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Arts of the University of Bologna. Previously, he was a Lecturer at th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of the University of Sheffield, Postdoctoral Fellow at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and Lecturer at th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He also held teaching positions at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 was a visiting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outh Korea, and the Leiden Institute for Area Studies, Netherlands. He has published numerous articles and book chapters on North and South Korea's foreign policy,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nd inter-Korean relations. He is co-editor of the book on South Korea's foreign policy titled *The Korean Paradox: domestic political divide and foreign policy in South Korea* (Routledge, 2019). He is currently working on a book manuscript based on his research titled 'The Evolu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History, Theory, and Practice.'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Contemporary Korean history,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 North and South Korea Foreign Policy, Inter-Korean relations, and I.R. Theory.

Session 7-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유럽의 새로운 역할

A New Role for Europe i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주관기관
Organized by

독일국제전략연구소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SWP)

좌장
Moderator

구드룬 와커 독일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Gudrun WACKER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Senior Fellow

패널
Panelist

- 앙트완 본다즈 전략연구재단-한국 포커스 팀장
- Antoine BONDZ Foundation for Strategic Research-Korea Focus, Director
- 에릭 발바흐 독일국제전략연구소 한국재단 연구원
- Eric BALLBACH Y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Korea Foundation Fellow
- 라몬 파체코-파르도 브리제 대학교 브뤼셀 & 킹스 칼리지 런던 KF-VUB 한국 회장 겸 국제관계학 교수
- Ramon PACHECO-PARDO Vrije Universiteit Brussel & King's College London, KF-VUB Korea Chair &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 테레사 노보트나 독일, 베를린자유대 한-유럽센터 연구원
- Tereza NOVOTNA Freie Universität Berlin, Korea Europe Center Fellow
-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즈 EU대표부 남북겸임대사
- Maria CASTILLO-FERNANDEZ EU Ambassador in Korea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7-3)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유럽의 새로운 역할

지난 10년간 유럽연합(EU)과 한국(ROK) 간 협력의 수준과 정도가 생생하게 증가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양국은 EU가 전 세계에서 맺은 10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 하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며, 이는 EU와 한-자유무역협정과 함께 협력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유럽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브뤼셀의 적극적인 참여는 증가하기는커녕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가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유럽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논의 중인 가운데, 현재 시기는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유럽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반대로, 제안된 패널은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한 유럽의 전향적인 참여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논의한다. 유럽의 저명한 유럽-한국 관계 전문가들이 베를린, 브뤼셀, 파리의 주요 연구기관에서 개최하는 네 차례 발표에는 유럽, 한국, 그 밖의 학자들과 학자들 간의 정책 관련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주한 EU 대사의 답변이 이어진다.

A New Role for Europe i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evious decade saw a vivid increase in the level and degree of cooperation between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Most notably, both sides concluded a strategic partnership, one of only ten strategic partnerships the EU has formed in the world, which, together with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constitutes an important pillar of cooperation. On the other hand, Europe's role i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limited at best, and Brussels proactive engagement in this matter appears to be decreasing rather than increasing. With the EU currently discussing a more active contribution of Europe to the security in the Indo-Pacific, the current time provides an opportunity to critically rethink the role of Europe in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proposed panel discusses new and innovative ways to increase Europe's proactive engagement in and contributions to Korean peninsula peace affairs. The four presentations, held by renowned European experts on Europe-Korea relations from leading research institutions in Berlin, Brussels and Paris, are followed by a reply of the EU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facilitate a policy-relevant debate between scholars and academics from Europe, Korea, and beyond.

패널 Panelist



에릭 발바흐

독일국제전략연구소 한국재단 연구원

Eric BALLBACH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Korea Foundation Fellow

에릭 발바흐는 베를린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독일 국제전략연구소(SWP) 아시아연구부 부장이다. 2015년부터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연구원이자 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Eric J. Ballbach is an associate in the Asia research division at the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SWP), a leading think tank in Berlin. Since 2015, he has been a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and lecturer at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the Freie Universität Berlin.

패널 Panelist



테레사 노보트나

독일, 베를린자유대 한-유럽센터 연구원

Tereza NOVOTNA

Freie Universität Berlin, Korea Europe Center Fellow

테레사 노보트나 박사는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유럽연구협력센터의 연구원으로서 과거에 EU의 대북정책 관련 “EUSKOR” 연구사업에서 마리퀴리 액션 지원금을 수여했다. 또한 프라하의 싱크탱크 EUROPEUM의 선임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테레사는 서울대학교 한국국제교류재단 객원교수였으며 상해 푸단대학교의 푸단 연구원으로도 있었다. 2012년에서 2017년 동안 활동했던 브뤼셀 자유대학교의 유럽학연구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 테레사는 2012년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나머지 학위는 프라하 카렐 대학교에서 취득했다. 전공논문의 제목은 How Germany Unified and the EU Enlarged: Negotiating the Accession through Transplantation and Adaptation (Palgrave Macmillan, 2015)였으며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Studia Diplomatica에 EU의 대외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고 38th North, The Diplomat,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9DashLine 등에 EU-동북아시아 관계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테레사는 인더스 뉴스, 체코 TV, NK 뉴스 등 여러 언론매체에 해설자로 등장한다.

Dr. Tereza NOVOTNÁ is a Korea-Europe Center Fellow at Free University Berlin. She previously held a Marie Skłodowska-Curie “EUSKOR” research project on the EU’s foreign policy towards North Korea. She is also a Senior Associate Research Fellow at the EUROPEUM, a Prague-based think-tank. In 2017-2018, Tereza was a Korea Foundation Visiting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Fudan Fellow at Fudan University in Shanghai. She collaborates with the Institute for European Studies,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where she worked from 2012 to 2017. Tereza received her doctorate from Boston University in 2012 and other degrees from Charles University Prague. She is the author of the monograph How Germany Unified and the EU Enlarged: Negotiating the Accession through Transplantation and Adaptation (Palgrave Macmillan, 2015) and has widely published on EU foreign policy in, among other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Studia Diplomatica, and on the EU-Northeast Asia relations in 38th North, The Diplomat,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9DashLine and others. Tereza has been a frequent commentator for media outlets such as Indus News, Czech TV, and NK News.

패널 Panelist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EU대표부 대사

Maria CASTILLO-FERNANDEZ

EU Ambassador in Korea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지명자는 스페인국적의 유럽 외교관/관리로서 2016-2020년 주말레이시아 EU 대사를 지냈다. 이에 앞서 2012년 9월부터 말레이시아 부임 전까지는 유럽대외관계청(EEAS)에서 EU와 인도, 네팔, 부탄 및 방글라데시, 그리고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과의 전반적인 관계 관리 및 조율을 총괄하는 부문의 국장을 역임했다. 2008년에서 2012년 9월까지의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관할하는 EU 대표사무소의 수장으로 홍콩에서 활동했다. 2005년 9월에서 2008년까지는 주한 EU 대표부에서 EU와 남북간 정치관계 및 경제협력 사안을 책임지는 공관 차석을 지냈다. 한국에 부임하기 전,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집행위원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전반을 담당했다.

Maria Castillo-Fernandez, the European Ambassador to Korea, is a Spanish-born European diplomat/manager who served as European Ambassador to Malaysia from 2016 to 2020. Prior to his appointment in Malaysia, she served as director of the European Union External Action Service(EEAS), in charge of overall relationship management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EU, India, Nepal, Bhutan, Bangladesh, and the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SAARC). From 2008 to September 2012, she served in Hong Kong as the head of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Hong Kong and Macau. From September 2005 to 2008, she served as deputy secretary of state at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political relations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EU and inter-Korean relations. Prior to her inauguration in South Korea, he was responsible for the overall relations between the European Commissio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rom 2000 to 2005.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Session 7-4

지속가능발전목표(SDG)14 이행을 위한 해양수산 남북협력 Inter-Korean Cooperation in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for Implementing SDG14

주관기관
Organized by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좌장
Moderator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 부원장
KIM Jong-Deog Korea Maritime Institute, Vice President

발표
Presenter

- **예고르 볼로빅** UNEP 북서태평양 실행계획 코디네이터
- **Yegor VOLOVIK** UNE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Coordinator
- **미아오 웨이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수경재배 담당관
- **MIAO Weimi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Aquaculture Officer
- **박재윤** 글로벌피싱워치 선임 데이터 과학자
- **PARK Jaeyoon** Global Fishing Watch, Senior Data Scientist

토론
Discussant

-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 **Bernhard SELIGER**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Representative
- **전제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부장
- **JUN JeCheon**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MOF, General Director
-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
- **LEE Jung-Sam** Korea Maritime Institute, Director of Fisheries Resources Research Department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7-4)

지속가능발전목표(SDG)14 이행을 위한 해양수산 남북협력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 해양생태계’는 ‘기아 종식(SDG2)’, ‘물과 위생(SDG6)’, ‘기후변화(SDG13)’, ‘육상생태계(SDG15)’ 등 다른 목표와의 연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개발협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북한이 환경보호와 수산·양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남북협력 정책이나 추진동력도 미약한 실정이다. 한반도 해양생태계는 육상과 달리 군사분계선으로 가로막아지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남북 및 주변국과의 협력을 더욱 필요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생명공동체로서의 한반도가 주목받는 이 시점에서 해양환경, 수산, 양식 분야 전문가를 통해 남북·국제협력 필요성과 구상을 들어본다.

Inter-Korean Cooperation in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for Implementing SDG14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DG) 14, Life Below Water’ is highly inter-connected with ‘Zero Hunger(SDG2)’, ‘Clean Water and Sanitation(SDG6)’, ‘Climate Action(SDG13)’, and ‘Life on Land(SDG15)’. DPRK also have a keen interest in environment, fisheries, and aquaculture. However, not only development coopera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with DPRK but also inter-Korean cooperation in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have been relatively marginalized. Marine ecosystem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s organically connected and requires more cooperation than the terrestrial ecosystem divided by military demarcation lines. In the wake of Corona pandemic, in which the peninsula is highlighted as a biotic community, experts will discuss necessities and ideas on cooperation with DPRK in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발표자 Presenter



예고르 볼로빅

UNEP 북서태평양 실행계획 코디네이터

Yegor VOLOVIK

UNE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Coordinator

예고르 볼로빅 박사는 해양 및 담수 자원, 환경, 기후 변화, 기후 위험 및 재해 위험 관리 분야에서 25년 이상 축적된 점진적인 관리 및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 분야는 생태계 기반 관리, 지역 해양 거버넌스, 다자간 환경 협정 및 정부간 메커니즘의 수립 및 기능, MEA 및 정부간 기구(예: 흑해, 카스피해, 북서 태평양), 통합 수자원 관리 및 계획, 기후 변화 및 기후 위험 관리, 재해 위험 감소, 정보 지원 및 지식 관리의 다양한 측면 등이다. 그는 2002년부터 UNOPS, UNDP, UNICEF, UNEP 등 여러 UN 기관과 함께 장기간 협력해왔다. 현재 예고르는 UNEP가 관리하는 북서태평양 실행계획의 코디네이터다. 그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프로그램 시스템 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50개가 넘는 모노그래프와 출판물의 저자/공동저자이다.

Dr. Yegor VOLOVIK brings wide-ranging knowledge and skills from more than 25 years of progressively responsible management and technical experience in marine and freshwater water resources, environment, climate change, as well as climate risk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Specific areas of expertise are ecosystem-based management, regional ocean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Intergovernmental Mechanisms, MEAs and Inter-Governmental Bodies (e.g., the Black Sea, the Caspian Sea, Northwest Pacific),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planning, climate change and climate risk management, disaster risk reduction, various aspects of informational support and knowledge management. He is a long-term UN staff member, having worked with several UN agencies (UNOPS, UNDP, UNICEF, UNEP) since 2002. Currently, Yegor is the Coordinator of the UNEP-administered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He holds a Ph.D. from the Institute of Program System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He is an author/co-author of over 50 monographs and publications.

북서태평양환경보전실천계획(NOWPAP)

예고르 볼로빅

UNEP 북서태평양 실행계획 코디네이터

A. 소개

북서태평양 해양 및 연안환경의 보전, 관리, 개발에 관한 실천계획(NOWPAP)은 1994년 9월,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지역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NOWPAP의 목표는 “연안 및 해안환경을 현명하게 이용, 개발 및 관리함으로써 역내 거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장기적인 혜택을 얻게 하며,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고, 후손들이 해당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상호보완적 목표가 있다.

i. 연안, 해양환경 및 자원의 추가적 파괴 및 오염의 통제, 중단 및 방지

ii. 회복의 여지가 있는 파괴된 연안 및 해양환경의 회복 및 재건

iii. 해당 지역의 현재와 미래 거주민의 자산으로서 연안 및 해안환경의 질과 자원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북서태평양 해양 및 연안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역내 협력체계로서의 권한을 이행하기 위해 NOWPAP은 기술평가, 역량구축 및 정책지원 등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의 선두적 역할을 해왔다.

B. 개요

북서태평양 지역은 아름다운 해양 생물과 상업적으로 중요한 어업 자원을 보유한 해안 및 섬 생태계를 특징으로 한다.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광물 자원이 있는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중 하나이기도 하며, 이는 생태계와 환경에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기후 변화, 급속한 해안 개발, 육상 및 해양 산업, 관광 및 오염(특히 부영양화로 인해 발생), 해양 쓰레기 및 미세 플라스틱, 생물다양성 손실 및 침입 외래종의 도입이 북서태평양 해양과 연안환경의 건강을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 가장 분주한 국제 해운 항로 중 하나에 위치한 이 지역은 우발적 석유 및 위험 · 유해물질의 해상 유출 가능성도 높다. NOWPAP 해양 생태계는 세계에서 인간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곳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방대한 이 지역은 북쪽의 한랭 및 심해 생태계에서 남쪽의 산호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아한대와 온대 지역 모두에 걸친 반폐쇄형 연해로 구성되어 있다. 아름다운 해양 생물과 상업적으로 중요한 어업 및 양식장, 석유와 같은 풍부한 해양 광물 자원 등이 있다. 그러나 해안 개발, 산업, 운송, 석유 생산 및 토지 개간과 집약적 양식업과 같은 활동은 해안 생태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피해를 미치고 있다. 화학 및 산업 폐기물, 미처리 도시 하수, 농업 살충제 및 유거수의 영양소는 광범위한 오염을 일으키고 부영양화 및 유해한 녹조현상을 촉진한다. 여기에 추가로 토양에서 유발된 오염, 우발적 석유 유출, 대기 오염, 해양 및 해안 쓰레기 문제도 있다.

C. 활동 분야

NOWPAP 중기전략(MTS)은 회원, 지역활동센터(RAC) 및 지역사무국(RCU)이 전체 목표 달성을 위해 NOWPAP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지침이다. 회원국은 MTS를 활용하여 NOWPAP 프로젝트 및 활동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 2018-2023 NOWPAP 중기전략은 회원국들에게 건강한 해양 및 연안환경을 위한 실증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2030 지속 가능발전 의제 중 해양 관련 지속 가능발전목표를 지역 차원에서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MTS는 인간 활동과 자연 변화에 의해 세계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Session 7-4

지속가능발전목표(SDG)14 이행을 위한 해양수산 남북협력

Inter-Korean Cooperation in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for Implementing SDG14

및 연안 환경의 악화를 예방하고 되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4개 중점분야를 도출하였다.

i.건강하고 생산적인 연안 및 해양 생태계를 위한 연안 및 하천 유역 통합 계획 및 관리.

2030년 영향: SDG 14.2: 2020년까지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복원력 강화를 포함하여, 해양 및 해안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만들기 위해 복원 조치를 취한다.

ii.해양 환경의 상태에 대한 정기적 평가.

2030년 영향: SDG 6, 12, 14, 15, 17를 위한 연안 및 해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적 차원을 완전히 통합하는 실증 기반 정책 개발 및 평가.

iii.해양 오염 비상사태 해결과 연안 및 해양 오염 저감에 대한 상호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 개발 및 채택.

2030년 영향: SDG 14.1: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해양오염, 특히 해양폐기물, 영양분 오염 등 육상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히 감소한다.

iv.생물다양성 보전.

2030년 영향: SDG 14.1, 14.2 & 14.5: 2020년까지 최신 과학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최소 10%의 해안 및 해양지역을 보존한다.

v.파트너십 구축 및 자원 동원을 통해 역내 협력 강화.

2030년 영향: 연안 및 해양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역내 협력.

D.파트너십

NOWPAP은 해양 및 연안 보전이라는 공동 목표와 공통 원칙 및 가치를 기반으로 한 기타 지역해 프로그램, 지역 및 글로벌 다자간 파트너, 국가 기관을 비롯한 주요 이해 관계자와 문제 기반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2014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 기관의 비국가 파트너 또는 협력자이다.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다수 주제 그룹의 직무상 회원);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기구(PEMSEA)의 비국가 파트너;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NEASPEC)의 파트너;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IOC) 서태평양소위원회(WESTPAC)의 파트너; 유엔 개발 계획(UNDP)/지구환경기금(GEF) 황해 LME 프로젝트 2단계의 파트너; 동아시아해양조정기구(COBSEA)의 파트너. NOWPAP은 해양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E.진행 중인 프로젝트 (세부사항을 제공해 주십시오.)

2018-2019 활동 프로그램은 4개의 우선순위 분야 내에서 파트너십 구축 및 자원 동원이라는 공통 주제 하에 구성된 38개의 개별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a)생태계 기반 통합 연안 및 하천 유역 관리 지원(ICARM)

b)해양 및 해안 환경의 상태 평가

c)육상 및 해양기인 오염 예방 및 저감

d)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보전

F.NOWPAP 지역 석유 및 HNS 유출 비상 계획(RCP)

UNEP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으로 설립한 NOWPAP 해양오염방제 지역활동센터(MERRAC)는 회원국이 석유 및 위험 · 유해물질(HNS) 유출에 대한 대비 및 대응 방안을 갖추고 역량을 구축하고 NOWPAP 지역 석유 및 HNS 유출 비상 계획(RCP)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RCP를 통해 주요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원국이 다른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NOWPAP 지역 석유 유출 비상 계획은 2003년에 채택되었다. 이후 2008년에 위험 · 유해물질(HNS)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다.

G.조직구조

i.회원국 (인터랙티브 맵 준비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Session 7-4

지속가능발전목표(SDG)14 이행을 위한 해양수산 남북협력

Inter-Korean Cooperation in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for Implementing SDG14

- ii. 지역사무국(RCU) - NOWPAP 활동을 총괄 및 추진하는 수뇌부. 행동 계획의 운영에 관한 NOWPAP 회원국의 결정을 이행하는 전반적 책임이 있다. 또한 4개 RAC 활동을 조정한다. 일본 도야마와 한국 부산에 위치해 있다.
- iii. 정부간회의(IGM) - 정책 지침을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NOWPAP의 고위급 통치기구. 참가 국가 중 한 곳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는 연례행사이다.
- iv. 연락관(Focal Point)이란 각 회원국 주관 부처의 고위급 대표들이다.
 - a) 일본: 일본 외무성, 국제협력국, 국제환경부를 비롯하여 협력부처인 환경성, 국토교통성 및 해상보안청
 - b)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생태환경부, 국제협력부를 비롯하여 협력부처인 해사안전청
 - c)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후변화외교과를 비롯하여 협력부처인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및 해양경찰청
 - d) 러시아 연방: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국제협력부를 비롯하여 협력부처인 외무부 및 교통부(연방해양하천운송청)
- v. 사무국
- vi. 지역활동센터(RAC) - 행동 계획을 실행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 네트워크를 조율한다.
 - a) 특별모니터링 및 연안환경평가 지역활동센터 (CEARAC)
 - b) 데이터 및 정보네트워크 지역활동센터(DINRAC)
 - c) 해양오염방제 지역활동센터(MERRAC)
 - d) 오염모니터링 지역활동센터(POMRAC)

H. 성과

- i. 2018년과 2019년, 중국, 한국, 러시아 국가전문가들이 일본 적색목록에 등재된 총 1,196종 평가.
- ii. NOWPAP은 아래를 포함하는 우수한 지역 보고서 발표.
 - 지역보고서 “러시아 연안 해역의 사례 연구와 NOWPAP 지역 하천 유거수 및 연안 해역의 미세플라스틱”
 - 지역개요: 하천의 추이 및 해양 및 연안 환경에 대한 오염 물질의 직접 투입 평가 완료
 - 해양오염 대응 중 무인항공기 활용에 대한 지역보고서 작성
- iii. SDG 지표와 연계된 NOWPAP EcoQO 타겟에 대한 지역종합보고서에서 2019 개발된 NOWPAP 지역의 석유 유출 대응 역량 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 iv. 해양쓰레기 국제 파트너십의 지역 노드가 2019년 출범하여, 개별 프로젝트 및 글로벌 온라인 웨비나(2021년 5월)를 포함하여 일련의 활동 지원.
- v. NOWPAP 협력 체계를 위한 건전한 재정 구조 뿐만 아니라 4개의 지역활동센터와 지역사무국 간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
- vi. NOWPAP은 2009년 채택된 지역 석유 및 위험·유해물질(HNS) 유출 비상계획과 2008년 채택된 지역 해양쓰레기 행동계획 등 두 개의 주요 지역 환경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최근에는 진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로서 생태학적 질 목표 도입.
- vii. 2000년 (NOWPAP 산하) 설립 이래로, 해양오염방제 지역활동센터(MERRAC)는 유엔 환경계획과 국제해사기구의 지원을 통해 관련 국가 연락관 및 지역 관할 당국의 RCP 활동을 성공적으로 조율.
- viii. NOWPAP는 정기적 교육 강좌 및 실습 교육 제공.
- ix. 지중해 지역 해양오염긴급대응센터, 우발적 수질오염에 관한 기록, 연구 및 실험 센터; 유럽해양안전청; 헬싱키 위원회; 및 국제 NGO(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OSLR(Oil Spill Response Limited)) 등 관련 지역 및 국제기구 간 지식공유 및 이전 지원.

I. 재밌는 사실들 (협약 및 회원국 관련)

-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포함된 143개 종이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관찰된다.
- 세계 어획량의 1/40이 NOWPAP 지역에서 나온다.

J. 웹사이트: <https://www.unenvironment.org/nowpap/>

Session 7-4

지속가능발전목표(SDG)14 이행을 위한 해양수산 남북협력

Inter-Korean Cooperation in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for Implementing SDG14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Yegor VOLOVIK

UNE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Coordinator

A.Introduction

The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of the Northwest Pacific Region (NOWPAP), launched in September 1994 is part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Regional Seas Programme. The overall goal of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is "the wise us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he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so as to obtain the utmost long-term benefits for the human populations of the region, while protecting human health, ecological integrity and the region's sustaina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Three complementary goals were also defined as follows:

- i.The control, halting and prevention of any further degradation and deterioration of the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and its resources;
- ii.The recovery and rehabilitation of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s that have been degraded and which still have the potential for such a recovery;
- iii.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al quality and resources as assets for the present and future human populations of the region.

In implementing its mandate as a regional cooperative mechanism for the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Northwest Pacific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NOWPAP has often been at the forefront of addressing environmental challenges through its technical assessments, capacity-building and policy support

B.Overview

The Northwest Pacific region features coastal and island ecosystems with spectacular marine life and commercially important fishing resources. Home to a wealth of biodiversity and mineral resources, the region is also one of the most densely populated in the world, resulting in unprecedented pressures on ecosystems and the environment. Climate change, rapid coastal development, onshore and offshore industry, tourism, and pollution (especially caused by eutrophication), marine litter and microplastics, biodiversity loss and the introduction of invasive non-indigenous species are taking an increasing toll on Northwest Pacific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al health. Situated in one of the busiest international shipping lanes, the region is also at high risk of accidental oil and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spills at sea. NOWPAP marine ecosystems are rated among the world's most vulnerable to human impact. The region is vast and features a large variety of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from cold and deep-water ecosystems in the north, to coral reefs in the south. The region comprises semi-enclosed marginal seas situated in both the sub-polar and temperate zones. It has spectacular marine life and commercially important fishing and mariculture grounds and rich offshore mineral resources such as oil. Coastal development, industry, transport, oil production and activities such as land reclamation and intensive mariculture take an ever-greater toll on coastal ecosystems. Chemical and industrial wastes, untreated municipal sewage, agricultural pesticides and nutrients in run-off cause widespread damage and stimulate eutrophication and harmful algal blooms. Added to these are pollution from land, accidental oil spills, atmospheric pollution and marine and coastal litter.

Session 7-4

지속가능발전목표(SDG)14 이행을 위한 해양수산 남북협력

Inter-Korean Cooperation in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for Implementing SDG14

C.Areas of work

The NOWPAP Medium-term Strategy (MTS) is a strategic guidance for members, Regional Activity Centres (RACs) and Regional Coordinating Units (RCU) to implement NOWPAP activities in order to achieve its overall goal. Member states use the MTS to prioritize NOWPAP projects and activities. The 2018-2023 NOWPAP Medium-term Strategy aims to equip Member States with the evidence-based cooperative mechanism to ensure a healthy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thereby advancing regional progress towards achieving ocean-relat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The MTS has identified core areas of work to prevent and reverse increasing degradation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in one of the world's most impacted by human activities and natural changes region

i. Integrated coastal and river basin planning and management for healthy and productive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2030 Impact: SDG 14.2: By 2020, sustainably manage and protect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to avoid significant adverse impacts, including by strengthening their resilience, and take action for their restoration in order to achieve healthy and productive oceans.

ii. Regular assessments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2030 Impact: Evidence-based policy making and assessments fully integrating the environmental dimen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astal and marine areas in support of SDGs 6, 12, 14, 15 and 17.

iii. Developing and adopting effective measures for mutual support in marine pollution emergencies and in mitigating coastal and marine pollution.

2030 Impact: SDG 14.1: By 2025, prevent and significantly reduce marine pollution of all kinds, in particular from land-based activities, including marine debris and nutrient pollution.

iv. Biodiversity conservation.

2030 Impact: SDGs 14.1., 14.2 & 14.5: By 2020, conserve at least 10 per cent of coastal and marine areas, consistent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and based on the best available scientific information.

v. Strengthening regional cooperation through partnership building and resources mobilization.

2030 Impact: Enhanced and effective regional cooperation in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D.Partnerships

NOWPAP engages in issue-based collaboration with major stakeholders, including other Regional Seas programmes, regional and global multilateral partners, national institutions based on common principles and values and the shared goal of marine and coastal conservation. Partners include: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in 2014. It is also a non-country partner or collaborator of the following regional institutions: the 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PICES) (ex-officio member of several thematic groups); non-country partner of the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PEMSEA); partner in the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NEASPEC); partner in the Sub-Commission for the Western Pacific (WESTPAC) of the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partner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Yellow Sea LME Project Phase II; and partner in the Coordinating Body for the Seas of East Asia (COBSEA). NOWPAP works on marine litter issues closely with the Tripartite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 (TEMM).

E.Ongoing projects (please provide us details)

The 2018-2019 Programme of Work includes 38 individual projects structured within four Priority Areas and a crosscutting theme on Partnership Building and Resource Mobilization.

a) Support Ecosystem-Based Integrated Coastal and River Basin Management (ICARM)

b) Assess Status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Session 7-4

지속가능발전목표(SDG)14 이행을 위한 해양수산 남북협력

Inter-Korean Cooperation in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for Implementing SDG14

- c) Prevent and Reduce Land- and Sea-Based Pollution
- d) Conserve marine and coastal biodiversity

F. NOWPAP Regional Oil and HNS Spill Contingency Plan (RCP).

The NOWPAP Marine Environmental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Region Activity Centre (MERRAC) established jointly by UNEP and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supports Member States in building capacity and coordinating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oil and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HNS) spills and implementing the NOWPAP Regional Oil and HNS Spill Contingency Plan (RCP). The latter enables a member state to request assistance from other countries in the event of a major spill incident. The NOWPAP Regional Oil Spill Contingency Plan was adopted in 2003. The Plan was amended to cover the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HNS) in 2008.

G. Organizational structure

- i. Contracting Parties (Interactive map coming so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People's Republic of China;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 ii. Regional Coordinating Unit (RCU) – is the nerve center directing and promoting the NOWPAP activities. It has the overall responsibil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OWPAP Members' decisions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Action Plan. It also coordinates the activities of the four RACs. It was set up in Toyama, Japan and Busan, Korea.
- iii. Intergovernmental Meeting (IGM) – This is the high-level governing body of NOWPAP that provides policy guidance and makes decisions. The IGMs are held annually in one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on a rotational basis.
- iv. Focal Points are senior representatives of the following ministries in Member States
 - a) Japan: Global Environment Divis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of Japan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of Japan, and Japan Coast Guard
 - b) People's Republic of China: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of the P. R. China in co-operation with China 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
 - c) Republic of Korea: Climate Diplomacy Division, Climate Change, Energy and Environmental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R. Korea,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and R. Korea Coast Guard
 - d) Russian Federation: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Ministry of Transport of the Russian Federation (Federal Agency for Maritime and River Transport)
- v. Secretariat
- vi. Regional Activity Centres (RACs) – They coordinate the network of national institutions that run projects that implement the action plan.
 - a) Special Monitoring & Coastal Environmental Assessment Regional Activity Centre (CEARAC)
 - b) Data and Information Network Regional Activity Centre (DINRAC)
 - c) Marine Environmental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Regional Activity Centre (MERRAC)
 - d) Pollution Monitoring Regional Activity Centre (POMRAC)

H. Achievements

- i. In 2018 and 2019, a total of 1,196 species listed on the Red List of Japan were evaluated by national experts from China, Korea and Russia

Session 7-4

지속가능발전목표(SDG)14 이행을 위한 해양수산 남북협력

Inter-Korean Cooperation in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for Implementing SDG14

ii. NOWPAP has produced great regional reports notably:

- Regional Report “Microplastics abundance in river runoff and coastal waters of the NOWPAP region with a case study in the Russian coastal waters”
- Regional overview: Assessment of trends in river and direct inputs of contaminants to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completed
- The regional report on the use of unmanned aircraft during marine pollution response has been developed

iii. A Regional Synthesis Report on NOWPAP EcoQO targets aligned with SDG indicators published Guidelines on the assessment of oil spill response capability in the NOWPAP region developed in 2019

iv. Regional node of the Global Partnership on Marine Litter (GPML) was launched in 2019, a series of activities have been supported, including individual projects and a global online webinar (May 2021)

v. Establishment of a robust network of four Regional Activity Centres and the Regional Coordinating Unit as well as a sound financial architecture for the NOWPAP cooperation mechanism.

vi. NOWPAP has established two major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frameworks, namely the Regional Oil and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HNS) Spill

vii. Contingency Plan adopted in 2009 and the Regional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adopted in 2008. In recent years, Ecological Quality Objectives have been introduced as benchmarks to evaluate progress.

viii. Since its establishment (under NOWPAP) in 2000, the Marine Environmental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Regional Activity Centre (MERRAC) – with support from UN Environment and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has been coordinating the RCP activities of relevant national focal points and competent authorities at the regional Level with notable successes

ix. NOWPAP have conducted regular training courses and practical exercises.

x. Supported knowledge-sharing and transfer among relevant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Regional Marine Pollution Emergency Response Centre for the Mediterranean Sea; the Centre of Documentation,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on Accidental Water Pollution; the 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 the Helsinki Commission; and international NGOs (the International Tanker Owners Pollution Federation,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and Oil Spill Response Limited).

I. Interesting facts (About the Convention or the Contracting Parties)

- 143 species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s (IUCN) red list are observed in the Northwest Pacific region
- A quarter of the world’s fish catch is produced in the NOWPAP region

J. Website: <https://www.unenvironment.org/nowpap/>

발표자 Presenter



미아오 웨이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수경재배 담당관

MIAO Weimi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Aquaculture Officer

미아오 웨이민은 1982년 내수면수산학으로 학사학위를 받고 상해수산대학(현재는 상해해양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1986년 필리핀 대학교에서 양식산업프로그램 석사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했다.

미아오는 상해수산대학 졸업 후 1982년, 중국수산과학원(CAFS) 산하 민물어업연구센터(FFRC)에서 전문경력관을 시작했다. 입소 후 내륙개방수역 내 수산업 강화 및 양식 연구부서에서 연구원으로 시작하여, 1986년 FFRC의 훈련교육부에 합류하여 조교수/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이후 부서장이 되었다. 1994년 CAFS에서 미아오를 FFRC 부센터장으로 임명하여, 이후 FAO에 합류하기 전까지 FFRC 부센터장으로서 국제훈련 및 교육, 연구, 국제협력을 총괄했다. 또한 1996년에서 2008년까지 난징 농업대학교 수산학과의 교수, 대학원 지도교수이자 부학과장을 지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08년까지는 아시아태평양 양식 센터 연계망 4개 지역센터 중 하나인 아시아태평양지역 통합 양식 연구 및 교육 센터장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FFRC 국제교육프로그램에서 20년 이상 프로그램 담당자, 강자 설계자 및 강사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연구자로서는 잉어의 유전 능력 개량, 어업/양식의 사회경제학 정책, 양식 환경, 공동체 기반 어류 문화 및 통합 양식 시스템 등에 대해 국가 단위 및 국제적 협동 연구 참여 건 이상에 참여했다. 수십 건의 과학연구논문을 발표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상을 수상하며 연구 실적을 인정받기도 했다.

2008년 아시아태평양 FAO 지역사무소 내 양식담당자로 합류한 이래 미아오는 아시아태평양 내 FAO의 정규적 양식업 프로그램 활동 계획 및 도입, 현장 프로젝트 계획과 수행, 정책 자문 제공 등을 통해 FAO 회원국 내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발전 지원하고 양식 관련 역내 기관 및 포럼 이사회에서 FAO 대표로 참여하는 등 역내 FAO 양식업 프로그램 활동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또한 양식 시스템, 수산 종자 생산, 사료, 양식 건강 관리, 수중 생물다양성 보호, 바람직한 양식 관행, 양식업 추적 가능성 및 국가 양식/어업 정책 및 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30여개 이상 국가 및 지역 프로젝트에서 기술 총괄로 참여하며 그 개발과 이행을 지원했다. 또한 담당자로서 십여 개 이상의 역내 기술 협의 및 회의를 주최하고 지원했다. 2014년부터는 FAO 청색 성장 지역 이니셔티브의 아태지역 담당자로 활동해왔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어업위원회 사무국의 일원이자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9년 12월 이후에는 로마에 위치한 FAO 어업 부서로 발령 받아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발표자 Presenter



미아오 웨이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수경재배 담당관

MIAO Weimi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Aquaculture Officer

Mr. MIAO Weimin graduated from Shanghai Fisheries College (presently the Shanghai Ocean University) in 1982 with a bachelor's degree and majored in Inland Fisheries. He obtained his master's degree in 1986 after completing a master's program in aquaculture at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Mr. Miao started his professional career at the Freshwater Fisheries Research Centre (FFRC) of the Chinese Academy of Fishery Sciences (CAFS) in 1982 after graduating from the Shanghai Fisheries College. He first worked as a research associate in the Research Department for Fisheries Enhancement and Aquaculture in Inland Open Waters. After joining the Training and Education Division of FFRC in 1986, he worked as a lecturer and associate researcher and later served as the division chief. CAFS appointed him as Deputy Director of FFRC in 1994. He was in charge of international training and education, researc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until he joined FAO. He was also the professor, postgraduate supervisor, and Vice Dean of Fisheries College of Nanjing Agriculture University from 1996 to 2008. He was also the Director of Asia-Pacific Regional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for Integrated Fish Farming, one of the four Regional Lead Centres of the Network of Aquaculture Centres in Asia-Pacific from 2000 to 2008. Mr. Miao played a vital role in the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 of FFRC as the program manager, course designer, and lecturer for over 20 years. As a researcher, he led and participated in over a dozen maj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s on carp genetic improvement, fisheries/aquaculture socioeconomics and policy, aquaculture environment, community-based fish culture, and integrated aquaculture systems. He produced dozens of scientific research papers and was awarded several prizes from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for research achievement.

As his affiliation with FAO began, in 2008, as the Aquaculture Officer at the FAO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Mr. Miao has been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FAO aquaculture program activit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responsibility included: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FAO's regular aquaculture program activities in the region, supporting aquaculture and inland fisheries development in the FAO member countries through developing and implementing field projects, providing policy advice, and representing FAO in the governing body of aquaculture related regional organizations and fora. He has supported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over 30 national and regional projects as the lead technical officer covering: aquaculture systems, seed production, feed, aquaculture health management, aquatic biodiversity protection, good aquaculture practices, aquaculture traceability, and national aquaculture/fisheries policy and strategy. As the responsible officer, he organized and supported more than a dozen regional technical consultations and meetings. Since 2014, he was the delivery manager for FAO Regional Initiative on Blue Growth in Asia-Pacific. From December 2019, as the Secretariat member and Acting Secretary, his contributions were vital in the operation of the Asia-Pacific Fishery Commission. Mr. Miao later moved to the FAO Fisheries Division in Rome.

북한 양식업 개발의 필요성과 잠재력 및 북한 양식업 개발 지원에 있어 FAO와 한국 간 잠재적 협력 가능성

미아오 웨이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수경재배 담당관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이하 북한)은 긴 해안선과 전체 국토 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제한적 경작지를 보유한 전형적인 산악 국가다. 전통적으로 어류 및 기타 수산 식품은 이곳 사람들에게 중요한 식량 및 영양 공급원이었다.

해면어업은 북한에서 어류 및 기타 수산 식품의 주요 공급원이다. 북한 정부가 FAO에 보고한 수산물 최고 생산량은 450,000톤(1994년)으로 그 중 83%가 포획 어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어류 및 기타 경제적 수산자원의 해양 개체수는 감소해 왔으며, 이는 어업 활동의 증가, 주로 트롤 어업에 의한 자연 산란장의 파괴 및 파괴적 어업 방식에 따른 치어 손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994-1997년(북한이 FAO에 어업생산량을 보고한 최근 몇 년) 동안 포획 어업 생산량은 36.4% 감소했다.

북한 고위당국은 어류 생산량을 늘리고 인민을 위한 어류 공급량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최고지도자가 양식 및 어업 생산장에 자주 방문하는 것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준다. 어획량을 늘리는 것이 어려움을 깨닫고 북한은 양식업 개발에 더 중점을 두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i) 해양 및 내륙 개방 수역 모두에서 가두리 양식과 같은 새로운 양식 기술 도입 및 확대 ii) 메기, 터bot, 미꾸라지 및 시장성 좋은 신규 종 및 관련 양식기술 도입 iii) 내륙 및 해양 양식을 위한 양질의 종묘 생산 역량 향상 iv) 양식 사료 생산 역량 개발. FAO는 지난 20년 간 티라피아 월동, 해삼 종묘 생산, 해양 어류 종묘 생산 및 양식, 성게 및 방주 종묘 생산, 내륙 가두리 양식, 대규모 양식 및 개선된 해양 쌍각류 조개 양식법 등 FAO TCP 지원을 통해 북한에게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해 왔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최근 도입된 TCP 프로젝트 중 목표 및 예상 결과를 완전히 달성한 경우는 얼마 없었다. 한국의 보조금으로 FAO는 2017년 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양식업 발전 지원"이라는 GCP 프로젝트 제안 수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2018년 FAO는 국가 파견단 조사결과 및 기타 가용한 데이터 및 정보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농림어업 부문별 검토를 수행했다. 부문별 검토 중 어업 및 양식 분야에 대한 결과로서 북한이 외부 지원을 바라는 주요 영역을 정리하고 북한의 양식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FAO와 한국 간의 향후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 북한의 기후 조건에서 연못과 가두리 양식 및 내륙 개방 수역에서의 사육을 위한 친어 개발 및 대형 담수어 종묘 생산 역량 강화와 새로운 기술 도입
- 다양한 양식 시스템 및 해양 자원 증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기술 도입 및 해양 어류와 연체 동물의 대량 종묘 생산 역량 강화
- 다시마, 유충 등 우수한 양식종 도입
- 가두리 양식, 산업 양식 등 해양 어류 양식을 위한 현대적 기술 도입
- 수산 동물 건강 관리 및 질병 통제 개선
- 어류가공기술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 해양서식지 및 야생어류 보호를 위한 천연자원 및 환경관리 기술 개발
- 양식사료 산업 개발.

Need and potential of aquaculture development in DPRK and prospect of potential cooperation between FAO and ROK in supporting aquaculture development in DPRK

MIAO Weimi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Aquaculture Officer

Abstrac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s a typical mountainous country with long coastal line and limited arable land, about 20 percent of the total land area. Traditionally, fish and other aquatic food are important source of food and nutrition for the people.

Marine capture fisheries has been the main source of fish and other aquatic food in DPRK. The highest production of aquatic animal reported by the government of DPRK to FAO was 450,000 tonnes (1994), 83 percent of that was from capture fisheries. Marine population of fish and other economic aquatic animals has declined, which is believed to be caused by the increased fishing efforts, destruction of natural spawning grounds largely by trawling and loss of juveniles due to destructive fish methodologies. From 1994-1997 (only recent years when DPRK reported its fisheries production to FAO), the capture fisheries production declined by 36.4 percent.

Increasing fish production and improving the supply of fish for the people has been identified as the priority by the top authority in DPR Korea. This has been well demonstrated by the frequency of visits of the Supreme Leader to aquaculture and fishing production units.

Realizing the difficulty in increasing capture fisheries production, the government focuses more on developing aquaculture with the identified priorities: i) introduce and scale up new farming technologies such as cage culture in both marine and inland open waters; ii) introduce new species of good market prospects, such as catfish, turbot and loach and related farming technology; iii) improve the capacity of quality seed production for both inland and marine aquaculture; and iv) develop capacity for aquafeed production.

FAO has been providing the most technical assistance to DPRK in its endeavor to develop aquaculture in the past two decades largely through FAO TCP supports, which covered tilapia overwintering, sea cucumber seed production, marine fish seed production and farming, Sea urchin and ark shell seed production, inland cage fish farming and large size fish production and improved marine bivalve aquaculture practices. Due to various reasons, few of recently implemented TCP projects fully achieved their objective and expected outcomes. With the grant from the Republic of Korea, FAO supported DPR Korea in developing a GCP project proposal "Supporting to Aquaculture Developmen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late 2017.

In 2018, FAO carried out a comprehensive agriculture sectoral review based on the country mission findings and other available data and information. The sectoral review included a component on fisheries and aquaculture sector, which identified major areas where DPRK expects external assistance, which are also potential areas for future collaboration between FAO and ROK to support the aquaculture development in DPRK:

Session 7-4

지속가능발전목표(SDG)14 이행을 위한 해양수산 남북협력

Inter-Korean Cooperation in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for Implementing SDG14

- Adoption of new technology and strengthen capacity for broodstock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large size seed of freshwater fish species for pond and cage culture and stocking in inland open water bodies under the climatic conditions of DPR Korea
- Adoption of new technology and strengthen capacity for mass seed production of marine finfish and mollusks to meet the demand of various culture systems and marine stock enhancement
- Introduction of good strain of cultured species, such as Japanese kelp and larva
- Introduction of modern technology for marine finfish farming, including cage farming and industrial farming
- Improve aquatic animal health management and control of aquatic animal diseases
- Technology of fish processing and value-added products
-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 management technology for protecting marine habitats and wild fish population
- Development of aqua-feed industry.

발표자 Presenter



박재윤

글로벌피싱워치 선임 데이터 과학자

PARK Jaeyoon

Global Fishing Watch, Senior Data Scientist

글로벌피싱워치의 박재윤 선임데이터과학자는 다양한 인공위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선들의 어업 활동을 분석하고 전 세계 어선 정보를 취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 내 연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어업 모니터링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과학 기술과 환경 보전의 접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글로벌피싱워치 이전에 유엔환경계획 (UNEP) 아태지역사무소에서 기후적응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세계자연기금 (WWF) 한국본부에서 시장변화이니셔티브를 이끌었으며, 프랑스 기업 베올리아 (Veolia)에서 수자원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학위는 카이스트와 에콜데민파리에서 받았다. 파이선과 빅쿼리 프로그래밍 언어를 주로 사용하며 기타와 수영이 취미다.

As a senior data scientist at Global Fishing Watch, PARK Jaeyoon analyzes fishing activities using various satellite data sources and helps identify vessels worldwide. Born and raised in Asia, he leads research projects in the region in collaboration with fisheries research institutes and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For more than a decade, he has been working at the intersection point between technology and conservation. He holds a BS in computer science from KAIST and an MS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from Ecole Des Moines Paris. His past work experience ranges from lab research at Veolia Environnement to managing business engagement at WWF-Korea and climate adaptation policy work at UN Environment Asia-Pacific. Jaeyoon codes mainly in Python and BigQuery and loves swimming and playing the guitar.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어업의 모니터링과 남북협력의 필요성

박재윤

글로벌피싱워치 선임 데이터 과학자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은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공정한 사용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요인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대다수의 불법적 조업 활동들이 '암흑 선단'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이다. 암흑 선단이란 공개된 어업 모니터링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는 선단을 의미하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이거나 조업 활동이 당국에 의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체적인 어획량의 관리 및 모니터링을 어렵게 하고 정확한 자원평가를 어렵게 한다. 글로벌피싱워치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포함한 국제 연구팀은 다중 인공위성 기술과 빅데이터 처리 능력을 종합하여 북한 수역 내 암흑 선단의 어로 활동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어업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국가간 협력관계는 살오징어와 같이 국가간 경계선을 넘나드는 어종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어업 모니터링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이며, 과학에 기반한 데이터는 동해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남북협력의 실마리가 될 수 있고, 이는 지역 어업의 협력적 관리를 넘어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Session 7-4

지속가능발전목표(SDG)14 이행을 위한 해양수산 남북협력

Inter-Korean Cooperation in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for Implementing SDG14

Data-driven Monitoring for Sustainable Fisheries and Inter-Korean Fisheries Cooperation

PARK Jaeyoon

Global Fishing Watch, Senior Data Scientis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 is one of the biggest threats to the sustainability and fair use of marine resources. The biggest difficulty in addressing this problem is that the majority of illegal fishing activities are carried out by the 'dark fleets'. A dark fleet refers to a fleet that does not appear in public fishing monitoring systems, and is often a fishing vessel without a license from the authorities or whose fishing activities are not properly managed by the authorities. This makes it difficult to manage and monitor the overall catch and thus hinders accurate resource assessment. An international research team that includes Global Fishing Watch and Korea Maritime Institute was able to scientifically reveal the fishing activities of the dark fleets in North Korea's waters through a combination of multi-satellite technology and big data processing. Providing comprehensive fisheries information through such technology will be an important first step towards sustainable fisheries management. In addition, transboundary cooperation is essential for managing fish species that cross national borders, such as squid. Reliable, neutral, and science-based data on fishery monitoring can be a key to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use of marine resources in the East Sea, which can go beyond cooperative management of regional fisheries and contribute to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토론자 Discussant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Bernhard SELIGER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Representative

2002년 이후 베른하르트 젤리거는 한국 한스자이델 재단 대표로 활동해왔다. 최근에는 산림과 생물다양성 등 관련하여, 과거에는 신재생에너지, 청정개발체계를 비롯하여 무역과 경제 등과 관련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여러 차례 방문했다. North Korean Review의 부편집장 이기도 하다.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교수로 강의했다. 젤리거 박사는 뢰텐헤르데케 대학교에서 2007년 하빌리타치온(교수자격)을 취득했으며 1998년 독일 쾰른대학교 경제정책연구소에서 박사학위(Dr.sc.pol.)를 받았고 1994년 파리1대학(팡테옹 소르본, 프랑스)에서 첫 학사학위를 받았다. 젤리거 박사는 서울시(2007)와 강원도(2012)의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었다.

Since 2002, Dr. Bernhard Seliger has been a representative of the Hanns Seidel Foundation in Korea. He frequently travels to North Korea, implementing capacity-building projects, among others in forestry and biodiversity, and previously in renewable energy and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s well as trade and the economy. Dr. Seliger also serves as associate editor of North Korean Review. From 1998 to 2002, he worked as a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r. Seliger earned a habilitation at the University of Witten-Herdecke (2007) and a doctorate (Dr.sc.pol.) at the Institute for Economic Policy, Kiel University, Germany (1998) and the first degree from 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France, 1994). Dr. Seliger is an honorary citizen of Seoul (2007) and Gangwon Province (2012).

토론자 Discussant



전제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부장

JUN JeCheon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MOF, General Director

전제천 부장은 1990년 국립수산물과학원에 해양수산물연구소로 임용되어 30여년간 양식분야의 연구개발, 연구기획을 담당한 전문가로 2020년부터 양식산업연구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제주대학교에서 수산증식학을 전공하였고 석·박사는 제주대학교와 군산대학교에서 수산양식학을 전공하면서 어류 생리학 및 번식생태학을 연구하였다.

그동안의 연구는 어류, 패류, 갑각류의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친환경양식, 전략품종 육성, 양식장 적지개발, 미래 양식기획 등이다.

또한 한·중·일 연구협력 및 교류, 양식분야 한·미 협력사업, ODA 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외협력 및 양식기술 공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양식기술과 ICT를 연결, 융합한 스마트양식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Director-General JUN Je Chun was appointed as a researche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NIFS), contributing to research development and planning of an aquaculture field for the past 30 years. He has served as a Director-General of the Aquaculture Research Department since 2020.

He graduated from Jeju National University, majoring in Aquaculture, and earned his M.S. from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Ph.D. from Kunsan National University with a major in Aquaculture.

As a scientist and researcher of NIFS, his research area extends to seed production and aquaculture technology of fish, shellfish, and crustaceans, eco-friendly aquaculture systems, strategic varieties breeding, development of suitable sites for fish farms, and planning of future aquaculture.

Director-General Jun has extensive administrative experience and interes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quaculture technology transfer, promoting the Korea-China-Japan Research Cooperation and Exchange, the ROK-U.S. Cooperation Project in Aquaculture Field and other ODA projects.

Now, he is focusing on developing an ICT-based Smart Aquaculture System.

토론자 Discussant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

LEE Jung-Sam

Korea Maritime Institute, Director of Fisheries Resources Research Department

이정삼 연구실장은 2004년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근무하여 현재 수산자원 관리 관련 정책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자원회복계획, 종자방류사업, 바다목장 조성사업, TAC 확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등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된 분야에 그의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최근 연구로는 한반도 수역에서의 불법어업 모니터링 및 방지 대책 마련, 오징어 자원관리를 위한 남북 협력 방안 등이 있다.

In 2004, LEE Jung-Sam joined the Korea Maritime Institute. His research areas include policies related to maritime resource management. Among these, his primary research focuses on resource recovery plans, seed release programs, sea farm projects, TAC expansion, consumer participatory maritime resource management, and other issu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marine resources. His recent research projects include developing measures to monitor and ward off illegal fishing in the water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for squid resource management, among others.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